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내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3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 310 호



금주법구

제자의 덕행이 스승을 닮았다면
한 치도 앞을 못 본 소심한 제자이고
떠어난 덕행 스승을 능가하면
참으로 뜻을 따른 스승의 제자일세.
-경덕전등록-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탑골공원과 불교 인연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에 소재한 탑골공원의 자리는 본래 조선시대의 원각사 절터였다. 원각사는 조선 6대 세조의 명에 의해 1464년 고려때부터 내려오던 흥복사의 옛터를 넓혀 건립한 사찰로 조선 초기에는 조계종 본사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연산군과 중종때 절을 폐지하고 건물을 헐어버려 폐허가 되었다.

그 후 1897년에 이곳에 공원이 지어지면서 그 이름을 원각사 탑의 이름을 따서 백탑파고다공원이라 명명했고, 1991년부터 탑골공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원 경내에는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십층석탑과 보물 제3호인 원각사비가 있다. 탑골공원은 터와 이름, 그리고 전해지는 문화유산에서 보듯이 '불교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탑골공원 주변 역시 '불교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가 인접해 있고, 3·1운동을 주도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의 정기가 서린 대각사가 자리잡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안국 교차로와 탑골공원이 이어지는 인사동길이 정비되면서 이 일대에 다양한 불교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불교역사가 면면히 이어져온 탑골공원이 서울시에 의해 민족의 성지로 복원된다. 이와 함께 공원 이용객의 대부분이 노인들인 점을 감안해 공원 인근 종로구 경운동 옛 통계청 건물에 대지 972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짓고 무료급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복지센터를 운영할 위탁체 모집을 지난 5일 마감했다. 신청 현황을 보면 불교계의 조계종 복지재단과 진각종 복지재단을 비롯해 사랑의 전화, 연세대학교 등 10개 법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골공원 성역화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계사 성역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불교계 법인이 복지센터 운영체로 선정된다면 종로일대는 명실상부하게 불교복지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다만 성역화의 근본 취지와 그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그 정신을 가꾸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장-군-죽-비

◇흔들리는 불교, '화엄학림결사'로 바로 세운다. 어느 시대건 佛法 그 자체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불자들이 흔들렸을 뿐. (9면)

◇교계 첫 대안학교인 '작은학교' 개교. 우주를 머금은 아침이슬처럼 온 세상을 품에 안는 '큰 학교'로 발전하기를…. (11면)

◇광우병이 부른 육식 공포, 사찰음식으로 날려버린다. 사찰음식 전문점, 사찰음식 서적에 이어 TV에까지 초록 식단 점령. (14면)

◇만공 스님의 선학원 설립, 일제에 맞선 항일 운동. 예나 지금이나 본분사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세상을 제도하는 일. (16면)

동학사 사하촌 정비 불교문화센터 6월 개원

음식점 등 경내지 밖 이전
수행환경권 회복 '모범'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의 가속화 등으로 개인소유의 땅은 물론이고 장기임대 형식의 사찰 토지에서까지 수행환경을 해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마구잡이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계룡산 동학사(주지 일연)가 경내지의 계룡휴게소 등 음식점 10곳을 정비해 사하촌 정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동학사는 최근 일주문에서 1km 안쪽 5백여평의 부지에 40여년간 영업해 온 계룡휴게소 등 3곳의 음식점을 경내지 밖으로 이전시킴으로써, 5년만에 경내지내 10개의 민가를 모두 정비했다.

99년 울산 석남사가 부지 매입을 통해 상가개발 및 식당건물의 건축계획을 저지하고, 지난해 김천 직지사가 일주문앞 음식점 신축을 법적(전통사찰보존법의 '수행환경 보호' 취지)으로 저지한 적은 있지만 일주문 내의 대대적인 사하촌 정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4년 비로봉 아래 남매탑 근처에 모여 있던 무속인들을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경내지내의 음식점들을 차례로 이전시킨 동학사는 3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이달 초 계룡휴게소 등 음식점의 등기 이전을 마무리했다. 동학사는 이 건물들을 개조해 오는 6월 여름불교학교 및 도서관, 영상실, 불경서당, 서예실 등을 갖춘 친환경적인 불교문화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일연스님은 "비구니 교육도량인 동학사의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하촌 정비가 불가피했다"면서,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관리소와 협의해 그들이 경내지 밖의 마을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1987년부터 야기된 온천, 식당,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 조성에 따른 수행환경 침해사례는 모두 33건. 이중 분쟁이 종결된 곳은 절반이 채 안된다. 더구나 집단 상가지역의 경우는 거의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경내지의 사하촌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사하촌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찰 소유의 상가를 장기에서 단기임대로 전환하고, 건전한 물품을 팔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주=김재경 기자 (jgkm@buddhapia.com)



"문 없는 문, 나옴도 들어감도 없다"

9일 통도사 백련암에서 열린 '원산스님의 무문관 3년 결사 회향법회' 장에 주인공인 스님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스님의 회향법문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1천여 사부대중은 이심전심으로 스님의 투철한 수행정신을 기리고 축림굴을 향해 지극한 삼배를 올리며 스님의 수행력을 따르겠다고 발원했다.

본지 취재진이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 공양을 받고 돌아가는 스님의 도승을 단독 촬영했다. (관련기사 23면)

양산 백련암=고명배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 출범

초대위원장 성타 스님

불교계 최초의 공식 환경(종령)기구인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초대 위원장에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대자연환경보존회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 인터뷰 3면)

이날 발족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보선 · 대문사 주지) 선출, 위원(스님 10명, 재가자 3명) 및 전문위원(10명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 총무원장 격려사, 위원장 인사말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곧바로 제1차 회의가 이어졌다.

환경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찰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환경친화적 불사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안을 이달 말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재가 위원을 배려해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종령(현재는 1인)을 개정하고, 실무간사 약간명을 두도록 했다.

김재경 기자

평불협 등 13개 단체 대북지원사업자 선정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한국JTS 등 13개 민간단체가 올해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활동을 벌이게 됐다.

통일부는 8일 "17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신청, 이중 13개 단체를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지원단체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한국JTS를 비롯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 새마을운동중앙회, 월드비전, 유진벨, 평화의 숲,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웃사랑회, 한민족복지재단 등이다.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야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오는 10일 신청을 마감해 늦어도 4월초까지는 기금지원대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올 초파일 봉축표어 '마음청정 나라청정'

연등축제 4월 29일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를 '마음청정 나라청정'으로 정하고 7일 봉축행사 지침서와 캐릭터 문양집, 2종의 포스터를 전국의 사찰에 발송했다.

봉축기간을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정한 봉축위원회는 각 사찰과 지역봉축위원회에서 △전통등(燈) 문화의 계승 △자비의 사회적 실천 확대 △연등축제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지역의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은 4월 29일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종로1가 구간에서 실시한다.

정성윤 기자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본산을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게 하고자 '중국 불교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남성 지방의 유구한 역사도시 낙양, 정주, 개봉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을 찾아갑니다.

영화 '소림사'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少林寺)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만나는 10만 개의 불상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白馬寺)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청빈한 관리로 중국에서도 추앙받고 있는 포청천의 고향인 개봉(開封)에서는 '현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합니다.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

소림사 · 용문석굴 · 백마사 · 대상국사

◇일정: 5월2일(수)~5월6일(일) (4박5일)
◇참가비: 738천원(공항세 비자비 등 포함.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737-7055(담당: 이소희)
◇접수기간: 4월17일(화)까지(단, 여권소지자에 한함)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since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지혜와 자비로 열려있는 문

한국불교진흥을 위한 五大主要事業 불교대백과사전편찬 · 교육 · 학술 · 출간 · 교화 진흥사업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서울 · 종로 · 동숭192-10 ☎765-9602~3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학술 및 출판 · 교화사업부

● 창간의 목적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陀의 慈明과 傳燈의 修行 傳統을 정신적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의 金塔.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 선전강독 「景德傳燈錄」
· 한국불교문헌강독
「白雲和尙語錄」 「黃覺國師語錄」
· 범어불교원전
「俱舍論」
● 불교어학연수과정
· 불교한문강독
「韓國佛敎全書」 「黃覺國師語錄」
· 범어연습 I · 2
· 티베트어연습 「고전티베트어」
● 계학입문과정
· 불교근본설의 이해

○ 상학원생 완전무료
일반수강생은 수시 접수 가능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대백과사전 불사동참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 연재 1 · 2 · 3권 출간, 4권 근간 제15권 내지 속간 예정
● 찬조회원 2,1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개월~60개월로 분할 입금하시면 됩니다.(1000부 한정 예약)

■ 가산학술원 『伽山學報』 창간~계속 · 정기간행

■ 『한국승병총서』 총간
·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상(1권)/(2권)/하(3권)/(4권)/보유편
· 『한국승병총집』 (조선조 · 근현대)

■ 역대편 저
·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 『南北傳六部律藏比較硏究』
· 『伽倻山海印寺誌』 · 『信行日錄』 · 『雲經序說』 · 『四集私記』 · 『曹溪宗史』

■ 서양학자 및 개항기편집
· 『韓國佛敎文化思想史』 (상 · 하)
· 『서양학자들의 고려대장경 연구업적』
· 99년 2월의 인물 에드스님 초대 『서양학자들 한국인 최초의 한국인 에드』
· 『지안대왕사』 자료집

사 설

불교계 일깨우는 '큰 빛'

불교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답은, 출가 공동체의 청정성과 화합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청정성과 화합성을 이루는 근본은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스님 개인 개인의 수행력과 청정한 계행이다. 요즈음처럼 한국 불교 종단의 청정성과 화합성이 내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스님들의 청정한 계행과 치열한 수행에 대한 아쉬움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즈음에 접한 원산스님의 무문관 출관 소식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을 지내시며, 승가의 본분을 강조하셨던 원산스님이시다. 그 분이 당신의 말을 무문관 입관으로 실천하신 것 자체가 우리 불교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하루 한끼의 식사, 일체 외부의 접촉을 끊고 오로지 깨달음의 외길을 추구하는 그 치열한 과정의 3년을 마치시고 출관하시는 원산스님은 또 다시 우리 불교계를 일깨우는 빛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 분의 수행 공덕이 우리 불교계를 새롭게 할 것이다. 아니 그분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또다시 칩거에 들어가신다 해도, 그런 스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인 것이다.

수많은 스님들이 말없는 가운데 치열한 수행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원산 스님과 같은 분은 소임을 그만두고 바로 무문관에 입관하셔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예일 것이다. 해마다 하안거 동안거에 입제하는 스님들의 수가 늘어나 안거할 선방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우리 승가가 외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 수행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불교를 일으켜 세울 원동력이다. 원산 스님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큰 모범으로써 불교계뿐만 아니라 오욕락의 추구에 만연된 현대사회에 새로운 빛을 던지는 귀감이다.

원산스님의 장하신 수행이 우리 불교계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불교계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포교사단 출범 1년

포교사단이 11일 1주년에 즈음해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포교사들의 자세를 다듬었다. 국민들의 불교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에 부응하는 방안을 함께 찾는 진지한 자리였다.

포교사는 조계종에서 80년대 초부터 배출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500여 명의 포교사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계종단은 배출만했지, 지원은 물론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행히 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포교사들을 고급인력으로 보기 시작해 지원과 관리 방안을 찾았다.

포교사들은 최일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전하는 중차대한 소임을 수행하는 소임자들이다.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군대와 교도소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분야로 나눠 포교인력을 배치하는 등 포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포교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불교 안에서는 몇 안 되는 자생적이고 독립성을 지닌 단체로서 이후 불교를 널리 펼치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차제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스님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교구본사와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구본사와 포교사단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가 온전해야 한다.

둘째, 자발성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자발성은 스스로의 사명감을 자각하는 데서 나온다. 많은 단체가 생겨났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발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조직의 공동체성을 높여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포교사단은 포교사들만의 모임이 아닌, 불교계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계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성공의 사례를 내오고, 이를 함께 나눠갖는 것이다. 포교사단이 이 일을 해주길 바란다.

신계사 복원 발원법회

北 승인 4일 봉행…조계종 "연내 착공 내년 회향"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에 동참한 150여명의 사부대중들은 신계사의 조속한 복원을 발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기원하는 법회가 4일 현지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과 전 종회의장 종하스님,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한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는 북측이 승인해 금강산 지역에서 열린 공식행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자들은 민족의 화합과 천년고찰인 신계사가 이른 시일내에 복원되기를 발원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의 사회로 신계사 대웅전 터에 전통 불교 의례를 위한 식단을 차려놓고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현봉스님의 인사말과 이번 법회를 후원한 현대아산(주) 김고중 부사장의 축사, 성수스님의 법어, 종하스님의 축원, 탑돌이 등의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성수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법회에서 대중들이 세운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헛말하지 않고, 헛일하지 않고, 헛걸음하지 않도록 정진하라"고 강조하고 "신계사 복원을 위해 분발정진한다면 세계 제일의 도량이 될 것"이라며 대중들의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현봉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를 인연으로 남과 북이 화합하여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우리 민족이 융창하여 한반도가 복된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하자"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올해 안에 복원불사를 착공해 내년에 회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신계사 복원에 대해 북측과 합의를 이룬 상태"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복원불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44년 신계사 산내암자인 법기암에서 출가한 혜해스님(경주 흥륜사 선원장)은 반세기만에 찾은 출가사찰에서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선학원 정상화' 초안 수립

정관개정 · 분담금 등 6개 합의문 전달

조계종 법인대책특위

조계종 중앙종회 내 법인대책특별위원회(법인특위, 위원장 혜창)는 5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법인특위는 곧 합의문 초안을 선학원에 보내는 한편 선학원측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학원측이 정관 명칭을 지금의 '재단법인 선학원'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은 다음과 같다.

△선학원은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한다. 명칭을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개정,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 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 임원 조항에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 △선학원은 현행 조계종 종헌의 제규정을 존중하여 향후 일체의 신규사찰을 등록받지 아니 한다.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이행한다. △선학원 소속 승려에 대한 일체의 권리 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선학원의 인사권 운영 · 관리권 등 법인의 고유 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 한다. 법인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법과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성운 기자



"신도등록 포교원 환원"

조계종 본사주지회의 요청

조계종의 신도등록 업무가 다시 포교원으로 환원된다. 교구본사주지들은 7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신도등록 사업을 포교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포교원으로의 환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신도등록 업무의 본사 이관을 보류하고 신도법을 개정해 다시 포교원에서 맡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사주지회의에서는 또 관람료 사찰에 사역(寺域) 지도를 설치해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과 포교원은 사찰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 신도 기본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인터넷 포교 네트워크

조계종 5월 이후 발족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사이트 관리자와 인터넷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포교사단, 대불청, 대불련, 파라미타 회원들을 중심으로 (가칭)'인터넷포교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한다.

포교원은 각 단체별로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50여명의 인원을 모아 초파일 이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인터넷포교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각 지역별 포교소식 및 정보자료 수집과 사이트 모니터링에 나서게 되며, 사찰 정보화 사업 지원, 포교원 홈페이지의 분야별 시삽 역할도 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 분규 '해법' 고심

종연스님, 운산 · 법장스님 만나 수습 논의

태고종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물밑 회동이 잦아지고 있다.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7일 운산스님(천중사 주지)을 만난 데 이어 8일에도 모처에서 법장스님을 만나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분규를 하루속히 끝내기 위한 원만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원론에는 양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운산스님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고종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총무원장과 관련된 모든 행보를 접겠다"고 밝혔다. "다음 입시종회가 열리더라도 원장후보로 나오지 않겠다"고 전제한 스님은 "종연스님도 같이 물러나고 제3의 인물이 나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종연스님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근현대사 · 법맥 재조명

'태고종사' 나온다

한국불교 근 · 현대사를 정리하고 법맥을 재조명할 '태고종사'의 발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태고종 사간행 준비위원회(위원장 수열)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배판 320쪽(원고지 2,500여 매) 분량의 종단사 가제본판을 완성했다.

간행준비위는 가제본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완성본을 펴낼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불상파괴 중단 하라"

국제사회 탈레반 비난 거세

세계 최대 마애불인 바미얀 석불 등 불상 파괴에 나선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원리주의 정권 탈레반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항의가 거세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는 5일 수천 명의 승려들이 탈레반 정권의 불상 파괴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네팔에서도 불교 및 힌두교 신자 수천 명이 수도 카트만두에 모여 탈레반의 불상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불교국가인 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불상파괴 중지를 요청했으며 유네스코는 이슬람연합기구에 "탈레반 정권이 불상파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바미얀 석불은 8일 현재 머리 부분에 큰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형진 기자

불자들에게 드리는 글

「영계 리포트」와 관련해서 본의아니게 부처님과 불법(佛法) 그리고 그 제자들로 구성된 삼보(三寶)의 위엄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솔직하게 그 사실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세계일보사에는 별개의 독립법인체인 외간담당 자회사「세계일보 제작단」이 있습니다. 그간 주간지나 월간지 혹은 단행본 등의 인쇄물을 수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회사는 비단 세계일보의 간행물만이 아니라 각종 단체와 기업의 인쇄물은 물론 일반 광고인쇄물도 주문 받아 인쇄 배포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영계리포트」역시 자회사인 제작단이 수주해서 인쇄 배포 했습니다. 이 경우는 특히 의뢰처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소속원이라서 광고용 삽지형태의 타블로이드판으로 인쇄해주었고, 같은 자회사인 발송용역회사에 의뢰해 세계일보 보급망을 이용해 일부지역에 배포했습니다. 리포터 김영순씨는 전에도 개인적으로 계시내용을 출판사에 의뢰해 간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주변인물들이 자회사를 이용해 제작 배포했습니다. 자회사 제작단 역시 인쇄물의 주문 제작이 영업인만큼 특별한 검토없이 제작배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점이 자회사의 불찰이었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여 주문자에게 시정토록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배포한 것입니다. 또하나 그「영계리포트」첫장 상단에「세계일보사 발행」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의뢰자측이 이미 편집해온 것을 자회사 제작단이 내용의 검토없이 그대로 인쇄하고만 것입니다.

세계일보 제작단이 그런 실수로 뜻밖에 불자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문받은 인쇄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일로 그간 다져져왔던 교단과 불자들과의 각별한 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일보의 대주주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전세계적으로 종교간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오랫동안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교종단이나 불자들과는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신문은 불교를 폄하 보도한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께 잠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부처님의 자비(慈悲)와 지혜(智慧)가 온누리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01년 3월 9일 세계일보사 사장 송병준

목어

어우러짐의 미학



요즘의 우리들은 춤을 추어도 남녀 또는 여럿이 같이 추는 춤이 별로 없지만 강강술래나 단오 민속놀이를 보아도 혼자서 추는 춤보다는 같이 추는 춤이 더 많았다. 다른 나라의 민속춤도 하나나 둘 또는 여럿이 흩어졌다 모이는 순간에 더욱더 멋진 춤들을 추면서 서로의 흥과 우정과 사랑을 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스게임도 또한 흐드러지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산골짜기에서 흘러온 시냇물이 강물이 되어 한 맛으로 바다에서 만난다. 바다는 어떠한 물이라도 가리지 않고 넓은 가슴으로 맞이한다. 찬물과 더운물이 만나는 곳에는 플랑크톤이 많이 살고, 그들을 먹이로 삼는 어류 또한 많이 산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만나는 섬진강변 화개장터엔 서로에게 없는 것을 나눠주고 같이 채우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폭력의 힘으로 다가올 때 슬기롭게 대처했던 인도의 포용력 있는 불교문화는 간다라 예술과 함께 미륀다 왕문경이라는 서로 다른 종교, 문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동서양 대화의 좋은 본보기를 인류 앞에 선사했다. 자기 고집과 권위의 강요보다는 진리와 옳음에 근거하여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법은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방편이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날 때 처음엔 탐색하느라 충돌의 작은 아픔도 있기는 하지만 만난 기쁨을 나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인류의 보편사였다.

그런데, 조상들이 이루어낸 만남의 기쁨을 현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끌어내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 증교의 우수성은 다른 종교까지도 감싸안을 수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수련의 계절을 단난 모슬렘들은 반성, 분발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불상파괴중지 및 원형복구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두고두고 인류문화재를 파괴한 후손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인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법현(종단협의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타워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매장문화재 보존책 강화
문화재사범 엄중 처벌

문화재청 올 주요사업

각종 개발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2005년까지 완성된다. 또 경주지역 발굴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올해 안에 착공돼 2003년 문을 연다.

문화재청은 9일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과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근대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 : 최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에서 펴낸 〈용인의 불교유적〉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옛 절터는 모두 24곳.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10곳이 기본적인 학술조사도 없이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호 책임연구원은 "기초적인 지표조사만 돼 있었어도 무분별하게 훼손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각종 개발사업 시 매장문화재 보호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시·군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2005년까지 완성한다.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 문화유적 분포망을 구축함으로 매장문화재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제발굴의 증가로 매년 급증하는 출토유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와 경주출토유물보관동 건립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경우 황룡사지 등을 중심으로 매년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현재 5만점을 넘어서고 있으나 마땅한 보관시설이 없어 임시건물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3년까지 총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주출토유물보관동을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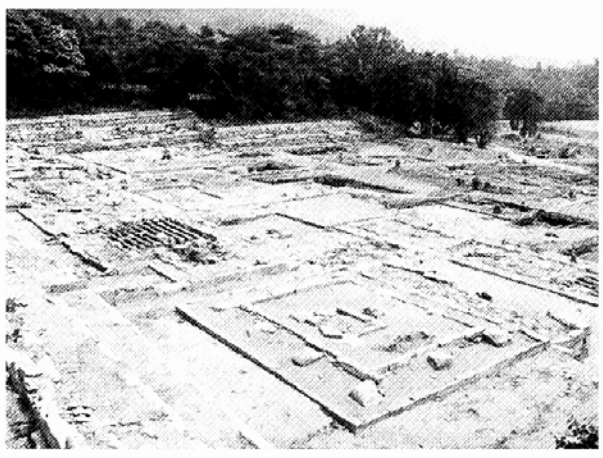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 지난달 28일 '문화재보호법 중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사범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써 우리 문화재의 보고이면서도 그동안 관리 소홀로 도난과 분실에 시달려온 사찰소유 불교문화재의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법개정으로 아직 국가와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일반 동산문화재(비지정문화재)를 훔친 경우에도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형사적 처벌(2년이상 유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 통계에 따르면 1988년부터 99년까지 도난된 사찰문화재는 모두 453건. 이 가운데 국가와 지방지정 문화재는 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비지정문화재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하여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문화재 가지정제도'도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확대 적용된다.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 : 근대 건축물 등 문화재로서 잠재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문화재에 대해 '근대 문화유산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장차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유산을 미리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등록된 문화유산에 대해 수리·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건축물 개조 때는 지도·권고를 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1차로 208건의 근대기념물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보존·전승: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대학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명예보유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자연유산의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2004년까지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명승·지질·광물 등 자연유산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문화재청은 올해 매장문화재의 과학적 보호를 위한 시설물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해 다수의 보물급 유물이 출토된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지 전경.

계파간 자리다툼 '원인'

조계종 '괴문서파문'

조계종 150회 중앙종회 개회(20일)를 앞두고 포교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님을 비방하는 괴문서가 떠돌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동국학원,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등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쟁점으로 걸려있어 12대 종회 후반기도 정쟁으로 소모할 가능성이 많다.

재가연대를 사칭, 성명서 형식을 취한 괴문서는 우편을 이용해 6일 본사에 도착했다. "00스님은 98년 종단사태의 원흉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폭로할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가연대는 물론 종회 각 종책연구모임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가연대는 8일 언론보도문을 통해 명의를 도용하여 배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재가연대는 또 "출처를 밝히지 않고 교단내의 문제를 괴문서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주장이 정당하다면 이름을 밝히고 절차와 공의체계를 존중하면서 사부대중의 여론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포교원장 임명을 놓고 계파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종회 내 종책연구모임의 소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 종책연구모임에 속해 있는 2선의 종회의원은 "종회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을 종책연구모임에서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괴문서가 작성돼 우편으로 교계언론사에 배달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종책연구모임에서 제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종책연구모임이 종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보다는 자파의 세불리기에 치중해왔다는 비판이다. 그 동안 종회는 계파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보여온 것이 관행화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종회에서도 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 동안 종회가 보여온 행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환경위원장 성타스님

"환경훼손 불사 철저히 막겠다"



국내·외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7일 총무원에서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에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을 선출했다. 성타스님은 현재 대자연환경보전회 이사장을 맡아 대구·경북지역의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불교환경운동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환경위원회 활동의 중책을 맡은 성타스님의 환경불사의 원력을 들어보았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환경관련 종령기구라는 점에서 교계 내외의 기대가 큽니다.

▲마구잡이식 국토개발로 산림과 농지, 갯벌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 심각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찰 또한 지자체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관광위락 단지화되면서 수행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쟁과 탐욕으로부터 사찰과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사찰과 불자들이 해야 할 바른 지침과 행동양식을 일깨우면서, 부처님의 연기사상과 자비정신으로 사회를 선도해야 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구잡이 개발 억제
환경교육 정례화
사찰 오수시설 유도

—주요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 사찰환경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사업, 종단 환경정책의 수립은 물론 환경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 환경관련 대정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각종 조사 및 연구사업, 종단 환경교육, 민간환경단체와의 연대사업 등 실질적인 집행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사찰의 대형불사가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해 왔는데요.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전통사찰이 한국의 산천을 지켜온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환경위원회는 이런 시각을 고려해 환경을 훼손하는 대형 불사를 강력히 규제하는 지침을 검토중입니다. 또 본말사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정례화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 사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교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연대 방안은.

▲불교환경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종단 행정체계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교단체는 물론 일반환경단체와도 적극 연대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환경운동은 바람직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자들이 녹색조명운동, 녹색 교통운동, 재활용 운동 등 환경친화적 생활을 실천하고, 산사에 가면 쓰레기를 줍고 나무도 심는 작은 환경운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圖像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無上圖像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林亞範謹書
■추천서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일주문



해군 3백여명에 수계

금종 해광사 주지는 2월 28일 진해 해군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3백여 명의 장병들에게 계첩을 전달했다.



그리스 세계시인의 날 참가

고은 시인은 17일부터 1주일간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주최 '세계시인의 날' 축전에 참가한다.



공직자·시민 대상 법문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은 15일 김포시청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인도철학회 4대회장

김선근 동국대 교수는 3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전국 인도철학회 이사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임됐다.



김종서 박사 초청간담회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3차 운영위원회 및 김종서 박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연다.



문화재기능인協 이사회

신응수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은 15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로 임명된 임원진 상견례를 갖는다.



전주문화방송 사장 선임

유희근 전 MBC 불교연구회장은 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전주 문화방송 사장으로 선임됐다.



위빠사나 프로그램 운영

이태영 한국요가연수원장은 매주 일 오전 10시부터 위빠사나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02)888-5087



'불교와 여성' 출판기념회

이영자 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은 26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불교와 여성〉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남해 보리암서 정기촬영

김우영 대한불교사진연합회장은 24일 남해 보리암으로 3월 정기촬영을 떠난다. 저녁 11시 용산역에서 집합.

"할머니 편의위주 봉사 전념"

나눔의 집 새 원장 능광 스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큽니다. 특별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순리대로 사심없이 할머니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7일 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나눔의 집 원장으로 선임된 능광 스님은 할머니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능광 스님은 85년에 출가, 92년 운문사 강원 98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2000년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 전문가.

"가장 먼저 직원들과 함께 행정체계를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고, 아울러 할머니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나눔의 집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알리고 이를 지키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능광 스님은 대사회적 활동에 주력한 전임 원장 혜진 스님과는 달리 교계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내실을 다지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따라서 교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능광 스님은 혜진 스님 문제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흐려져서는 곤란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나눔의 집이 혜진 스님의 개인적인 실수로 어려움을 겪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혜진 스님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나눔의 집이 있게 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역사의 산 현장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키고 가꿔나가는 것은 저나 나눔의 집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능광 스님은 지금까지 노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교계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한명우 기자



◇월주 스님



◇성타 스님



◇설송 스님



◇광복 스님

월주 스님 등 4명 방북

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전 조계종 총무원장)와 성타 공동대표(불국사 주지), 설송(선본사 주지) 광복(도선사 주지) 스님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국했다.

월주스님 일행은 방북 기간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한 미역 1000톤과 내복 등 지원물품의 분배 확인을 위해 상원군 젖염소 시범목장 등의 지원지역을 방문해 이후 지원사업에 대해 북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선불교도연맹의 안내로 성불사와 보현사도 참배한다. 24일 귀국한다.

정성운 기자

한병삼 전 중앙박물관장 별세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겸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장)이 4일 오전 급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한국 고고학계의 산 증인인 한 前관장은 1935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 경주박물관장 중앙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동국대 석좌교수와 경주캠퍼스 매장문화재연구소장을 겸해왔다.

"뜻깊은 대작불사 장엄 회향 기원"

역경불사 행사비 1억 희사 김순경 회장



"37년 간의 대작불사를 회향하는 법회라면 어느 법회보다 장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재가신도로서 부처님 은덕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동국역경원 역경불사 회향법회 행사비 1억 원을 회사한 김순경(72) 새한마이크로텍 회장. 그간 봉선사에서 신행활동을 해 온 김 회장은 "뜻 깊은 법회가 비용 문제로 초라하게 치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지난 9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열린 삼장법회에서 행사비를 내놓았다.

법회에서 후원회장 석주 스님은 김 회장에게 역경후원회 부회장 소임을 맡기며 "지중한 인연이 아니면 이 같은 선행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김 회장은 봉선사 신도회장과 구리시 문화원장도 맡고 있다.

임연태 편집위원

"사회 구석구석 깨달음 전하겠다"

교불련 신임 회장 연기영 교수



3일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연기영(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연 교수는 "1천여 회원들이 '지식인 불교 운동을 하겠다'는 창립 정신으로 똘똘 뭉쳐 신행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한 차원 높이는 데에도 고심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전국 120여 개 대학의 강단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교불련은 학술 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불교를 알리는 데도 소홀할 수 없다는 게 연 교수의 기본적인 신념이다.

이를 위해 연 교수는 교불련 연중 행사 외에도 대학생불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법회에 회원들이 지도교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불련 지도법사단을 만드는 것은 물론, 7월경 티베트 성지순례 9월경 불교미술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불련은 매년 봉축학술대회(5월), 하계수련대회(7월), 추계학술대회(10월)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대회만으로는 교불련의 창립 정신을 이어가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부회장에 황진수(한성대), 유필화(성균관대), 이인자(경기대), 김보현(동국대) 교수, 사무총장에 이창경(신구대) 교수 등이 각각 선출됐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감로사 제50회 3천배 기도 회향

감로사(주지 혜종)는 4~8일 3천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3천배 참회기도법회에는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 참회기도와 법문을 듣고 나라의 안녕과 개인의 업장소멸을 발원했다. 참가한 불자들은 참회의 절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복받고 대덕스님들의 법문으로 심신을 다졌다.



광운정사 사리친견 · 수계법회

서울 광운정사(주지 청운)는 1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0주년 기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스리랑카에서 이운되어 온 부처님진신사리는 이날 친견법회를 마치고 광운정사 법당으로 이운됐으며, 이후 강원도 홍천 운봉산 기슭에 건립 예정인 적멸보궁 광운사에 봉안될 계획이다.



육군사관학교 졸업발원 법회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주지법사 김성준)는 7일 제57기 졸업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광 화계사 주지, 명조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을 비롯해 국제선원 스님들과 국군불교총신도회 조남진 부회장, 전인구 사무총장과 졸업생도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석암장학회(회장 정련)는 8일 내원정사에서 2001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동국대 경주 캠퍼스 다연 진성 스님을 비롯해 대학생 13명, 부일전자공고 남지혜 학생 외 고등학생 10명, 다송중 김수경 학생 외 중학생 4명에게 총 1천6백1십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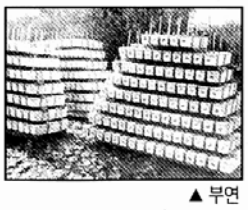
"장엄불사" 시멘트의 한식조각물 성형으로 죽림 불교 건축이 제작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정신의 혼을 담은 전통 죽림 불교 건축 새로운 한국 전통건축 창조에 노력하는 죽림건축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 요사채
- 납골당
- 콘크리트 성형조각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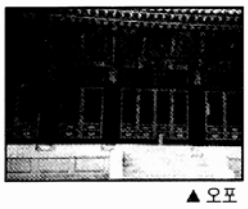
특 징
-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현장시공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서가래양생


▲ 부연


▲ 삼포(귀포)


▲ 외삼포 조립과정


▲ 오포


▲ 초익공


▲ 이익공


▲ 일주문

설계에서 시공까지

※4년제 정규대학 건축학과 졸업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죽림 불교 건축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204-5 Tel : (031)287-9540(代)

합동법회…사찰순례…점심법회

"직장불자회 특색 살린다"

참석률 높고 친목강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정기법회를 꾸준히 봉행하는 직장불자회가 늘고 있다. 특히 자기 직장의 근무환경에 맞는 정기법회를 보는 곳이 늘고있어 직장법회의 새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교통부 불자회(회장 송도근)는 12일 과천정부청사 내 농림부, 공정거래위, 보건복지부, 법무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구 천마사에서 과천정부청사 불자회 합동 정기법회를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농림부가 주최한 청월 스님 초청법회에 과천정부청사 내 개별 불자회원들의 참석과 호응이 높아 농림부불자회 나승렬 회장의 제안으로 현재 각 부처 불자회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합동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같은 합동법회는 바쁜 업무와 지도법사 섭외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기 힘든 개별 불자회들이 법회부담을 덜면서 매월 법회를 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불자회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직장불자회의 부러움까지 사고 있다. 특히 과천정부청사내 게시판에 합동법회를 공고하고 있어 불교에 관심있는 공무원들의 법회동참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불자회 강인준 총무는 "청사 내 게시판을 보고 재경부, 노동부, 환경부 불자들도 참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부처에 불자회 창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정부청사 공무원불자들이 합동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청월스님 초청 법회 장면.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지역 사원연합회와 연계해 관내 72개 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보고 있다. 사찰순례법회는 구청에서 자체 법회를 볼 경우 불단을 설치해야 하고 지도 법사를 섭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차량지원 등 구청의 협조로 매달 1일 7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불자회원들이 사찰을 방문해 사찰의 행정 불편이나 문화재 관련 상담도 법회를 통해 이루어져 사찰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 밖에도 강남구청 불심회, 서대문구청 불심회 등 여러 구청 불심회들도 사찰 순례법회를 통해 지역 사찰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행 불자회(회장 윤주화)는 회원들의 업무 종료 시간이 제각기 달라 저녁에 모일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내에서 법회를 보고 있다. 또한 KBS불자회(회장 정종철)도 24시간 방송에 따른 교대 근무 등으로 회원들이 같은 시간에 모이기 힘들어 매월 넷째주 토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법회를 보고 있다. 정종철 회장은 "1시간 동안 법회를 보고 점심을 먹어야 하기에 시간제약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등으로 약식법회를 보고 있지만 참석인원이 외부에서 할때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며 "특히 사내에서 법회를 볼 경우 다른 사원들은 불자회의 존재를 알게 되고 불교에 관심있는 사원들이 자연스레 법회를 찾고 있어 불자회원 배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서 경산 조폐창 금강회, 대우종합기계 · KAI불교법우회, 국립서울정신병원 등도 경전공부 법회를 봉행하는 등 회사 사정에 맞는 특색있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에 참석한 효림 · 진관스님(오른쪽부터).

한반도 평화·통일 300인 선언

한미정상회담 맞춰 군비 감축등 촉구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은 5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효림스님, 고은 시인 등 선언에 참여한 각계 인사 300인은 미 부시행정부에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비 감축, 대북한 군사훈련 축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고, "모든 국민과 정치세력, 언론은 낡은 냉전의 식과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행진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 부시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해 간섭 · 개입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에는 박형규 목사와 문정현 신부 등 성직자를 비롯 김진균 · 백낙청 서울대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정태춘, 황석영씨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재경 기자

우리 모임에선

철불협 불교자료실 개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의장 박창식)는 사내 인트라넷(intra.korail.go.kr)에 불교자료실을 오픈했다. 불교자료실에는 불교상식, 불교문화, 불교시사자료, 불교미술 등 다양한 불교자료들이 올려질 계획이다. 정찬연 불교자료실 관리자는 "불교 자료들을 매일매일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라며 "철도청 법우들이 이곳을 방문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청 불자회 창립

경기도 시흥시청 불자회인 '진선회'가 지난달 21일 시흥 법륭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 20여명의 참석자들은 초대 회장에 김정규 자치행정국장을 추대하고, 매월 격주로 법륭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정규 초대회장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하불동' 삼천배 철야정진

천불동 평화마을 봉사

유불동 아함경 공부

피시통신 동호회들이 최근 전국모임, 지역모임 등 오프라인모임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키우고 있어 주목된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삽 이성모) 서울경기 지역모임은 11일~12일까지 무박 2일동안 서울 중정사에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참석한 20여명의 회원들은 묵언정진, 참선, 삼천배 기도정진을 하며 신심을 키웠다. 또한 부산 경남 지역모임은 4일 부산구치소 경비교도대를 위문하고 교도대 장병 50여명과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유니텔 불교동호회(대표시삽 오기석)는 지난달 24~25일 양산 통도사에서 전국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도사 포교국장 오신스님의 사찰안내와 성보박물관람, 전국모임 합동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서울경기지역모임은 12일 국청회 법당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조용길 교수를 모시고 아함경 경전공부 모임을 개최했고 전라, 경북, 경남, 부산 모임도 지역법회를 봉행하며 불심을 다졌다.

그 외에도 천리안 불교동호회(대표시삽 김용태) 부산지역모임도 지난달 25일 삼랑진 평화의 마을에서 봉사모임을 가졌고, 나우누리 불교동호회(대표시삽 최용원) 서울경기 지역모임도 9일부터 11일까지 상원사 적멸보궁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알림

▲무료 한방진료=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1일부터 매월 격주 일요일 오후 2시~5시까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피부과 등이며 진료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진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02)385-1351

▲이혼편모 아동 무료 프로그램=자양사회복지관은 서울시 공동모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혼편모 아동 무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심성훈련 및 학습프로그램, 월 1회 야회학습 등으로 진행된다.(02)458-1664

강좌

▲관무량수경 · '불교와 새로운 문명'=부산 정토회 정토법당은 13일~4월 24일까지 관무량수경 및 '불교와 새로운 문명' 강의를 개최한다. 관무량수경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불교와 새로운 문명'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법륜스님의 강의로 진행한다. (051)557-6372

▲불교기본교육=광명 금강정사는 6일부터 3개월간 불교 초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주 · 야간반으로 나누어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진행되며 수강생들은 불교의식, 부처님생애, 기본교리, 법회와 신행수행법 등을 배우게 된다.(02)893-2700

모집

▲광명문화센터 회원=충북불교문화회관 광명문화센터는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제 5기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동요노래교실, 창작동화구연, 사물놀이, 생활기공, 댄스 스포츠 등이다.(043)294-6193

▲남방유 후원자=남구종합복지관은 독거노인에게 난방용 기름을 보시할 후원자를 모집한다.(053)476-7700

지역불교 문화기행

동백꽃에 묻힌 남도산사

3월:백련사 · 대둔사 · 미황사

'지역 문화의 해'를 맞아 현대불교가 연중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지역불교 문화기행'이 첫 걸음을 옮겨놓습니다. 3월은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숲에 묻혀 있는 남도의 산사를 찾아갑니다.

8명의 국사를 배출한 천태종 결사도량인 백련사에서는 만덕산과 강진만 바다가 빚어내는 환상의 정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대둔사에서는 조선후기의 명필 원교 이광사가 쓴 현판이 돋보이는 대웅전과 통일신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20호) 등을 만나실 수 있고, 초의선사가 차문화를 일으킨 일지암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남도의 봄냄새가 가득한 미황사도 새봄을 맞는 불자 여러분들께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동백꽃에 묻힌 백련사 경내.

◇출발: 3월 24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 중식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부니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 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네넬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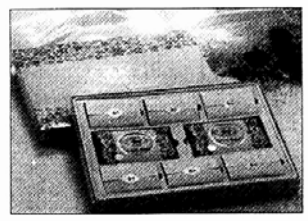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나무 재배하실분!
⊙전망좋고 사업성 있는 작물을 찾고 계십니까?
국산 토종오가피나무를 심어보십시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도와드립니다.
재배설명회에 직접오셔서보고 듣고 오가피 농장도 확인하신후 결정하십시오.
오가피 건강상담 · 설명회 참가신청 ☎02)968-7711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계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수화로 법회보고 찬불가 불러요"

신행현장

농아불자와 함께 '심여회'



◇사찰로 성지순례를 간 부산농아불자회원들이 송춘관거사의 통역으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일 부산 자비정사에 가면 아름다운 손짓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반을 졸업한 이들의 모임인 심여회(心如會, 회장 김애순) 회원들과 부산농아불자회(회장 김태욱) 회원들이 법회를 보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하는 스님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겐 없는 것과 마찬가지. 부처님 법도 아름다운 찬불가도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겐 '그림의 떡' 이었다. 그런 농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이들이 심여회 회원들이다.

우렁찬 예불 소리대신 수화만이 마음의 소리되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법회날, 심여회 회원들의 손짓은 바빠진다. "한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통역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4일 혜인스님의 법문을 수화로 통역하고 있던 송춘관(50) 거사는 법문 통역뿐 아니라 매월 두차례의 법회때마다 집전과 기초교리 강좌를 도맡고 있다. 송거사의 손짓으로 깊은 불법의 세계는 비로소 생생하게 농아불자들의 마음에 전해진다. 송거사는 쉬운 말로 어려운 경전을 풀기 위해 불교교리 책자와 사전, 옥편까지 펼쳐놓고 며칠전부터 법회준비를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낀다. 그가 2년동안 작성해 놓은 법회일지 곳곳에는 재정적 어려움, 농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개선사항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맨처음 5명의 농아인과 함께 귀연포교원에서 법회를 시작했을 때 심여회 회원들은 발원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귀가 되고 소리가 되어 부처님 법 한말씀이라도 전하겠다' 고. 그렇게 시작한 법회가 이제 2년을 넘어서며 50~60명 회원이 등록된 부산농아불자회로 자리를 잡았다.

부산불교대 수화반 졸업생
97년 수화합창단 창단
농아가정 자녀학습지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심여회 회원은 20명 남짓. 그러나 적은 회원수로 일구어 낸 활동들은 놀라울 정도다. 97년 수화합창단은 창단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 수화 합창, 장애인 고아원 방문, 수화반 산행회 발족, 장애인의 날 안내 자원봉사 및 수화노래 등 각종 행사마다 수화로 찬불가를 공연해 감동을 전해주었다. 부산농아불자회와 함께 발우공양, 성지순례, 하계수련회 등을 개최해 불심을 다지는 한편 통역은 물론 농아인 가정을 방문해 자녀들 학습지도와 예절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이영우 회원이 만든 홈페이지(doosonmoa.co.kr)로 사이버 공간에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심여회 여러분들의 수화통역으로 멀게만 느꼈던 불법이 생활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법문도 듣고 기초교리도 배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산농아불자회 김태욱(30)회장은 수화로 이렇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제는 부산장애인협회도 인정하는 모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고립되어 살아온 농아인들이 마음을 쉽사리 열지 않았다. 또 재정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오삼석(60) 심여회 고문은 어느절에서 만났던 한 여자 농아인을 떠올리며 다시 발심하곤 했다고 회고한다. 법회 후 법당 앞 기둥을 붙잡고 울고 있던 그 여인은 오 고문을 수화의 세계로 이끌었고 지금은 오 고문은 심여회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다.

"부산, 경남에만도 5천여 농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와 정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님과 불자들이 재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원들의 바람은 너무나 간절하다. 우연히 수화를 배우게 된 이들도 있지만 가족 중에 청각장애를 가진 회원도 있다보니 자신들이 하는 일은 바로 내 가족을 위한 일임을 아는 까닭이다. 아직도 부처님 법 알지 못하고 고통속에 있을 농아인들이 많아 심여회 회원들의 아름다운 손짓은 정해진 날, 시간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낮추면 높아진다

조화로운 인간 관계란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기는 커녕 경계하는 마음이 된다.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받아 주는 것, 그것이 열린 마음이다.

무엇인가를 애써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열린 마음이면 그건 주는 마음이다.

나를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이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다. 벽도 없고 담장도 없다.

넓디 넓은 들판엔 수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뭇 짐승들이 와서 머물고 머물다가는 떠난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런 시비도 없다. 갈등도 없다. 장애도 없다.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요,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울타리가 좁으면 들어 설 자리도 좁다.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넓게 쳐라.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라. 넓은 들판엔 아무리 많은 양을 쌓아놓아도 여전히 빈 자리가 남는다.

열린 마음은 강하다.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 누구와도 맞설 일이 없다. 맞서지 않으니 누구도 대적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곧 허공과 같을진대 누가 감히 꺾으려 들겠는가.

높이 오를수록 낮아져야 한다. 많이 가질수록 가난해져야 한다.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라.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라.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어라. 저 광활한 들판이 어떤 것과도 자리 다툼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시비가 끼어들지 않는다. 그리되면 모두가 나와 더불어 살고 아낌없이 나누기를 즐겨 할 것이다. 거기에 자유인의 길이 있다.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세우지 않은 것과 높이를 다툴 수는 없다. 그래서 낮은 것이 높은 것이고 열린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종교 신념 따른 불상파괴 광신과 무지가 낳은 훼불"



해월스님
공주 원효사 주지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아프카니스탄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바미얀 대불이 탈레반 정권의 무지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등 국제적인 단체와 국가에서 인류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다각적인 보존방법이 논의되고, 국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성명을 내는 등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폭력 앞에서 불상과 불교 그리고 평화가 크게 훼손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동서 양대 문명의 접합지점인 간다라지방에 위대한 불교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막힘 없이 설해오셨던 바미얀 대불의 정신적 가치나 그 대불을 조성하고자 원을

'폭력앞에 죽지 않는다'
부처님의 의연한 가르침

세우고 수 백년의 역사를 통해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워왔던 인류의 고귀한 정신이 무지와 몽매로 훼손됐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선의 배불정책에 의해 엄청난 희생과 손실을 입었던 우리 불교 역사를 돌이켜보아 우리는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철저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모이신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상에 오르시어 설법하시고 다시 인계로 하강하시던 때의 모습을 성전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누구보다도 먼저 부처님을 마중하고 뵙기 위해 범천의 몸으로 변하여 마중을 나갔습니다. 또 수보리 존자는 수행처소에서 부처님께서 하강하심을 알고 부처님께로 나아가려다 말고 공성(空性)이 곧 여래라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여래의 성품인 공성을 관함이 곧 부처님을 뵙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공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연화색 비구니에게 "네가 먼저 나를 마중나왔다 해서 나를 먼저 본 것이 아니며 수보리가 이미 나를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래는 박칼리라와의 대화에서 "법을 보라. 법을 보는자 나를 보는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에 집착하는 수행자들의 편견을 바로잡아 주신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부처님의 법에 근거해 이번 사태를 본다면 그들이 파괴의 대상으로 삼은 대불은 공성과 법을 깨닫게 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으로 대불의 존폐가 법의 존망과는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의 폭력 앞에서도 여래는 폭력 앞에 죽지 않는다며 의연히 당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번의 너무도 참담한 사태에 직면하면서 저들의 무지와 폭력성을 감싸안을 큰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섭수와 절복의 방편을 깨우쳐야겠다는 원을 다시한번 단단히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질적인 문화와 문명, 환경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우리는 충돌보다는 조화, 파괴보다는 화합의 길로 나아갈 의무와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틈새 속에서 흐름을 타고 잘 조화되는 집단이나 국가 문명은 살아남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3천년전 설파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겁을 지나도 옛스럽지 않고, 만년을 흘러도 항상 오늘인 것처럼 영원할 것이니 우리는 진리의 길을 향해 불퇴전의 의지로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3월 14일 (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준공식 및 발전기원 대법회=중앙승가대학교는 오전 11시 김포학사 본관앞에서 '김포학사 준공식 및 발전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031)980-7702

■관음사 성지순례=청주 관음사는 오대산 상원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체육관 앞.(043)256-6254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사상 강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번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동국대 권기종 교수를 초청해 불교사상강좌를 개최한다.(02)703-0108

3월 17일 (토)

■동화사 철야정진법회=대구 동화사는 오후 7시부터 18일 오전 3시 30분까지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053)982-0101

■육조단경 강설법회=광주 자비신행회는 4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법당에서 법륜스님을 모시고 육조단경 강설법회를 봉행한다.(062)222-1165

■불광산사 정우스님 초청법회=대만 불광사 서울포교당인 불광산사는 오후 3시 30분 '생활속에 불교'라는 주제로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02)2276-0993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일일찻집=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정오부터 밤 12시까지 연강홀 지하에서 두산그룹 협찬으로 지리산살리기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02)720-1915

3월 18일 (일)

■천왕사 천우회 창립법회=제주 천왕사는 오전 11시 청년신도들로 구성된 천우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064)748-8811

■영암 자비회 무의탁 노인돕기 일일찻집=제주 영암 자비회는 오전 10시~저녁 9시까지 제주 법원 정문앞 민속찻집 '샘터'에서 무의탁 노인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한다.(064)702-1355

3월 19일 (월)

■조계사 성지순례=조계사는 남해 보리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6시 조계사 앞.(02)735-5586

3월 20일 (화)

■동국대 일산병원 상량식=동국대는 오후 2시 고양시 식사동 현장에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 상량식을 봉행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식전 행사로 영산재가 열린다.(02)2260-3027

21세기를 선도할 불교지도자 양성의 요람

"30년의 전통"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
2001학년도

한국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일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연혁】

1965. 10. 24. 본 대학의 설립자이신 한정섭박사님께서 강원에 나가지 못하는 스님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원의 필요성을 인식, 당시 동국역경원장 이운허스님, 화운사 조실 김대은 스님, 동국대학원 원장 김등화박사님을 모시고 통신교재 편찬(12년간)

1976. 7. 18 2년 과정의 불교통신교육원 개원
1983. 9. 5 불교통신대학 승격 초대학장으로 안덕암 대종사 취임
1984. 8. 15 불교통신대학원 1년 과정 개설 초대 대학원장 조종현 대선사 취임
1997. 8. 22 제6대 학장 전용만 박사 취임
1998. 5. 7 전국 및 해외에 12개지역 지방교육원 개원
1999. 9. 제7대 학장 한정섭 박사 취임
2000. 12. 제7대 대학원장 김정수 큰스님 취임

1. 모집학과
(1)대학 : 불교포교학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2)대학원 :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삼장학과

2. 입학자격
(1)포교학과는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2)승가학과는 출가입산 희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한자
(3)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4)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3. 교육과목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4.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5.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주민등록등본 1통
(3)반 명함판사진 3매 (4)최종학력졸업증명(대학원 입학시)

6. 원서교부 및 전형
(1)중앙교육원 02)969-2410, (FAX)02-969-4981
(2)연수원(상락향 수도원) 031) 584-0657
(3)진해교육원 (055)546-4186 (4)제천교육원 (043)646-3023
(5)충북교육원 (043)223-9026 (6)대구교육원 (053)743-1178
(7)부산교육원 (051)703-7237 (8)안산교육원 (031)431-4951
(9)하와이교육원 (808)550-4313 (10)포천교육원 (031)532-4565
(11)구미교육원 (054)455-1068 (12)수원교육원 (031)244-4467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8. 특 전
(1)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면제 (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2)본 대학은 초종파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함.
(3)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을 품수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 (02)962-1666, 969-2410

한국불교예술대학 제4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전통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에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범음과 법무를 전수코져 제4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2. 모집기간 : 2001. 3월 12일~4월 9일
3. 교육과정 : 1) 2학기 (1년) - 기본과정, 제반의식 교육
2) 4학기 (1년) - 연구과정, 제반의식 교육
4. 동참회비 : 월 10만원
5. 전임교수 :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재 제 8호 작법무 준보유)
6. 특 전 : 1) 기본과정 1,2학기 수강자는 수료증수여.
2) 3,4학기 연구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품수자격증을 수여함.
3) 우수 수료자는 부산시 영산재보존회 회원 또는 작법무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
7. 문 의 : 02)962-1666, 969-2410 Fax : 02)969-4981
부산 분원 051)556-1715 Fax : 552-7447 (삼불사)
8.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 수
1년기본과정	1학기	육법공양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2학기	천수바라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1년연구과정	3학기	운심게 작법무, 사다라니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4학기	삼귀의 작법무, 다게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한국불교예술대학



박태원 교수의 28

불교로 보는 신생

신비체험과 참선

어느 하버드 박사 출신 교수가 7일만에 깨달았다는 수행법과 체험담들이 소개된 책에 눈길이 갔다. 최근 그 수행법으로 깨달았다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터라 유심히 일독하였다.

일견컨대, 인도 고대 우파니샤드 수행자들의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을 구조로 '하나됨'의 경지에 접근하는 수행법으로 보였다. 마음을 기억이나 관습의 다발로 정의하는 것은 불교와 상통하고 있었고, 자아의 기억과 틀을 '생각으로 지우고 죽이는' 방식을 통해 소아(小我)가 해체되는 체험으로 이끌어, 그 때 우주적 자아로 확장된 의식 속에 포착되는 우주 만물과 자기와의 일체감에서 희열을 맛보게 하고 있었다. 소아의 자기 편집증이 풀리면서 억눌렸던 생명력도 극대화되어 질병 치유나 건강 호전의 신체적 변화까지 수반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짧은 기간 안에 얻은 선명한 신비체험에 탄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체험을 불교나 선사들이 설하면 깨달음과 같은 것이라 확신하며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과학적인 수행법'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생각으로 자아의 흔적과 틀을 '지우고 죽이는' 기술적 방식을 통해 자아 관념을 효과적으로 흡어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에고의 무게가 덜어지고 자신과 세계를 분리시키던 자아의 벽이 무너질 때 세상 만물과 자신이 하나로 경험되는 의식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 그럴 때는 자아의 틀로 겪던 관행적 경험을 벗어난 신비 경험이 가능하며 내면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생명력이 활발해질 때에는 쿤달리니 요가의 기공 현상과 같은 몸의 변화나 기적적인 건강 증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등은 충분히 그럴 일이다. 비록 표현되는 언어나 접근 방식은 다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체험이 가능한 수행 기법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 세상에 누적되어 있다. 참회 기도로 자아를 풀어버릴 때 쏟아지는 눈물과 환희, 하나됨의 신비 체험, 기적적인 질병 치유 등도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수행법은 무아적 체험으로 유도하는 기술적 장점이 돋보이는 것 같다. 다만 이 수행법과 그 체득이 얼마나 궁극적이며 부처님이나 선사들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이 따져보아야 할 터. '우파니샤드적 하나됨의 체득'과 불교의 해탈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세밀히 살펴야 할 문제이다. 책 내용으로 보건대 부처님 참선법과의 차이가 목격된다. 부처님 참선법은 그 어떤 시, 공간의 경험 현상들에도 실려 들어가지 않는 '지켜 챙겨보며 즉금(卽今)에서 빠져나가지 않음'을 요구한다. 짜증나고 피곤한 소아(小我)의 일상 경험, 그 소아가 지워지고 우주적 의식이 되어 만물과 자아의 하나됨을 겪는 경험, 솟구치는 기쁨, 우주로, 별로 이전되는 신비한 의식 체험, 세포 하나 하나가 열리는 듯한 기공 체험, 세속 욕망에서 말쑥하게 벗어난 청정한 마음 상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게송 –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은 한꺼번에 괄호 치고 관(觀)하라고 설하신다. 그 어떤 수승하고 희한한 경험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몸·느낌·마음 상태·법칙적 판단'의 연기적(緣起的) 경험 범주이며, 그것을 몽땅 '지켜보며 즉금에 있어야' 무명의 뿌리를 들추어 궁극적 해방과 평안, 실상(實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신다. 중생 마음을 층층이 속속들이 고려한, 앞 뒤 딱 들어맞는 정교한 진리 구현법이 부처님 참선법이라 생각한다.

허공처럼 열린마음

살얼음 밟듯 신중하게

다양한 마음 공부법들이 지친 현대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통적 불교 언어가 아니라 해서 선입견으로 대할 일은 아니다. 향기만 같다면 장미를 무어라 부르면 상관없다. 불교 언어 역시 그런 개방된 자세로 새로운 언어를 전통의 반열에 추가해 온 것 아닌가. 그러나 체험이 신속하고 맛이 선명하다고 해서 그 궁극성을 속단할 일도 아니다. 허공처럼 열린 마음으로, 살얼음 밟듯이 신중하게, 먼지 틈 비집고 들어가듯이 면밀해야 할 일이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근기별 수행지도 선지식 부족"

참불자의 길 참선⑨ – 수행점검 필요한데…

참선은 사찰·신행단체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련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대상도 다양할 뿐 아니라 안거 때는 물론 계절별, 월별, 주별 참선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인들의 호응도 높다. 심지어 365일 개방되는 상설선방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성장에 비해 수행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근기나 수행 경력의 길고 짧음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앉는 자세, 손의 위치, 호흡법 등 좌선 작법 외에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접어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참선 지도는 자세를 익히는 것에 주안점을 둘 뿐 불성을 자각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이고 적절한 수행지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참선 바람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상은 수행자의 입을 빌리면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시절부터 수행을 해오다 중단한 이진성(39·충북 충주시) 씨는 "수행방법의 옳고 그름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만날 수 없었다"며 "이것이 요즘 참선 지도의 병폐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좌선작법만 배워선

명상수준 못 벗어나

수행체험 일기작성

선승 찾아다니기도

미국의 불교 열풍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 불교는 철저하게 대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숭산(화계사 조실) 스님의 선법이 미국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스님은 수시로 신도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 편지를 통해 수행을 점검해주기도 한다. 위빠싸나, 아뵤타 등의 수행법이 최근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 이유도 지도자와 수행자가 하나가 돼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이다.

전통 선방에서조차 자상하게 점검해 주는 선지식의 부재를 호소하는 스님들도 있다. 이러한 부재에 대해 스님들은 "수행 진척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높은 수행력의 지도자가 부족함은 물론 꼭 해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성본(동국대 선학과 교수) 스님도 "좌선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항상 방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서 단순히 앉아서 정신을 집중하는 명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참선 실수 지도자 부재를 꼬집었다. 참선 지도자들이 투철한 수행은 물론 선사상이나 선어록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라는 것이다.



◇올바른 참선지도는 작법이 아니라 수시로 수행의 진척 상태를 점검해주는 것이다. 사진은 백양사 무차선회에서의 법거량 모습.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구책을 마련하는 불자들도 있다. 매일 매일 수행일기를 써 수시로 선승들에게 수행을 점검받고 있다는 선명화(40·서울 서초구 잠원동) 보살이 그런 경우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참선 정진을 하는 그는 수행에서 오는 체험과 내용을 기록한 일기를 들고 선승들을 찾아다니며 점검 받고 있다. "선승들을 찾아다니며 점검받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수행을 계속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는 말한다.

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주는 선지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옛 조사들이 나누던 법거량처럼 선지식들에게 수행을 체계적으로 점검받는 풍토가 살아나는 것만이 한국선불교의 부흥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수행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⑤ 증시랑에 대한 답서(3)

識의 움직임 통해 마음은 드러난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불안(佛眼) 혹은 심지법안(心地法眼)을 갖춘다고 하듯이 깨달은 마음을 흔히 눈에 비유한다. 마찬가지로 선(禪)에서 자기의 '마음'을 찾는 것을 자기의 '눈'을 찾는 것에 비유하여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다. 나에게 눈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나에게 '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눈은 늘 밖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자기 스스로를 보지는 못한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무언가를 '본다'는 사실을 통해서이다.

만약 자기 눈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눈의 존재를 직접 확인시키는 유일한 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 '본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연필이든 칼이든 산이든 물이든 어떤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보게되면 그것이 그의 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여기에 보여줄 모습이 특별히 정해져 있을 수는 없다. 즉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든 눈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편이 된다. 그러나 어떤 모습도 보이는 모습이 눈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 보이는 모습은 단지 '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인연(因緣)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눈'이 '본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듯이, '마음'은 '안다[識]'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 세계는 마음에서 알려진다[萬法唯識]. 그런데 마음은 눈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알 수가 없다. 다만 경험되는 것은 내면에서나 외면에서나 끊임 없이 생멸변화하는 식(識)뿐이다. 이처럼 지금 생멸변화하는 식의 움직임을 통하여 마음은 드러나고 있다.

말하자면 식은 순간 순간 생멸하며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하지만, 현상이라는 모습을 벗어날 수 있다면(현상이라는 모습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면) 모습이 아닌 순수한 생멸변화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순수한 움직임에게 마음 혹은 자성(自性)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 움직임은 현상[色]과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不二] 현상이라는 모습만 보고 있다면 이 움직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게 공(空)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므로 공은 색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색의 다른 성질을 일컫는 말이다. 나[我]는 항상 식의 움직임을 경험할 뿐, 식의 움직임이 정지된 상황은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식의 정지' 혹은 '절대무(絶對無)'라는 말의 의미도 식의 움직임에 의하여 나타나는 식의 현상일 뿐이다. 즉 '식의 정지' '절대무'는 '식의 활동' '절대유'의 상대개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은 색을 통하여 파악될 수밖에 없다. 즉 현상(識=色) 속에서 현상의 모양에 막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현상이 고정된 모양이 아니고 끊임 없는 변화의 움직임 임을 알 수가 있다.

결국 나는 식 속에서 모양 있는 현상[色]이라는 표면을 넘어 식의 작용 혹은 현상의 드러남이라는 이면의 모양 없는 움직임[空]을 깨달을 수가 있다. 물론 표면과 이면은 하나로서 분리할 수 없다. 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색으로는 생멸이 나타나지만 본성은 공이므로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으므로 생사(生死)도 없다. 즉 진여자성(眞如自性)에는 생사가 없다. 그러므로 방거사는 마음의 체험을 언급하여 '다만 있는 것[色]을 모두 비워버리기를 바랄 뿐, 없는 것[空]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없는 것을 진실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곧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마음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의식(意識)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사용하여 식의 움직임을 확인시켜주면 된다. 할(喝)이든 방(棒)이든, 따귀를 치든 뜰 앞의 잣나무라고 말하든, 무엇을 의식시켜서 식의 움직임을 확인시키면 된다. 선사(禪師)의 가르침은 모두 이러한 방편이다.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을 가리키는 방편이므로, 마음을 확인시키는 특정한 방편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혜는 방편을 통해 마음을 파악하지 않고 옛 스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기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선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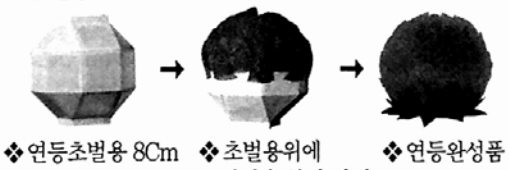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벌용 8Cm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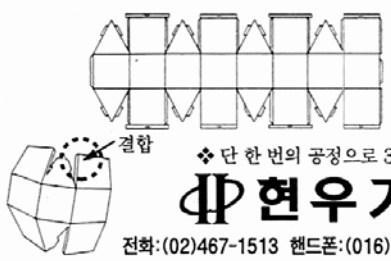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핸드폰:(016)552-936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툿간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종류 : 3W, 5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이렇게 들었다

문화유산의 수난

"무모한 행위 뒤엔 불행"

▨남의 권리를 유린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제 지위를 과장해 비행을 합리화하고, 궤변으로 남을 속이고 비방하는 것은 악(惡)이다.

〈무량수경 하권〉

▨우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악(惡)을 없앤 다음에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의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바새계경〉

종교는 문화를 꽃피우지만 한편으로 문화를 파괴하기도 한다. 최근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아프간에서의 불상 파괴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편협한 믿음이 광신적으로 변해 다른 종교의 유산을 고의적으로 없애는 이른바 반달리즘(Vandalism · 예술 문화 파괴행위)으로까지 번진 사례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이미 '비이슬람적' 고대 불상 수천 개를 파괴했다. 특히 수도 카불 서쪽에 위치한 바미얀 대불의 상당 부분이 이미 부스러기로 변했다. 바미얀 주민들은 "탈레반 병사들이 이들 불상을 향해 방공 무기들을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문화적 대재앙으로 규정하고,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그 만행을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자신의 믿음에 맹목적인 사람들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종교적 이유나 통치 이념, 기타 여러 가지 명분 아래 문화 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기독교도들이 이집트 조상을 이교도의 상징이라며 숨구멍을 막기 위해 코를 깨뜨린 것에서 세르비아 군인들이 세계문화유산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니크시를 파괴한 것까지 그 예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두브로니크시를 파괴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전범으로 기소된 시점에서 탈레반이 간다라 미술의 걸작이라는 바미얀의 문화 유산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하는 대목은, 종교나 이념의 배타성에 다시 한번 우려와 경계심을 고조시킨다.

과연 반달리즘으로 얻는 게 무엇인가. 상대방을 부정하는 무도한 행동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 상권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람이 제멋대로,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런 생각과 행동 뒤에 고통과 불행이 뒤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탈레반은 불상을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반하는 우상으로 규정했지만, 그것은 자기 본위의 생각일 뿐이다. 불상은 우상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은 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다.

〈쌍고경〉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는 자는 우선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탈레반 정권에 들려주고 싶은 때이다.

오종욱 기자

왜 교육이민을 꿈꾸는가

불자 세상보기

'교육적 가치' 마저
정치적 논리로 보니
교육도 정치도 후퇴



신준식
대구대
사회학 교수

왜 대대로 살아온 자기 나라를 떠나고자 하는가? 왜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육이민을 가고자 하는가? 아무리 지금의 시대가 국제화의 시대이고 전 세계가 한 동네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이민을 결정하기란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 1999년에는 1만2천여 명이, 2000년에는 1만5천여 명이,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가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의 어려움이 가는 자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안 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괴감을 넘어 참담함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아 어쩔 수 없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우리 민족은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한다. 또한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많은 부와 큰 명예를 이루었다해도 자식을 잘 키우지 못했다면 매우 허전해 한다. 보다 자식을 잘 키워 사는 보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학교 교육에 크게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자에게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이고 큰 책임은 학교 외적인 곳에 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서정주 시인의 싯구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 암시하듯 오늘날 우리의 이민열풍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들로 "지금 보다 더 잘 살기 위해" "혼란스러운 교육제도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사회의 무규범성 때문에" "정치의 혼돈적 고집" 등을 든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 측면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교육적 가치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어 학교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정신을 가다듬고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교원이나 학교도 스스로를 지키고 가다듬지 못하는 판에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교육은 제법 인정을 받았다.

정치 · 경제 · 법(규범) · 교육 등 여러 사회분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대체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 · 법(규범) · 교육 등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치가 이들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나라는 정치의 입김이 너무 세다. 정치가 경제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정치에는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제3자적이고 객관적인 국민을 위한 기준도 없다. 있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른 흑백 고집뿐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지도 못한다. 더욱이 정직과 신뢰에서, 정치의 모습에서, 그리고 국민적 기본의무에 있어 좋은 본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교육정책이 진정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교육정책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집단들의 즉흥적인 생각을 제도화하고 합리화하는 행정이었고 또한 교육개혁이 행정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행정이었다. 정치와 교육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교육은 있을 수 없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민이나 교육이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나라의 장래 또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열린마당

중앙승가대 발전방향

김포학사 시대를 맞은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주최로 6일 총무원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단교육체계 정비, 대학원 설립, 재정확보 등 중앙승가대가 안고 있는 과제와 미래 지향점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다음은 '중앙승가대의 위상과 역할'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한 종단차원의 과제'를 주제로 한 현각스님(조계종 종회의원)과 홍선스님(중앙승가대 총무처장)의 발제문과 토론을 요약한 것이다.

"지행합일 교육프로 시급"



현각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중앙승가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단 교육법에 기본교육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 기초선원의 교육이 중복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방승가대를 졸업한 학인이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에 다시 입학하거나, 거꾸로 중앙승가대나 동국대를 졸업하고 지방승가대로 입학하는 것은 대단히 낭비적인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불교학의 토대 위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선 중앙승가대가 승가의 전통적인 수행가풍을 확립하고 신심을 증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유분방함 속에서 세속화가 가속화돼 승가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도 없애야 한다.

사회문제를 치유하는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하는 교과목의 이수와도 직결된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상담 등 분야의 전문가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배출할 것이라고 한다.

침체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적 토대 확보도 필수적이다. 중앙승가대의 발전이 종단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불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다.

지난 95년에 중앙승가대 학인과 등문을 대상으로 중앙승가대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중앙승가대학의 성격을 방편적 지식교육기관으로 꼽은 경우가 많았고, 이미지와 재정상태 평가에서는 나쁘다는 견해가 더 많았었다. 중앙승가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다.

"교육환경개선 대책 절실"



홍선스님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중앙승가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전통적인 강원교육과 현대적인 승가교육의 혼선을 빚고 있는 종단 승가교육체계,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 운영관리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생되고 있다. 강원을 마치고 중앙승가대에 진학해 교육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무기력증을 낳는 요인이 시정돼야 한다. 또 종단의 정치적 변화에 의해 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시정돼야 한다. 그리고 입학에서 교육, 그리고 졸업후의 진로 등에 이르기까지 종단차원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원과 산하 교육기관과의 인적 교류와 상호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승가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가의 사회적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교육, 복지, 사회분야 등에서 스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교역자, 역경사, 포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 지방승가대와 구별되는 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학문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가교육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승가교육의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도 필수적이다.

중앙승가대의 자체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우선 부족한 교수인력을 충원하고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종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존의 연구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안암학사를 대학원으로 활용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

"불교연구-인재양성 도량"

계성(교육원 교육부장)-중앙승가대는 단순히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단의 교육과 연수를 포함한 연구와 인재양성의 도량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교수의 채용과 교과과정 쇄신, 피교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재정 확충, 연구 및 수행기능 강화 등 장기적인 준비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종단은 기초, 기본, 전문, 특수 교육에서 30여개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막대한 교육재정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혜자 부담원칙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종단차원 교육체계 정립"

정념(종립학교관리위원)-중앙승가대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우선과제로 종단차원에서의 교육체계 재정립을 위한 시안이 마련되었더라면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논의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문화, 다변화되어가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현재의 승가교육으로 미래를 담당할 새로운 승가상 확립이 가능한지도 생각해볼 문제고, 심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이 기본교육기관에서 가능한지도 고민해야할 문제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설립은 그 취지는 좋으나 중앙승가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종단적 합의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승가대 정체성 찾자"

본각(중앙승가대 교수)-현재의 승가교육은 강원, 대학, 선원, 학림, 대학원 등 다양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

현재의 종단 교육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승가대는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통승가교육의 답습차원에서 기존 강원교육의 내전을 가르치는 것이며, 둘째는 수행관 생활 속에서 염불, 좌선 등 습의교육을 시행해 졸업과 동시에 수행인으로서의 능력과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는 컴퓨터, 외국어, 복지학, 카운셀링 등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선지식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피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2001. 1. 1
21세기의 길이 열렸다
그 길을 따라 -
우리의 마음을 따라!
길은 나선다.
동백이 피는 계곡에
21세기 수행법을
찾아 나선다.

길따라 마음따라

시와 칼럼 보덕현호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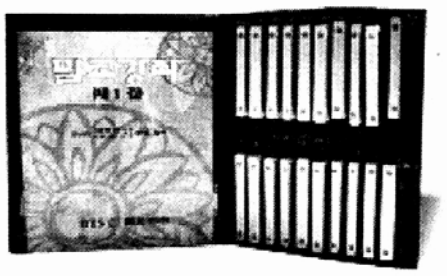
A5신 112쪽
값 4,500원
※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명상시집
· 정화의 빛 - 값 4,500원
· 고향의 숨결 - 값 4,500원
· 사랑과 비람의 시 - 값 4,500원
· 해 탈 - 값 5,000원
· 달마를 보라 - 값 5,400원
· 마음의 창 - 값 7,200원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 041)867-4000
F. 041)867-4001

돌샘 정화자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생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옹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net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농 협 307077-51-031273 운장사

덕화산 돌탑부처 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한국불교 예술문화원

사·부·대·중

여법한 스님상



주경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속가를 떠나서 입산출가를 하면 그때부터 '행자'로 불리게 된다. 사미(니)계를 받을 때까지 대부분 특별한 법명도 없이 '김 행자' '이 행자' 등으로 불리며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행자생활을 통해 스님의 기본을 갖춰간다.

행자들은 빨리 '스님'이 되고 싶어하지만 지금의 행자생활은 스님의 말과 행동, 옷입는 법, 염불의식 등 겉모습을 갖추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행자생활을 마치고 바로 스님(비구, 비구니)이 되는 것이 아니라 4년간의 예비스님(사미, 사미니)제도를 두고 있다. 95년 이후로 기본교육을 반드시 마쳐야만 정식스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비승들의 복장도 목과 소매 끝에 밤색띠를 둘러 구별을 두었다. 이것은 군소종단이 난립하고 스님의 정형이 혼재하는 가운데 '조계종 스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노력의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기성의 스님들조차 이러한 종단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있고, 예비승들도 종단의 지침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벌옷을 가지고 다니며 필요에 따라 갈아입거나 중앙종무기관이 있는 조계사에 오면서도 복장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 인터넷에 '반불교(안티부디즘)' 사이트가 생겨나고, 그 주된 주제는 스님들과 관련된 나쁜 소문이 대부분이다. '사실'을 가장하여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스님들을 매도하고 불교를 폄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근거는 일부 사이비승려들의 그릇된 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불교비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른 승가상'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도탈락을 하거나 흥내만 배운 엉터리를 스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스님'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절차와 과정을 온전히 마친 여법한 스님의 상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

목탁소리

'여성의 날' 의미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8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받는 불평등한 속박에서 벗어나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다.

정부도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1월 29일 여성부를 독립적인 공식기구로 출범시켰다. 구시대적 인습인 남존여비사상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자각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인지 요즘 여성단체들도 어느 때보다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비구니 스님들과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여성불자 1백여명이 모여 조직된 불교여성개발원의 창립으로 불교계도 여성들의 폭넓은 신행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불교여성개발원은 2월 10일 상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여성교육, 사찰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불교여성강좌 개최, 불교여성학 출판물 간행 등 올해의 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교계의 여성단체들은 수적으로도 적었지만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여성불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어줄 만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봉사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탄생을 계기로 이제 부터라도 여성불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여성불자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만약 이를 계기로 여성불자교육 등이 활성화돼 여성불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불교 발전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차제에 여성신도들을 대하는 사찰 스님들의 인식도 달라졌으면 한다. 무조건 그들을 불사모연에 필요한 사람으로 여긴다거나 사찰일에 동원하는 '보조자' 정도로 여기고 있지나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의식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얻는다면 훨씬 살기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밝고 청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성불자들의 의식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화엄결사 정법의 잣대 세우는 일"

인터뷰

화엄학림결사 추진위원 일귀스님



◇화엄학림결사 추진위원 중의 한 사람인 일귀스님. 일귀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을 되찾는 것이 화엄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깨침과 자비의 가르침은 과연 가치관의 전도와 혼돈 속에서 스스로를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등불이 되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한국불교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평가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불교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과제의 해결 지표를 충분히 제시해 왔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왔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결사(結社)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화하고, 이를 세상에 돌려주려는 승가의 공동체적 몸짓이다. 한국불교는 정혜결사, 백련결사 등의 오롯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95년 시작한 화엄학림이 화엄학림결사로 전환했다. 물론 화엄학림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시도를 위한 결사를 별도로 운영한다. 8일 화엄학림결사 근본도량인 화림원(華林院)에서 만난 일귀스님(화엄학림 학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을 되찾는 것이 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왜 결사인가.

△취지문에 잘 나타나 있다. 뭇 중생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화엄학림이 불과 7년만에 그 명맥의 유지를 근심하게 되었다.

이런 정황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학과 계율을 경시하는 근래의 수행관과 절집의 정서를 들 수 있다. 이는 교조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도 올바른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과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단의 풍토, 그리고 경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단정치와 철저히 무관

게다가 학림에 대한 미미한 재정 지원과 열악한 환경. 특히 교육역량의 한계와 교수방식의 구태의연함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부재, 경학과 수행의 연계 및 자기화의 실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실상사 대중 일동은 화엄학림의 질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화엄학림 결사를 다짐하게 되었다.

-불교 내에 비불교적인 모습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질문은 우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지 않고 방편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욕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본을 세운다면 불교 아닌 것이 없다.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 방편도 진리이다. 근본 가르침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비불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근본이라는 잣대를 깎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사의 의미를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정법의 잣대를 잘 깎아 세우는 일이다. 골짜기마다 선방이 있듯이, 이런 결사 분위기가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닷물은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은 무엇인가.

▲무아와 연기와 중도, 지혜와 자비이다. 부처님은 모든 언행을 통해 법을 보여주고 있다. 무아 연기 중도의 세계관에 철저했기 때문이다.

> 3%의 소금이 바닷물 오염막듯 화엄경학 탐구와 가르침 체화로 '불교 근본 세우기'

-90년대 초반 선우도량과 실천승가회가 종단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화엄결사가 이 같은 흐름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나.

▲어느 집단이건 리더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서 맑은 물을 골어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화엄결사는 종단, 특히 종단의 정치와는 철저히 무관하다. 불교와 우리 사회에 맑은 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내 함께 풀어가자는 차원이다. 한 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성공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살다 갈 것이다.



◇화엄학림결사의 근본도량인 화림원. 훗날 불교역사는 이곳을 새 불교의 발원지로 기록할 것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수행만이 수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학을 연구하든지, 선을 하든지 부처님의 근본 뜻을 살려내야 한다. 교와 선과 실천이 앞섬도 없이 뒤섬도 없이 전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어떤 것이든지 괜찮다. 요즘의 한국불교를 빗대어 무사(無師) 시대라고 하는데, 편협된 사고와 가르침을 대물림하고 있는 풍토에 대한 비판이다. 승가에는 물론 현대인의 생활에 삼학의 조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삼학의 조화를 어떻게 사회에 보여준다는 것인가.

▲계는 원칙과 질서를 갖는 것을 말한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개인과 사회에 원칙과 질서는 반드시 서야 한다. 정은 철저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반성하자는 것이다. 내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지 않는가. 혜를 통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계정혜 삼학이 조화되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 시대 승려들의 의무이다.

비구니스님도 입방가능

-왜 화엄인가.

▲현대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놓여있다.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야 한다. 화엄사상은 새로운 세계관의 원천이다. 이곳에서는 2년 동안 화엄학 개론, 중관개론, 유식학 개론 등을 공부한 후 화엄경을 파고든다. 현재 7명이 결사 대중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학림을 마쳤거나, 10년 이상의 선원안거, 2년 이상 강사의 경력을 가진 스님들이다. 실상사의 주지스님을 비롯 모든 사중스님들이 청강생으로 참여한다.

한편 화엄학림은 7기 학인을 추가 모집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상사 산내암자인 약수암을 비구니숙소로 확보함에 따라 비구니 스님의 입방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귀스님은 "비구만 달라져서는 안 된다. 비구와 비구니가 머리를 맞대면서 승가의 학풍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4월 3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 (063)636-3860, 3861 화엄학림.

남원=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기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원장 윤정주 저서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르는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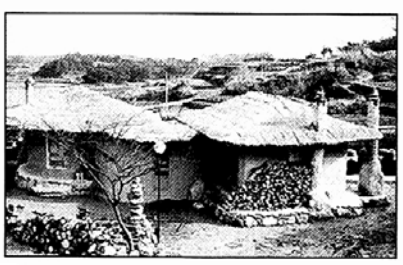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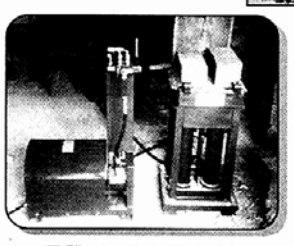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제 10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신청 받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구 분	대 상	인원	상 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1명	5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시, 소설, 극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	1명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멘메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1명	500만원

2. 구비 서류 ❶ 신청서 또는 추천서 (지정양식) 1통
❷ 이력서 (영함판 사진 3장) 1통
❸ 공적서 및 증빙자료 (최근 2년이내 실적자료) 1통
3. 제 출 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 031)980-7719~20 (우편번호 :415-070)
4. 신청 마감 2001년 6월 30일
5. 심사 및 발표 본 재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6. 시 상 일 2001년 9월 24일 월요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일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⑥

나고드는 숨에 해탈의 길이…

호흡 청정해지면 일체 행동이 곧 道

〈안반수의경〉의 수행법인 안반념법(安般念法)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하여 숨을 세는 수식(數息)과, 호흡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맞추어 주는 상수(相隨)와, 우리의 마음이 호흡과 하나가 되어 조화 롭게 일되어 한 곳으로 머물게 하는 지(止)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셋이 연(緣)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그 숨과 더불어 마음과 몸의 움직임을 그에 따라서 관찰하고, 몸과 정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이러한 관(觀)을 통해서 일체의 신상을 알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호흡이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순일한 자아로 돌아와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환(還)이다.

여기에서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하게 되고, 호흡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의식되지 않고 출입하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안락이고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질 때 일거수 일투족이 있는 그대로 도(道)가 되는 것이다. 이때의 호흡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어떠한 장애나 번뇌가 없는 깨달음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정(淨)이다. 이러한 여섯 단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데, 이러한 과정을 경전에서는 땅(地, 數)과 쟁기(犁, 隨)와 멍에(車+巨, 止)와 씨앗(種, 觀)과 비(雨, 還)와 근행(勤行, 淨)에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안반수의경〉의 상권에서는 호흡 명상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원론(原論)을 이야기하였고, 하권은 각각을 설명하는 각론(各論)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상권은 주로 호흡의 원리와 호흡의 수련 단계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권은 보다 세분화시켜서 수련의 단계와 각각의 단계에 상응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그 효과와 공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권에서는 불도 수행의 서른일곱 가지의 단계인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의 설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 삼십칠도품의 수행이 완성되었을 때 호흡의 청정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높은 곳을 올라가려는 사람이 37개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서 드디어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의 요지를 "비구들이여,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마음을 두는 것을 수습하여 널리 익히면 큰 효과를 얻고 큰 공덕이 있느니라. 여러 비구여, 입출식을 수습하고 널리 익히면 칠각지를 원만히 한다. 칠각지를 수습하고 널리 익히면 명(明) · 신통(神通)과 해탈(解脫)을 원만케 한다."

이것은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 마음이 같이 머물면, 이것이 사념처에 원만한 것으로서 입출식념(入出息念)은 행하고 머물고 눕고 앉음에 항상 마음이 대상과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이 그것과 같이하여 들어오는 숨 속에서 신 · 수 · 심 · 법이 나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에 걸리지 않으며 심신이 움직이지 않는 속에서 승묘한 법 그대로의 세계에 머물게 된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며, 이 지혜를 얻어서 해탈, 곧 열반적정(涅槃寂靜)에 이르러 깨달음의 대 광명을 발하게 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다음 호부터는 반산 스님(봉선사 능업학림 연구원)이 이 난의 필자로 참여합니다. 그 동안 좋은 원고로 독자들을 경전의 세계로 이끌어 준 승오 스님께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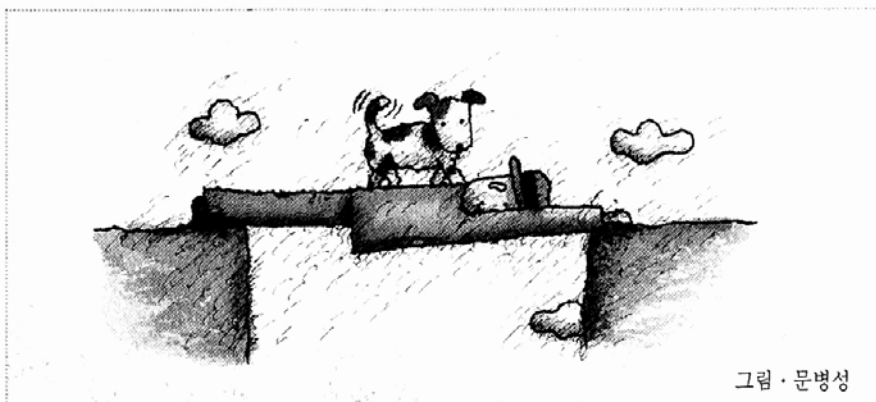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무심으로 도와야 참 보시

불교와 과학 〈21〉

이타주의

과학 이타심 종족 보존 원동력
불교 돕는다는 생각없어야 공덕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되면서 당시 서구 사회의 사상적 풍토에 큰 요동이 일어났다. 과학적 진화론이 기독교의 인간관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아가 종교와의 갈등말고도 당시 유럽의 사회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법칙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이론적 원천인 자유주의의 맹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동착취, 인간소외 등의 자본의 피폐성이 노골화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어느 것도 이론적 합리화를 완성시키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배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과학법칙을 찾고자 했다. 이때 마침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선택과 변이라는 두 축 위에서 성립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진화론에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견강부회로 끌어댔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생명종들의 조화론을 끌어내어 자신의 이론적 무기로 삼았다. 당시 극단적으로 상반된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동일한 진화론을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진화론을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유기체의 자연선택과 적응논리를 자유경쟁 체제의 논리적 근거로 보고 싶어했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생명종 내의 개체의 이타심이 궁극적으로 그 집단의 존속을 유지시키는 강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나아가 개체간의 조화 가능성의 논리적 근거로 보고자 했다.

19세기 말 중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부국강병론의 일환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부국강병론 혹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경쟁 논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자연선택론이었다. 다시 말해서 강한 것은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고 약한 것은 자연도태되는, 약육강식이라는 매우 처절한 논리가 중국도 강해져야 한다는 정치논리로 연결되었다. 이런 경우 내가 살아 남기 위하여 네가 죽어야 하는 집단 이기주의만이 팽배해질 것이 너무 뻔한 일이다.

그러나 자연선택의 진화과정에서 반드시 강한 것만이 살아 남는다는 논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일반인의 가장 큰 오해이다. 다윈은 일개미의 경우와 아프리카 어떤 종족의 사례를 통하여 나를 희생시켜 자기가 속한 종족 혹은 개체군집 전체의 자손증식과 종의 존속을 유지시키는 개체의 이타적 행위를 매우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도덕심이나 이타심도 자연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집단의 종족보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그런 이타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화생물학자 사이에서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먼 훗날 모종의 보상을 바라고 남에게 이타적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이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아무리 먼 훗날이라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이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이타주의는 선천적인 그 무엇이어야 한다. 단기간에서만 볼 때, 생명종의 개체들이 이기적일 경우, 분명히 더 자손증식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볼 때 오히려 이타적인 것이 더 자손증식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어떤 공장주가 자신의 이익만 챙겨 오염물질을 마구 방출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할 때 자신과 자신의 자식 정도야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종 전체의 입장에서는 종의 존속과 자손증식에 불리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승의 차원에서 이타주의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행위, 그리고 무엇을 바라서가 아닌 행위는 그 자체로 서양적 잣대의 윤리적인 틀조차도 벗어나 있다. 윤리라는 틀도 역시 세간의 분별심에서 나온 규범이기 때문이다. 선진유가의 텍스트에서는 그 첫 장에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썼다. 불교의 첫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썼는데, 그러나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욕심조차도 버려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규범화된 윤리조차도 벗어나는 일, 무심의 이타만이 진정으로 인류의 진화에 선택될 수 있다고 본다. 불교의 이타성은 생각으로 하는 계산된 이타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자연스런 이타이기 때문에 인간종 진화에 훨씬 높은 적응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사찰서 전통의학 배워 주민 무병장수 돕는다

지구촌 불교 / 티베트 의사스님

티베트 하면 불교와 달라이 라마를 떠올리겠지만 세계 의학계는 다른 각도에서 티베트를 지켜보고 있다. 티베트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곳과 비교해 유난히 길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티베트인의 장수 비결의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한 바 있는데, 지난해 발간한 〈세계 건강 보고서(World Health Report)〉에서 그 이유를 티베트 불교의 전통 의술을 교육하는 사원인 문파찰창과 티베트인의 소박한 삶에서 찾고 있다.



◇약초를 다듬고 있는 티베트 스님들.

'의학불경' 읽고 약초 수집
자연 치유력 활용 병 고쳐

문파찰창이란 스님에게 의술을 가르치는 절을 일컫는다. 1951년까지만 해도 티베트의 라사에는 가장 큰 규모의 문파찰창이 있었다.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그 사원은 의사들의 수련기관인 의술학원으로 통합됐다.

그러나 〈세계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지방에는 문파찰창의 역할을 해내는 사원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스님들이 의술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의술의 최대 수혜자인 티베트인들은 전래의 비방을 물려받은 나이든 의사 스님을 가장 존경하며 따른다. 한여름이면 사원 주변에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임시 천막을 칠 정도라는 것이다.

문파찰창에서 스님들에게 가르칠 의술의 교재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의경팔지〉와 〈사부의전〉이다. 〈의경팔지〉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을 도입한 불교경전의 하나로, 약보다는 자연적인 치유력에 입각한 양생법이 주 내용이다.

〈사부의전〉은 티베트 고유의 전통의학 경전으로, 8세기경 티베트의 유명한 의학자가 썼다고 전해진다. 〈사부의전〉은 탕카(우리나라의 탱화와 비슷)로도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한의학과 이론적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음식을 통한 식이요법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사에서 남쪽으로 2~3시간쯤 차로 달리면 초목이 울창한 장수촌에 도착하는데, 이 곳에는 티베트 특유의 약초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의사 스님들은 봄, 가을마다 이 곳을 찾아와 약초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생활수준은 낮지만 악착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티베트인의 삶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티베트인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주목한 티베트인의 삶의 태도는 삼독을 멀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가 아닐까. 그렇다면 티베트인의 장수 비결은 불도를 이루겠다는 마음에 있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 改訂增補版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들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200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993-8680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올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17까지 총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스님, 선생님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며 밝은 표정을 지은 입학생들은 부모 곁을 떠나 전지한 홀로서기에 나서겠다며 의젓함을 보였다.



◇의사, 교수, 교사, 귀농자 등 대부분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남겨두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불교계 최초의 대안학교 학생을 두었다는 자부심을 내비쳤다.

교계 첫 대안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문열다

지리산을 배움터 삼아 '자율의 삶' 익힌다

"얘들아/ 지리산의 아들 딸들아/ 이제 너희들의 교과서는 풀과 나무와 새와 짐승과 해와 별과 달/ 너희들의 교실은/ 천왕봉과 벽소령과 반야봉과 노고단/ 이제 너희들의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 지리산이다(이원규 시인의 '얘들아, 지리산의 아들 딸들아' 중에서)

4일 지리산 일대에 폭설이 내리던 날,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에서는 불교계 최초의 대안교육 도량인 '실상사 작은학교'가 문을 열었다.

마치 입학식을 축복이라도 하듯 상서로운 눈발이 펑펑 내렸지만, 실상사 작은학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지원 · 심산스님) 소속 스님들과 남원군수 등 지역 인사들은 도로 불통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입학생 15명의 학부모들은 미리 눈길을 헤치고 빠짐없이 참석해, 새로운 불교적 교육실험의 출발을 기대반 걱정반으로 축하했다.

작은학교 설립추진위원인 지장스님의 축사와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인사말, 학부모들의 축가, 입학생들의 다짐 발표 등으로 진행된 입학식은 실상사 스님과 교사, 학부모, 입학생들이 하나된 감동깊은 자리였다.

특히 교육의 세 주체인 입학생 · 학부모 · 교사 대표들은 저마다 상기된 표정으로,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불교 대안교육의 새 장을 열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나는 열세살. 아직은 어리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집과 부모님, 정들었던 초등학교 시절의 동무들을 떠나 지리산 자락에서 '실상사 작은학교'라는 배에 탔습니다. 노를 젓는 우리들의 팔목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돛을 단단히 잡아주시고, 부모님들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세요."(입학생 최예솔)

"우리 학교는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배울 수 있는 태도와 관점을 키워, 아이들이 자기 발견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이경재 교사대표)

"사실 이 자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곧 사랑으로 싹이 터 흙에 튼실하게 뿌리박고, 햇볕을 바라보고, 비바람 헤치고 억세게 자라나길 합장합니다."(예솔이 아빠 김준영씨)

8명의 교사와 3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15명의 학생을 선발, 이날부터 본격적인 불교 대안교육비인가 중등과정)에 나선 작은학교는 한 몸, 한 생명의 연기적 세계관에 기초해 생명의 존엄성과 더불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교과 교육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 도시학교와는 달리 자연을 벗삼으며 문화체험 및 자율활동에 무게를 둔 작은학교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입학생도 짝을 지어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담임교사의 집에서 3년간 공동생활을 한다.

성립관에는 임규리 정성우 하수용 유지원 이재영 군이 김태훈 · 연동진 선생님과, 매동관에는 임현재 선한빛 정지훈 반준석 군이 송사석 · 김형근 선생님과, 여성관에는 최예슬 김은희 이산하 양이 강은화 선생님과 가족이 되었다. 이수륜 군과 이연주 김나라 양은 부모님과 함께 근처 마을에 터를 잡았다.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 일상 자체가 교육의 연장이지만, 나름의 커리큘럼도 짜여져 있다.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과목의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다양한 역사체험 및 봉사활동, 연극, 풍물, 글짓기 등으로 자신의 특기와 개성을 살리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학교 앞 텃밭에 각종 채소를 기르고 돼지와 닭 등을 사육, 주식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립정신을 키우게 된다.

작은학교는 아직 전용 학사를 갖추지 못해 실상사 사중 큰방과 약사전 뒤편 콘테이너에 임시 교실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상반기내에 실상사 인근 산내면 백일리에 위치할 환경농업교육장에 학사를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은학교 설립추진위는 학사 마련 및 안정적 운영기금 확보와 불교 대안교육 확산을 위한 역량 축적 및 토대구축을 위해 3억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모연(募緣)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작은학교는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어렵게 출발했지만, 최근 대안학교의 대표격인 산청 '간디학교' 중학교 과정이 경남도교육청의 해산 명령 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것처럼,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경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중등과정의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추세여서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내년부터 중등교육과정의 의무교육이 실현될 경우를 대비해 '특성화 중학교' 등의 인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은학교의 정신적, 물적 토대를 제공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인 도법스님은 "평화 · 노작(勞作) · 인간화교육을 지향하는 대안교육은 불교적인 정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면서,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마다 1개씩의 대안학교를 만들면, 농촌에 위치한 사찰의 지역주민과의 융화는 물론 인성을 갖춘 불교 일꾼을 양성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63)636-3369

남원=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학생 15명과 교사 11명
'참된 배움-더불어 삶' 목표로 힘찬 첫 출발



◇지난해 여름 실상사서 열린 청소년 그림 · 글짓기 대회.



◇작은학교가 지난해 연 '청소년 여름학교'의 농사체험 장면.

대안교육이란

비인간화 교육에 반기
英 섬머힐 1921년 설립

대안교육은 19~20세기에 개발중심의 근대적 가치가 생존경쟁의 가치로서 사람 사이의 유대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자연과의 친화력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를 부채질하는 교육에 대한 반기로 나타난 운동이다.

영국의 교육가 A. S. 닐이 1921년 설립한 섬머힐(Summer hill), I. 일리치가 제창한 탈학교교육(Deschooling) 등으로 시작된 대안학교는 지식 위주의 기존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를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운영형태에 따라 정규학교형, 계절학교형, 방과후 프로그램형 등을 비롯 △학생의 잠재 가능성을 살리는 '자유 학교형' △생태적 공동체학교를 지향하는 '생태 학교형' △부적응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재적응 학교형' △종교신앙과 철학사상 등을 추구하는 '고유이념 추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11개교와 15개의 전통 서당 등 수십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규교육 과정의 파행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오가피차
담 없애주고 관절질환에 효과

"얘, 원종(圓宗)아! — 미련하게도 생긴 네 놈이 중이 되기는 했다마는 중노릇도 제대로 할성싶지 않구나. 중도 상판이 어지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겨먹어도 그렇게 생겼노? 쯔쯧! 밥 먹었으면 꾸불대지 말고 밭에다 거름도 내고 나무도 해와야지 —".

이때,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법명은 원종이었다. 1899년 23살 때에 공주 마곡사의 용담화상을 계사로 해서 삭발했다. 사문(寺門)에서는 터럭만큼의 그 어떤 아심도 허용되지 않았다. 평생의 한(恨)이던 상민의 껍질을 벗고 양반들을 내려다보며 살겠다고 17살에 동학에 가담한 이후, 관군에 쫓겨 도망치다 민비 시해소식을 들었고, 황해도 안악(安岳)에서 일본 육군 중위 스치다를 죽였다. 법정에서 국모를 시해한 원수를 갚았다하여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고종의 특사로 형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일본공사 하야시의 압력으로 출옥이 어려워지자 1898년 인천 감옥을 탈출, 마곡사에 은신하여 봄도를 닦고 있었다. 당시의 가명 김창수라는 동학의 접주를 버리고 다시 김구로 태어나는 계기는 이렇게 공주 마곡사 신점당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년 간 인천 감옥의 일은 꿈만 같았다. 뼈가 터져 나오는 고문을 견딘 끝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마곡사에서 만난 혜명 스님의 권유로 오가피를 산에서 뜯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상복했다. 오가피차 두 달을 먹자, 쑤시고 깨어질 듯한 두통이 사라지고 6개월을 먹자 동학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본연의 모습, 김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후 김구선생은 인천 감옥에서 함께 고생하다 출옥한 사람들에게 오가피 껍질을 나누어주며 신세를 갚았다. 그 후 1949년 73세의 경교장에서 운명하던 순간까지 김구 선생은 오가피차를 즐겨 드셨다. 오가피는 원기회복과, 관절, 류머티즘 등의 뼈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오가피 30g, 물 2컵

요리법 오가피를 깨끗이 씻어 물이 반 정도 분량으로 줄 때까지 끓인 후 베보자기에 거른다.

효능 기(氣)를 원활하게 해주고 담을 없애는 좋은 음식이다. 간과 신장에 이로운 작용을 하며, 각종 풍과 습으로 인한 관절 종통과 무릎, 손발 등의 모든 뼈 질환을 치료한다. 또, 근육과 뼈를 보호하여 간과 신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다. 술에 담궈 먹어도 아주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㉓

如是任法 調治習氣 使稱理智增明
여시임법 조치습기 사칭이지증명
隨緣利物 行菩薩道 雖處三界內
수연이물 행보살도 수처삼계내
無非法性淨土 雖經歲月 體不離時
무비법성정토 수경세월 체불이시
任大悲智 以法隨緣故
임대비지 이법수연고
此人雖不如上古過量人 一超登位
차인수불여상고과량인 일초등위
具足通力者 然以夙植善根 種性猛利
구족통력자 연이숙식선근 종성맹리
深信自心 本來寂用自在 性無更改故
심신자심 본래적용자재 성무갱개고
於諸世難 無有退失之患 華嚴論
여제세란 무유퇴실지환 화엄론
所謂大心凡夫 能生
소위대심범부 능생
信證入故 生如來家 不言已生佛家
신증입고 생여래가 불언이생불가
諸大菩薩者也 今時如此修心者
제대보살자야 금시여차수심자

혹유행자 문자심정묘지덕 신락수습
然以無始堅執我相 習氣偏重
연이무시견집아상 습기편중
致諸惑障 未能忘情者 且以空觀
치제혹장 미능망정자 차이공관
推破自他身心 四大五蘊 從緣幻出
추파자타신심 사대오음 종연환출
虛假非實 猶如浮泡 其中空虛
허가비실 유여부포 기중공허
以何爲我 以何爲人 如是深觀
이하위아 이하위인 여시심관
巧洗情塵 心常謙敬 遠離 慢
교세정진 심상겸경 원리교만
折伏現行 資於定慧 漸入明靜之性
절복현행 자어정혜 점입명정지성

인연따라 보살도 행하면

삼계안에 처하더라도 법성의 정토

爲上近也
위상근야

이렇게 법에 맡겨 습기(習氣)를 다스려서 이치에 맞는 지혜를 더욱 밝게 하고, 인연 따라 만물을 이롭게 하는 보살도를 행한다면 비록 삼계(三界)안에 처하더라도 모두가 법성(法性)의 정토요, 비록 세월이 지나도 본체는 때를 떠나지 않는다. 대자비의 지혜에 맡겨 법으로써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옛날에 뛰어난 사람이 한 번에 성인의 지위에 올라 신통력을 갖춘 이보다는 못하더라도 숙세에 심은 그 선근(善根)으로 성품이 영리하여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고요하고 자재로운 그 성품은 변함이 없음을 깊이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실망할 염려가 없다. 〈화엄론〉에 '이른바 큰 마음을 지닌 범부는 신념으로 깨달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래의 집에 태어난 것이지, 부처의 집에 태어나서 대보살이 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였다. 오늘날 이렇게 마음 닦는 이는 상등 근기라 할 것이다.

或有行者 聞自心淨妙之德 信樂修習
잊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는 모두 인연 따라 환영(幻影)으로 생긴 헛 것이라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물거품과 같이 그 속이 비었는데 무엇을 〈나〉라 하고 무엇을 〈남〉이라 하겠는가?' 하는 공관(空觀)으로 아상을 깨부수어야 한다. 이렇게 관찰하여 세상의 번뇌 티끌을 잘 씻고, 항상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만심을 없애며 현재의 번뇌를 억제한다면 선정과 지혜에 힘입어 차츰 밝고 고요한 본성에 들어갈 것이다.

然此人 若無萬善 助開自力 恐成迂滯
연차인 약무만선 조개자력 공성우체
直須勤供養三寶 讀誦大乘 行道禮拜
직수근공양삼보 독송대승 행도예배
懺悔發願 始終無廢
참회발원 시종무폐

그러나 선행을 하며 자력적인 개발이 없으면 우회하거나 막히기 쉬우니 항상 삼보에 공양하고 대승경전을 읽으며, 수행하고 예배하며, 참회와 발원을 쉬지 말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내고…

"달마가 혜가에게 처음 법을 전할 때 〈능가경〉을 전했다 … 〈능가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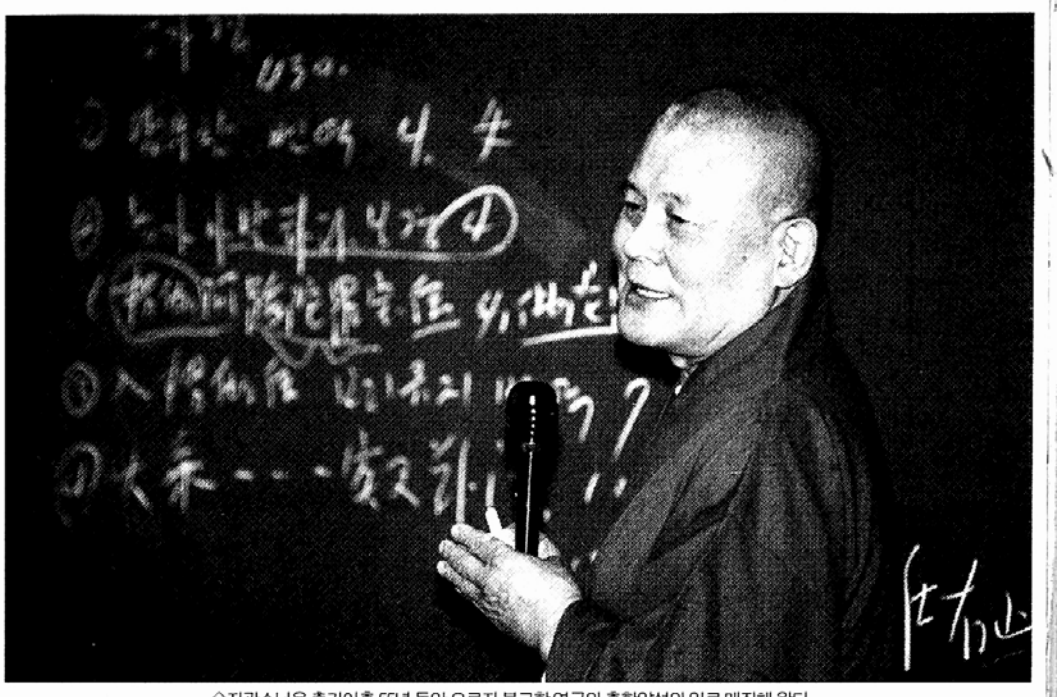
6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강의실.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인 지관스님의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 2001년 첫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선종사를 공부하는 2 시간 내내 힘이 넘치는 고음의 경상도 사투리로 강의하는 스님과 제자들의 진지한 눈빛이 강의실을 한껏 달구어 놓았다.

지관스님은 올해 칠순이다. 그럼에도 하루 4시간이상 잠자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하는 스님의 모습은 그대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서운 경책이다. 스님은 큰 절 주지 정도면 당연히 있을법한 자가용도 없다. 아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버스카드 한 장이면, 별 어려움없이 아침 저녁으로 정릉 경국사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오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치장스러운 자가용을 달고 다녀야 하느냐며 검소한 삶을 직접 행해 보이신다.

30년 넘게 강단에 서 오면서도 강의 1시간 전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강의할 내용을 다시한번 첨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스님의 오랜 철칙이다.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강좌 외에 매주 목요일에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자체 강의인 선전강독강좌를 직접 지도한다.

한국 불교계에서 스님의 위치는 실로 크다. 교화에서 일가를 이루었고, 가산불교대사림 편저, 한국금석학연구 등 스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스님의 활동기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59~70년까지. 강원에서 공부를 마친 스님은 10여년간 승가대학(강원)에서 후학 양성과 함께 전승교학 주석서를 직접 발간했다. 이후 90년까지 20여년간은 동국대에서 인재를 양성하며, 종립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헌신 하였다.

이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 개원으로 시작되는 91년부터 현재까지 법보종찰 해인사 1200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가야산해인사지〉로 사찰역사기록의 전범을 보였으며, 20여년 전부터 시작한 최초의 불교대백과사전 〈불교대사림〉 편찬에 주력하고 있다. 총 15권으로 완간될 〈가산불교대사림〉은 현재 제4권의 간행을 앞두고 있다. 또 한국불교역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1600년 간의 〈역대고승비문총서〉를 전 7권으로 정리하여 간행함으로써 우리 불교의 자존을 한껏 높였다.



◇지관스님은 출가이후 55년 동안 오로지 불교학 연구와 후학양성의 일로 매진해 왔다.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
한국불교 정체성 찾기
'불교대사림' 제4권 준비

기자가 스님을 찾았을 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바로 앞 건물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굴착기 같은 기계의 쇠울음소리가 온통 연구원을 뒤흔들어 무척 소란스러웠다.

"스님, 이렇게 시끄러운데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뭐, 지는 지 일 하는 기고, 내는 내 일 하는 긴데 신경 쓸 일이 뭐 있노."

무뚝뚝하면서도 간명한 대답에 멋쩍어서 다시 여쭈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의자에 앉아계시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거 없어. 그냥 하는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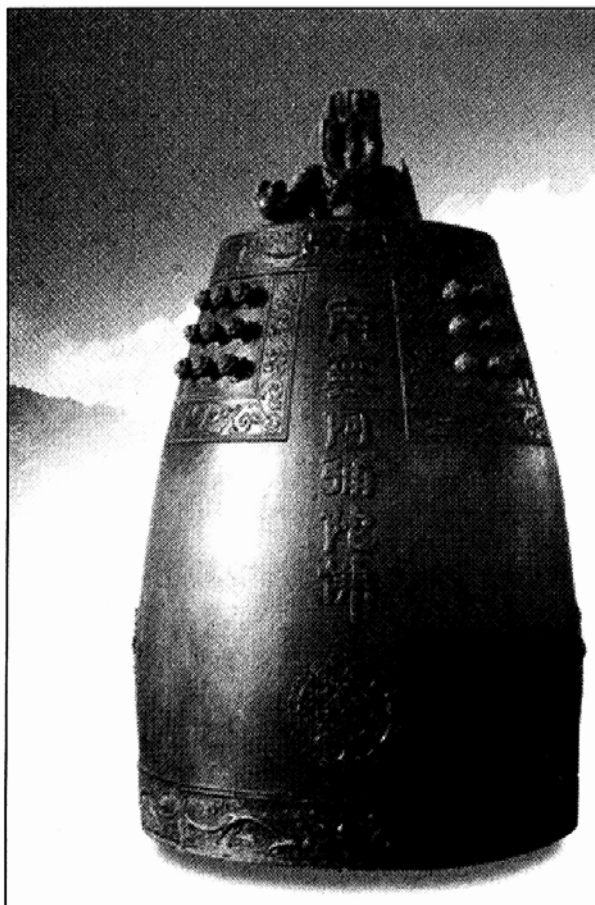
스님의 일과는 매일 오전 10시경에 경국사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혜화동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 모든 직원이 다 퇴근한 밤 9시 반 경에야 끝이 난다. 가산연구원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에서부터, 원고정리, 강의 준비, 강의 지도, 행정처리 등이 스님의 일상이다. 한주간의 살림살이가 마무리되는 토요일 오후에는 편찬실의 원고들을 모두 챙겨 주말동안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윤문하고, 일일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 메모까지 따로 달아서 가져올 정도다. 연구활동에 대한 스님의 열정과 책임감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찾아내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씩 서고의 대장경을 꺼내어 경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니, 수선소에 맡겨야 할만큼 대장경들이 닳고 닳았다. 무거운 대장경을 들고 내리느라 스님의 어깨와 팔은 늘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연구하고 집필하느라 오랜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까닭에 허리가 좀 아픈 것을 제외하고는 칠순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무뚝뚝한 말투와는 반대로 실재 스님은 무척 다정다감하신 분이다. 가끔 연구원 직원들에게 피자도 사주시고, 답사여행에서는 예쁜 동자인형을 선물로 사서 나눠주실 만큼 속정이 깊다. 기자가 방문했던 날 스님은 꽃가게 앞을 지나가다 벌써 꽃을 피운 작고 예쁜 영산홍 화분을 식구 수대로 사서 하나씩 나눠 주셨다. 기자도 얼떨결에 그 화분 하나를 받아 들었다. 화분 고르는 모습 좀 찍게 앉아서 꽃 구경하시라는 사진기자의 요청에 스님은 "싫여, 그거 다 거짓이여"하시며 꽃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다.

스님은 매일 오후 5시 경이면 연구원을 나와 근처 혜화동 거리 이곳 저곳을 다니신다. 책과 씨름하느라 고단한 눈도 즐겁게 하고, 머리도 식히고, 짧음의 거리 대학로의 기운도 느껴보면서 오늘은 또 뭐 새로운게 없나 거리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신다. 긴 우산을 지팡이 삼아 말이다. "스님, 요즘도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시나요?"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기자가 물었다.

"이제 비둘기가 없어서 못 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책길에 비둘기들에게 모이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 정화니 뭐니 해서 비둘기들을 모두 쫓아 버려 구경하기도 힘들어." 비둘기가 떠난 대학로가 못내 아쉬운 듯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신다.

스님은 요즘 〈가산불교대사림〉 제 4권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지관스님은

경·율·론 두루 능통



지관스님은 15세때 해인사에서 율사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63년 마산대에서 종교학을 공부했으며, 76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강원 졸업이후 70년까지 해인사 강원 강주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70~72년, 93~96년 해인사 주지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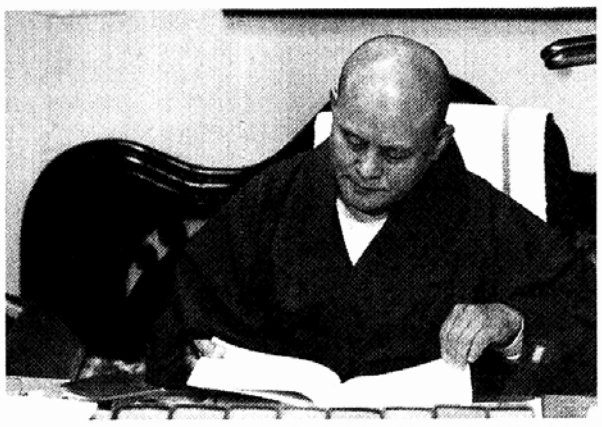
스님은 또한 95년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장을 맡아 훼손 위기에 처한 가야산과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 환경운동 연합 단체들과 함께 골프장 건설 승인계획 완전백지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스님은 75~98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86~90년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이다. 지난 1월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경 율 론 삼장에 두루 능통한 스님은 "양심을 속이는 중들은 살지 말아라, 계율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다"는 율사 자운 스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불교대사림〉 등의 간행외에도 〈남북전육부율장 비교연구〉 〈비구니계율연구〉 〈계율론〉 등과 같은 율학관련 교재를 발간해, 율풍진작에도 힘썼다. 또한 1974년 펴낸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는 한국불교학 자료의 서지적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석문연구회 회원들과 정기답사에 나선 지관스님.



◇지관스님은 연구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집필 활동에 정열을 쏟고있다.

"불교학은 국학의 원형 한국문화와 정신사 불교의 비중 크고 깊죠"

을 집필중이다. 한글로 된 불교종합대백과사전을 만드는 이 대 작업은 20여년 전 스님이 해인사 강주생활을 할 때 비롯됐다. 일본의 〈망월불교대사전〉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불교연구의 근간이 될만한 불교종합대백과사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열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사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 〈가산불교대사림〉 1, 2, 3권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오로지 불교 연구와 집필에만 매달려 발간한 책들을 일렬로 쌓으면 그 키가 1m가 훨씬 넘는다.

젊은이도 좇아가기 힘든 이러한 스님의 열정이 지속되는 것은 투철한 소신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항상 제 자사랑, 종단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불교, 불교학은 국학의 원형으로 국학, 한국학의 중심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근간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 발간 작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스님은 또한 우리 문화의 80%를 차지하는 문화사로서의 불교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정신사로서의 불교를 항상 강조하신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1600년 동안의 역대 스님들의 행적, 내면을 밝힌 〈역대고승비문총서〉를 발간했던 것이다.

한국사 속의 불교 원형 찾기를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 스님은 항상 보따리 하나를 들고 다닌다. 그 보따리에는 〈불교대사림〉 발간과 관련해 수시로 항목을 정리할 수 있는 보유원고 목록과 각종 사업계획서, 그리고 아이템 노트가 들어있다. 스님은 이 아이템 노트에 수시로 메모하면서 한순간도 불교연구에 관한 생각과 계획을 머리와 손에서 떼어 놓은 적이 없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때부터 스님을 도와 온 기획실장 현원스님은 말한다. "79년인가 제가 강원을 졸업하던해 해인사에 계시던 스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스님께 '스님께서는 아는 것도 많으신데, 왜 강사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해야 대접 받는데, 스님도 강의 스타일을 좀 바꿔보시는게 어떠십니까?' 하고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고는 '니나 공갈 많이 치고 살아라. 평생동안 대장경 다 보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바쁘다'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안했던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스님은 말이 앞서는 것을 싫어하세요. 한가지라도 열심히 실천행을 하면 종단도 좋고, 자신도 좋고, 모두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죠. 스님 방에 걸린 '계왕계례(繼往開來)'가 바로 스님이 일상의 지표로 삼는 가르침이예요. 옛것을 오늘에 이어 후대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옛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 고승들의 행적과 같은 많은 유산들을 그냥 두지 않고, 후배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을 내는 일이 스님이 하실 일이라 굳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십니다."

지관스님은 15세때 자운 대율사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지만, 자운스님 외에 모시는 스승이 두분 더 있다. 스님 스스로 '일생에 잊지 못할 삼(三)은사'라 지칭하며 색이 바랜 옛 흑백 사진을 다시 뽑아 간직할 정도로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세 분의 스님. 바로 자운, 영암, 운허 스님이시다. 종단 화합에 앞장섰던 자운스님, 종단 행정에 밝았던 영암스님, 불학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운허스님을 스승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제각기 방법은 달랐지만 종단과 불교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과 뜨거운 정열은 한결 같았던 세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스님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지난해 4월 해인사에 조성한 자운스님의 부도와 탑 건립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상좌들이 열반한 스승의 부도나 탑을 대부분 조각가나 석재상에 의뢰하는 것이 보편화된 요즘, 자운스님의 부도와 탑을 조성하는데 있어 전통방식을 고집하며 상좌들과 직접 제작에 참여해 자운 스님의 부도와 비를 완성한 것이다.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여러 부도모양을 토대로 탑비를 구상하고, 자운스님의 행장과 인품에 맞도록 전통방식에 입각해 조형물을 만들고 문양을 새겼다. 특히 부도 상대석의 8면에 인도의 우팔리존자, 중국의 도선, 백제의 겸익, 신라의 자장, 통일신라의 진표, 조선의 금담과 자운 율사 등 계율정신을 이어온 율사스님들을 특징적으로 형상화하는 등 우아함을 한껏 드러냈다.

스님은 전례규범과 전승의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스님은 문화적 안목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스님은 탑비 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발로 뛰어다니며, 율사였던 은사 스님의 가풍과 상징을 탑에 고스란히 담아냈던 것이다. 돌에 마음을 새기는 작업이 바로 탑비라는 스님의 믿음은 '오늘의 문화재'를 만들어 냈고, 당시 봉안식에 참석했던 많은 스님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다.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인재 양성과 교학 발전에 독보적이고도 다대한 업적을 창출한 지관스님. 출가때의 초발심을 5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니고 실천행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스님의 하루 하루는 우리들에게 산 법문이 되고 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 무무스님

스님들 대부분은 자기가 태어 난 곳에 있는 사찰로 출가를 하지 않고 아주 낯선 곳을 출가지로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까닭을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어느정도 수행이 익을 때 까지 모든 반연에 대한 '쉼표'를 찍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고향이라는 곳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첫 출가자에게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수행자는 미리 사찰과 은사를 정해놓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무작정 원하는 사찰에 찾아가서 출가뜻을 밝히고 그곳에서 받아 주면 바로 행자 생활이 시작되기도 한다. 요즈음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가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허락 없이 출가를 했다가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부모님 중에는 삭발 염의한 모습을 보고 '뜻대로 하소서' 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집으로 가자고 강권 하기도 한다.

선원에 있을 때 일이다.

무무스님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 하는 명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방학때 동료와 함께 해인사에 갔던 것이 출가의 인연이 되었다. 그때 마침 많은 대중들이 법당에 모여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었고 또 간간히 들려오는 큰 스님의 법문은 이해

출가 놓고 어머니와 갈등

정진모습 보며 감화

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단순히 스님들을 모아 놓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무무스님은, "내 속에 알음알이를 만드는 그놈이 누구인고"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열렸다고 한다. 그 후 많은 불교서적을 섭렵했고 방학이면 큰 스님을 찾아 참선하는 법을 배우더니 더 이상 학교에 남아 있을 의미를 못 느껴 출가했다고 한다. 물론 출가는 부모 동의없이 했다. 다 큰 딸이 어느날 부모님께 한 마디 말도 없이 직장을 버리고, 그것도 기독교 선교사가 아닌 불교의 출가수행자로 사찰에 있다는 것을 알아 내고 그 딸을 데리고 가려고 무척 애썼던 무무스님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어쩜 이것은 스님으로 출가한 딸과 기독교 집사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종교갈등이었다.

한사코 자기 길을 가겠다고 어머니와의 만남조차 거부하고 몇날 며칠을 산으로, 다락방으로 숨어 다닌 무무스님은 산을 내려가는 어머니를 먼 발치에서 지켜 보아야 했다. 또 그 어머니는 딸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니 그냥 두고 갈 수 없고 꼭 데리고 가겠다고 사하촌에 방을 얻어놓고 며칠을 잠복하면서 딸을 찾아다녔다. 모녀가 같은 종교였다면 변한 딸의 모습에 반쯤 마음을 접고 딸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어머니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무무스님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출가 생활을 못할지도 모르니 대중스님들은 저를 위하여 무조건 없다고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한동안 온 대중들은 무무스님과 그 어머니 신경전을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다.

딸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던 그 어머니가 며칠을 그렇게 하여도 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지쳐서 내려갔고 무무스님 또한 곧바로 그 곳을 떠나 다른 사찰로 거처를 옮겼다. 자기로 인해 다른 대중스님들 정진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무무스님이 떠나 간 뒤에도 그 어머니는 몇 차례 사람을 앞세워 찾아 왔고 올 때마다 혹 딸을 만나 데려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지만 번번이 소식조차 접하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무무스님의 어머니는 결국 스님을 찾아냈지만 몰래 찾아 가서 스님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예경을 올렸다고 한다. 또 지금은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고 한다. 한마디 법문도 없었지만



정진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스님들마다 나름대로 출가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무스님 만큼 힘든 출가를 한 스님이 또 있을까 싶다. 종교가 다른 어머니가 핏줄의 정으로 행사하는 압력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묵묵히 침묵으로 삭히면서 한치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무무스님의 수행력, 어떠한 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종교가 다른 어머니 마저도 그 앞에서는 많은 것을 느끼면서 얻는 것이 아닐까.

정진으로 얻은 그 힘으로 어머니 마음을 헤아렸고 또 내 속에서 알음알이를 만드는 그 놈을 알 때까지 결코 내가 정진하는 곳을 어머니께 알릴 수 없다며 깊은 산중에서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 놓지 않았으며 또 그 어머니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하지 않았던 스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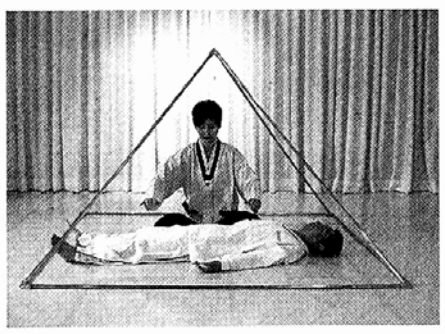
일년이면 반년을 묵언으로 정진하는 무무스님의 표현은 바로 소리가 아니고 느낌, 그것이 아닐까.

▨ 세원사 주지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요.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요.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파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퇴행요법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클리닉 강남센터:02)3218-7611 여의도센터:02)786-2333
광주센터: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정강 대 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입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봄식탁 사찰음식 "입맛 당기네"

EBS·SBS 채식요리 프로 준비

옛부터 사찰에서는 묵은 김장김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입맛도 없는 이맘 때 쯤이면 어린 쑥을 뜯어다 알게 썬 배와 양념장에 무친 쑥 겉절이로 입맛을 돋우었다. 봄날 따뜻한 산언덕이나 강둑 잔디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쑥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그런 까닭에 쉽게 나른해지고 입맛을 잃기 쉬운 봄철이면 사찰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쑥국, 쑥개떡, 쑥칼국수, 쑥시루떡 등을 즐겨먹었다.

봄을 맞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도 녹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모든 영양소의 균형있는 공급이 필요한데, 영양소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최근 광우병, 구제역 소동으로 육식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자연식을 제공하는 채식 전문 식당과 사찰음식전문점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 출판가에도 이미 사찰음식이 중요한 테마로 부상했다. 97년 김연식씨가 펴낸 〈한국사찰음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정세채씨의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적문스님의 〈전통사찰음식〉 등이 잇따라 발간돼 사찰음식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했다.

이같은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봄을 맞아 EBS와 SBS-TV에서 사찰음식, 채식의 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초록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채식의 기원이자, 수행의 한 방편인 사찰음식의 유래와 조리법을 집중 조명한다.

26일-30일까지 방송되는 EBS-TV '최고의 요리비결-사찰음식(오전 9시 30분-10시)'은 사찰음식에 담긴 세 가지 맛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료 자체가 주는 '음식의 맛',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기쁨의 맛',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기의 맛'이 불교에서 말하는 음식의 세 가지 맛. 이 프로그램에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선재스님(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이 직접 출연해 쑥과 고수, 머위, 곤드레, 원추리 등 봄나물의 약효와 이를 이용한 요리법을 상세히 일러준다.

SBS-TV 생방송 모닝와이드의 세미타큐멘터리 '채식의 힘-채식의 원조 사찰음식(오전 7시50분~오전 8시)'은 채식 위주인 사찰음식에 숨겨져 있는 맛과 영양, 삶의 지혜를 조명한다. 3월말 방송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사찰 식단의 주 메뉴인 죽, 나물, 김치 등을 통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건강 비결을 밝혀낸다.

'채식의 원조 사찰음식'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윤동혁 PD는 "사찰음식은 천연 재료와 조미료를 절제한 조리법, 소식 위주의 식단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지혜로운 우리고유의 음식문화"라면서 "사찰음식이야말로 음식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아주고,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21세기형 생활식단임을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겠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은자 · 김주일기자 (elee@buddhapia.com)



◇EBS-TV '최고의 요리비결'에서 봄나물을 이용한 사찰음식 조리법을 설명하는 선재 스님.

가족 음악극으로 만나는 '서유기'



◇한중일 3개국의 배우가 함께 공연하는 '서유기'는 신체언어와 음악에 중점을 두었다.

23·24일 예술의 전당

한·중·일 합작 공연

한국 · 중국 · 일본 3개국 극단이 공동으로 중국 고전 '서유기'를 극화한 가족 음악극이 오는 23~24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지난 1월 일본 도쿄(東京)를 시작으로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순회공연에 나선 이 작품은 극단 〈즐거운 사람들〉과 일본 극단 〈가게보우시〉, 중국 〈베이징(北京)시 아동예술극단〉, 홍콩 〈중영극단〉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했다.

이 작품은 '서유기' 가운데 삼장법사 일행이 폭 600리의 통천하에 사는 영감대왕과 대결을 벌이는 '통천하(通天河)' 대목을 극화한 것으로 3개국 배우들이 각자 모국어로 극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대사보다는 몸짓이나 행동 등 신체언어와 음악을 사용한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우야마 히토시가 주연출자지만, 이번 한국 공연에는 '여로'의 김창래씨가 함께 연출한다. 손오공과 삼장법사 역에 일본의 사토 준과 고비야마 요이치가 각각 출연한다. 02)745-5127

김기철 여덟번째 개인전 '윤회'

14~20일 공평아트센터

독특한 신작 41점 전시

윤회와 고리를 주제로 작품세계를 펼쳐온 화가 김기철씨가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여덟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한지를 소재로 한 독특한 기법의 그림을 선보이는 김씨는 흡사 고행같은 작업과정을 거쳐 총 41점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한지 위에 적청황, 혹은 흑백을 추가한 오방색을 겹겹이 칠한 뒤 약품으로 정성들여 닦아내고, 때로 칼로 한지를 오려 한겹 벗겨내 바탕화면을 만든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탕화면에 펼쳐내는 그의 그림은 미리 그어놓은 칼자국을 따라 먹이 스미고 번지는 효과를 적절히 이용해, 시각적 효과를 연출해 낸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2년간 김화백이 구도하듯 제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작품의 크기 또한 360호 대작을 비롯해 대부분 100호가 넘는다. 여인의 나신과 새, 꽃, 물고기, 달 등의 형상으로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신묘함을 작품마다 그려내고 있다. 특히 한지를 바탕으로 아크릴과 채색을 이용한 '고리' 연작이 넓은 전시장을 장식하게 된다.



◇김기철 作 '고리'.

김씨는 서울전에 이어 23일-29일에는 부산 롯데화랑에서도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02)733-9512 이은자 기자

문화소식

부산 BBS합창단 창단연주회



부산불교방송은 개국 6주년을 맞아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부산불교방송합창단 (단장 홍순남)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부산불교방송합창단은 98년 합창단 창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연주회에서 〈반야심경〉 〈우리도 부처님같이〉 〈무상〉 등을 선보였으며, 소프라노 김현숙 부산불교연합합창단 불교방송합창단 가톨빈가 테너 시명스님 등이 찬조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부산=천미희 기자

문화부, 한국문화상징 사진공모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홍보책자에 수록할 '한국문화상징 C.I.(Corporate Identity) 베스트 10' 사진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한국문화상징 사진 공모는 올해 한국 방문의 해와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재는 한복, 한글,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김치, 불고기, 고려인삼, 설악산, 종묘제례악, 탈춤, 세계적 한국 예술인과 관련한 것이면 되고, 문화부 문화교류과로 제출하면 된다.02)3704-9540.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시공 꿰뚫어 내 마음 속 우주 담는다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

인간이 종교적 체험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예술적 체험을 할 때는? 그것을 알려면 사랑을 느낄 때를 상상해 보면 된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영적이거나 예술적인 체험과 사랑은 그 뿌리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참선이나 기도에 열중하여 깊은 삼매에 들면, 시간은 고무줄처럼 한없이 늘어지고 공간은 허공처럼 안팎이 텅 비고 만다. 예술적 체험을 할 땐, 무언가 응축된 에너지가 나를 통해 분출하는 것 같은 열정에 사로잡힌다. 문득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 순간적인 도약과 함께 피안의 세계가 눈앞에 열리기도 한다.

인간은 시공간 내의 존재다. 세계(世界)는 시간(世) 더하기 공간(界)이다. 우주(宇宙)도 마찬가지다. time + space가 world라는 말이다. 인간은 온갖 사물을 시공간 속에서 접촉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체험은 시공간체험으로 환원된다. 그런데 일상의 경험은 시간과 공간이 따로 느껴지지만, 존재를 체험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 곱해진다. 그것을 4차원이라 한다. 그 세계는, 수십억년 동안 진행해온 진화과정이 짧은 시간 내에 그대로 재현되는 어머니의 태 속과 같다. 난자와 정자라는 단세포가 만나 열 달 이내에 복잡하기 그지없는 고등동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4차원적 경험이란, 작은 시공간 속에서 무한을 맛보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초기 낭만주의 시인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는 시집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시공간이 과학에 의해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으로 나뉘면서 파생되는 근대물질문명의 폐해를 날카롭게 예언하였다. 그의 시 '순수의 전조'의 첫 연은 4차원적 경험을 통해 파악한 우주의 본질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한 알의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너의 손바닥 안에 무한(無限)이 있고
한 순간 속에 영원(永遠)이 있다

불교에서 이런 시공간 체험을 가장 잘 해설해 놓은 것은 〈화엄경〉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화엄경의 주체는 바로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정각(正覺)이야말로 한없이 작은 한 인간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 우주 공간과 시간을 꿰뚫어 본 증거이다. 자신 속에 우주 전체를 담아본 그 체험의 한 복판에 연기법(緣起法)이 있다. 현재의 나는 과거 무한한 시간 동안 지어온 업의 결과이며, 지금 내가 짓는 인연의 결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에 그대로 받게될 것이다.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현재의 찰나 속에 과거와 미래의 무한한 시간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내가 선 이 자리는 무한한 우주 공간과 그대로 맞물려 있지 않은가?

이 경지를 화엄경에선 월인천강(月印千江)으로 비유하고 있다. '동산 위에 달이 뜨니 강물마다 달도장'이 찍힌다는 것이다. 스케일이 더 커져 바다 전체에 달도장이 찍히는 것을 해인(海印)이라 한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황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내가 그 달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천하에 나 아닌 것이 있겠는가? ■문학평론가

실표등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 에 전혀 발열이 없음.
- ◎ 주문시 법당 일년등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011-599-828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주)TG 반도체

새천년의 발원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기등 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 강) (핑 크) (노 랑) (연 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 강) (노 랑)

만 월 등



(핑 크) (노 랑)



(오 색) (차걸이등)



(오 색) (만월장등)



원조임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작지만 알찬 내용담아 '선의 대중화' 앞당겨

한 때 읽기 쉬운 불서를 접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수많은 불서들이 출간돼 불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출판 문화의 발전에 있어 희생적인 '작은 손'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상업출판이 아닌 신행의 길잡이를 주목적으로 법보시용 불서를 내놓는 사람들도 그중 하나다.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성본(동국대 선학과 교수) 스님은 지난 99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좌선으로 초대〉, 〈염불수행〉, 〈참선수행〉, 〈선불교의 이해〉을 비롯해 최근 출간된 〈선의 풍토〉까지 모두 7종 10만 여권을 내놓아 '교학을 토대로 신행하자'는 새로운 신행풍토를 형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장점은 선의 이론에서부터 실수(實修)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쉽게 요점만을 간추려 적고 있다는 점이다.

책과 삶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내는 성본 스님

'좌선으로의 초대' 등 7종 10만여권 법보시

성본 스님은 이 시리즈의 출간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행을 지도하는 것이 정각원의 본래 역할이지만 정기법회를 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 기획한 것이 바로 이 시리즈다."

이 시리즈는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70%정도) 동국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전국의 승가대학과 군법당 등에 무료 법보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곧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법보시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를 판매하는 것은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책을 발간하기 위한 기금마련의 방편이다.

스님은 "교양대학이나 신행단체 등에서 교재로 사용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한다. 지금까지 출간된 시리즈 가운데 가장 호응도가 높은 책은 첫 권 〈좌선으로의 초대〉와 〈염불수행〉이다. 특히 좌선과 좌선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선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좌선으로의 초대〉는 2년 간 3만5천부(4쇄)를 출간했다.

스님은 올해부터 정각원장직을 그만뒀다. 하지만 현 원장인 도업 스님과 협의하여 이 시리즈를 계속 출간한다는 방침이다. 성본 스님은 "올바른 신행은 확고한 교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선 관련 분야가 주종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분야와 필자도 다양화해 매년 2권 이상 50여권을 펴낼 생각이다. 물론 책의 내용도 모두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조사선 본질 – "말끝에 단박 깨닫는다"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태완 지음

육조 혜능과 그 문하의 선승들을 중심으로 중국 조사선의 '본질을 파헤친 연구서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장경각)이 나왔다. 글쓴이는 '중국 조사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태완(부산대 철학과 강사)씨. 그는 선불교의 종파와 종류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조사선 태동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조사선의 특징은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스승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깨침을 얻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조사선의 출발을 마조와 석두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그는 혜능을 개창자로 마조와 석두를 완성자로 그 문하의 오가칠종까지를 전개로 보고 있다. 조사선의 시작을 혜능으로 본 이유는 마조와 석두에서 오가칠종까지 전개되는 선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정혜불이(定慧不二)의 불이법과, 선지식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言下便悟 · 말 끝에 곧 깨닫는다)가 혜능의 선법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ㄱ 책은 혜능에서 시작하여 마조에서 완성되고 그 문하에서 풍미한 중국 조사선의 본질을 실천과 사상 두 측면으로 나눠 고찰한다. 실천적 측면은 직지인심(直指人心)과 견성성불(見性成佛)이며, 사상적 측면은 심성관(心性觀)과 수증관(修證觀)이다.

ㄱ 가운데 견성성불 편에서는 조사선의 가장 큰 특징인 선문답을 통하여 견성을 추구하는 일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살피고, 견성 체험의 일화 가운데 마조의 경우를 대표적 모델로 선정하여 견성 체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조사선이 스승과 제자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통하여 이심전심을 실천하는 선법임을 강조한다. 또 수증관 편에서는 조사선의 어록과 〈전등록〉에 나타나는 선사들의 공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선에서의 공부방법, 학선수도(學禪修道)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고찰한다. 이와 함께 혜능의 수증관이 중국 선종의 사상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혜능에서 임제에 이르는 조사들의 수증관 특색 등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조사선 혜능 개창 마조 완성

사상 · 실천 예리한 고찰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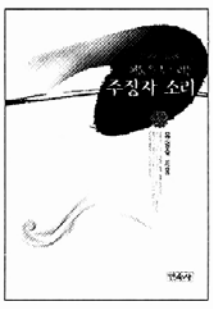
특히 글쓴이가 역점을 기울이는 부분은 혜능과 그 문하가 이전의 점수선을 극복하고 새로이 행한 돈오선의 본질은 어떤 것이며, 어떤 점에서 점수선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오늘날의 한국 선종에서 행하는 돈오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맥락이 닿는다는 점에서 눈 여겨 볼 만하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는 조사선을 다루는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적 안목을 가진 글쓴이가 조사선 어록에 두터운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어둠을 두드리는 주장자 소리'

유영숙 지음



불교 중흥조 태고 스님 진솔한 생애

1347년 11월 24일, 중국 원나라 수도 연경의 거찰 영녕사에서 새 주지를 모시는 개당법회가 한창이다. 법당에는 황제 순제를 비롯해 원나라를 대표하는 고승과 원로대신들이 빽빽이 앉아 있는 가운데 고려의 한 스님이 법상에 올라 설법을 한다. "무엇이 최상의 종승인가…."

고려인으로서 원나라 황제의 절을 받으며 불법을 설파하면 스님, 중국인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법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 그가 바로 원증국사 태고보우(1301~1382)다.

1346년 원나라로 가 중국 선종의 법맥인 임제종 18대손 석옥 청공으로부터 인가 받은 스님은,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 뿌리내린 중국 선종을 이어받는다. 이는 중국선이 고려로 옮겨왔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10여 년의 중국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스님은 왕사로 책봉돼 조계종을 부흥시킨다. 이로써 고려 불교의 순수한 정신이 되살아나고 조계종의 법맥이 계승되어 현재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 모두의 중시조가 된다.

신간 〈어둠을 두드리는 주장자 소리〉(민족사)는 유영숙(서울대 강사) 씨가 〈태고화상어록〉, 〈조선불교통사〉 등 보우 스님에 관한 자료와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을 일일이 답사하고 쓴 평전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법정 스님 산방수필 전집나온다

샘터사 '서있는 사람들' 등 9권 묶어

30여 년 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법정 스님이 책이 전집으로 출간된다.

샘터사는 최근 출간된 〈서 있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1~2개월 간격으로 9권의 전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출판사측은 "초반기부터 현재까지의 글과 스님의 삶의 기록들이 낱낱이 담겨 있어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업이다"고 전집 출간 의의를 밝혔다.

1970년대 개발 득재시대에 집필한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오는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에 관한 사색의 글이 담겨 있다. 지식인의 허상, 불신사회, 물질만능주의, 부도덕한 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는 오늘날에 다시 읽어도 그 메시지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겨레의 얼과 문화 뿌리 찾기

우리 문화 모태를 찾아서

"불교의 건축과 미술 등의 양식이 인도에서 전해진 불경에 기초함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표현은 한민족의 전통이 적용됐다. 한국의 불교문화는 한문화(韓文化)에서 볼교적 특색을 지닌 사랑방문화다."

해방 이후 첫 미국 유학생으로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구조공학을 전공한 건축가 조자용(1926~2000) 씨. 하지만 그는 건축가보다는 '우리 민족문화의 모태(母胎) 찾기'를 평생 화두로 삼아 삼신사상이라는 민족의 뿌리를 파헤친 모태문화 · 민(民)문화가로 더 알려져 있다.

〈우리문화의 모태를 찾아서〉(안그라픽스)는 그의 작고 1주기를 맞아 그 동안의 글들을 모아 출간된 책으로 한국의 얼과 한국의 핏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문화의 멋', '한국 민예 예술의 멋',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전통을 찾아서', '민족문화의 상징들'로 나눠 우리의 민문화를 재해석한 이 책은, 글쓴이가 민족신앙의 모태인 삼신신앙을 찾아 전국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서민예술의 정체를 파헤치거나, 불교문화 속에 깃든 우리 겨레의 혼을 읽어내는 글쓴이의 체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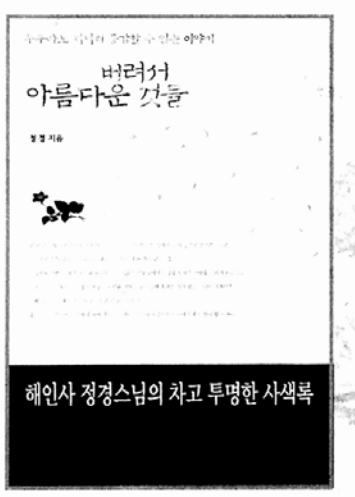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2	한국의 불교의례	정 각	운 주 사
3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 · 류시화	이 레
4	금강경 강의	혜 거	브리스트웹 닷컴
5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7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르샤	청 하
8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섭	컬처라인
9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10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 은 날

도서 안내 : (02)737-0695

세상에는 버려야만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해 · 인 · 사 · 정 · 경 · 스 · 님 · 의 · 차 · 고 · 투 · 명 · 한 · 사 · 색 · 록

버려서 아름다운 것들



정경스님 지음, 신국판

"보이는 것, 보는 것을 잘 봐야 내 몸에 행복을 담지."

복잡한 생활, 어지러울 정도의 관습들을 꿰뚫는
맑은 한 가닥 선이 두 눈과 정신을 관통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간결하기만 한
행복의 의미와 만나게 된다.
하나만 더 가지려는 것, 하나만 더 구하려는
그 탐욕을 놓아버리는 순간이라야
우리는 우리를 행복의 테두리에 가둘 수 있게 된다.
하루 한끼 생식으로 20여 년 수행에만 정진하고 있는
정경스님의 쇠처럼 단련된 언어가 '버리는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하늘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BD 302호
전화 (02)720-3211 · 팩스(02)720-0312
http://www.hnp.co.kr * e-mail · hanam@hnp.co.kr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하루에 3천배를 1,000일간 하여 300만배를 하고 하루 만배씩 100일간 하여 100만배를 하였으며 지금도 하루 최소 108배를 3회 이상 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



청견 스님 지음
값 6,500원

하는 일이 막히고 잘 안풀리지는 않습니까?
몸이 허약하고 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꿈을 자주 꾸고 악몽에 시달려 잠못 이루십니까?
뜻을 세워 무언가를 꼭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꼭 이 책을 읽고 절을 해 보십시오 !!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은 반드시
여러분께 속시원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절 수련 특강
• 일자 / 3월 21, 28일 / 4월 18일, 25일 (수)
• 시간 / 15:30~17:30
• 동참비 / 40,000원(2회), 선착순 10명
• 장소 / 마야 문화원
• 접수문의 : (02)722-1050 · 722-0293

도서 출판 붓다의 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옛 갤러리 405호
· 전화 : (02)722-0292, 722-0293
· E-mail : bdland@chollian.net

■ 근부대, 교도소, 영가천도, 49재 등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법보시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禪, 언어학적 연구 필요"

한국선학회 월례발표회 김태완 - 송인성 씨 제기

깨달음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금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껏 별다른 저항없이 선불교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면 선의 세계를 언어로 다가가겠다는 시도는 불가한 일인가? 물론 이런 물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이른바 게송이라는 것도 정교한 언어 구조물임을 볼 때 선의 세계에 언어로 다가가고자 함은 자연스런 일이기도 하다.

한국선학회의 17일 월례발표회에서 김태완(부산대 강사) 씨는 '선, 언어, 선학-좋은 선학을 위한 하나의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선어(禪語) 연구의 필요성을, 이어 24일 열리는 선어록연구회의 첫 논문발표회에서 송인성(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씨는 '〈조당집〉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선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즉 비언어적인 체험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는 언어학적인 접근으로 선의 세계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부정됐다. 선어록이 선을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지침서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연구 · 번역서가 일본이나 중국의 성과물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씨가 논문에서 "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언어"라며 "선을 연구하는 선학(禪學)이라는 차원에서 선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은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선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 널리 읽히는 주요 선어록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국 불교의 선사상이 선교합일의 전통을 세운 보조 스님에 의해 출발한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스님이 꽃피운 선학의 방법론 역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의 주장이 선어 연구의 필요성 제기라면 송 씨의 주장은 선어록 연구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를 제시한다. 송 씨는 논문에서 우선 〈조당집〉을 예로 언어학적 관점을 배제할 때 범할 수밖에 없는 번역의 오류를 지적했다. 송 씨에 따르면 〈조당집〉에는 당 · 송시대의 속어들이 나오는데, 잘못 풀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차(要且)는 '요컨대 · 결국 · 어쨌든'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여전히'로 보아야 하고, 조만(早晩)은 '조만간'이 아닌 '언제'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송 씨에 따르면 언어학적인 무지에 따른 이러한 오역은 〈경덕전등록〉, 〈벽암론〉 등 선어록 번역서 대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씨는 "선어록 번역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고 선어록 관련 '언어 입문서', '역주본', '사전' 등을 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호(동국대 선학과 전임강사) 스님은 "선사들은 깨달음의 경계를 게송으로 표현했지만, 언어로만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한다"며 선에 대한 언어학적인 접근을 인정하면서도, 실참수행을 외면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회사 대웅전 내부 공포 단청.

나주 불회사 대웅전 '보물' 지정예고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다포계 건물인 전남 나주 불회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회사 대웅전을 8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조선 정조 23년(1799)에 중건된 불회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외부 양식은 흔히 볼 수 있는 조선후기 다포계 건축양식에 속한다. 그러나 가운데 칸의 양 기둥 사이로 두 마리의 용을 조각하여 머리는 밖으로 나오게 하고, 꼬리는 건물 안쪽 대들보 밑에서 멈추게 한 수법이 부안 내소사 대웅전(보물 제291호) 등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한 사찰건축수법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건물 내부 장식 또한 화려하다. 우물 정(井)자 모양의 천장에는 양쪽 대들보 사이로 역시 두 마리의 용을 조각하여 서로 중앙을 향해 마주보게 했다. 천장 주위에도 장식을 했는데 22개의 벽화(가로60cm×세로60cm)를 그려 대웅전의 장엄미를 돋보이게 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만공스님의 선학원 설립 日 사찰령 맞선 항일운동"

이재헌 박사 주장



독립운동하면 무장 항쟁이나 투옥 등의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일제 강점기 내내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데 노력한 것 역시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이 아닐까? 이재헌(강남대 강사 · 사진) 씨는 30일 수덕사에서 '만공과 한국선'을 주제로 열리는 무불선원(이사장 법장)의 제3회 학술회의에서 '만공선사와 독립운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독립운동가로서 만공 스님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 씨에 따르면 만공 스님(1871~1946)이 일제 강점기에 보여준 행적은 사찰령이나 불교병합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풀이 되며, 이는 일본의 통치체제에 맞선 독립운동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우선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사찰령이 한국 불교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총독부의 의도라는 것을 간파한 만공 스님이 선학원을 설립한 것에 주목했다. ○○사(寺)나 ○○암(庵) 등의 이름을 피한 게 일제의 사찰령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스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이는 그 자체로도 항일운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씨는 만공 스님이 1933년 3월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불교 진흥책을 논하는 31본사 주지회의에서 "총독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라며 일본과 한국불교를 통합하자는 조선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한 일화며, 전국 31개 본사 주지 가운데 유일하게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던 데도 주목했다.

이 씨는 결론에서 "불교계는 지난 역사를 연구해서 항일 의미를 찾는 노력을 등한히 했다"며 군자금 모집, 독립지사의 은거지 제공 등 사찰 특유의 독립 운동과 관련된 비화 발굴을 통한 관련 학계의 연구를 촉구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만공의 불교사적 위치(김종명), 만공의 선사상(효탄 스님), 만공의 법맥(박해당), 만공이 현대 한국선에 미친 영향(이덕진) 등도 발표된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조선불교 연구방향 모색

조계종 제22교구 대둔사(주지 보선)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조선불교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선시대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보선 스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될 이번 세미나에는 김상현(동국대) 교수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방향',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이 발표된다. (061)534-5502

'신라문화' 17 · 18 합집

신라문화연구소에서 〈신라문화〉 제 17 · 18 합집을 발간했다. '삼국시대의 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논집에는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인의 신선신앙(전호태), 백제 불상의 훼룡문계 화염광배(곽동석), 부여 능산리사지(김종만),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노중국), 원효와 경흥의 〈금광명경〉 주소에 나타난 신라의 천문 성숙 세계관(김일권), 신라하대 양제에 관한 일시론(윤선태) 등이 실렸다. (054)770-2502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여의주 희롱하는 두마리 용

의상과 선묘이야기②

도업스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장〉



의상과 선묘에 관한 얘기는 송나라의 찬녕(919~1002)이 982년부터 988년에 걸쳐 편찬한 〈송고승전〉의 '당신라국의상전'과 고려의 일연(1206~1289) 스님이 1282년경에 쓴 〈삼국유사〉의 '의상전교(義湘傳敎)'와 일본의 명혜(明慧 · 1173~1232) 스님이 1228년경에 쓴 〈화엄종조사회전〉(일명 '화엄연기')라고도 하는데 일본 국보다)에 전하고 있다.

찬녕의 잘못된 신라 인식

이 세 가지 자료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찬녕의 〈속고승전〉이다. 왜냐하면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에 의상에 관한 기록을 전하면서 '최치원 본전'과 '원효대사의 행장'에 의해 말하고 있으며, 일본의 명혜의 '화엄연기'는 〈송고승전〉의 의상전 가운데 의상이 신라를 출발해서 당나라에 도착한 후 등주에 머물던 장면과 선묘가 의상 스님을 위해서 법복을 장만해 두고 기다리다 어느 날 의상 스님이 신라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나가 "원하옵나니 이 몸이 변하여 큰 용이 되어 배가 무사히 신라에 도달하여 화엄 대법을 전하기를 서원하옵니다"라고 발원하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까지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고승전〉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상과 선묘 이야기의 근본 자료는 송고승전의 '당신라국의상전'임을 알 수 있다.


◇등주 해변에 있는 석룡 조각. 이를 기점으로 황해와 발해로 나누어진다.

산동성의 넓이는 한반도 전체보다는 약간 좁지만 당시의 신라보다는 몇 배나 더 넓으며 인구는 남북한보다도 더 많다. 찬녕이 '당신라국의상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신라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한 성(省)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라 생각된다. 일본의 〈불서해설대사전〉에서 〈송고승전〉을 해설하면서 '당원효', '당의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 의문점인 의상과 선묘 이야기는 실화일까 설화일까. 연세대학교의 민영규 박사는 사상계 51호에 "부석사와 선묘 설화"라는 글을 실고 있다. 의상과 선묘 이야기는 설화라고 단정하여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선묘 이야기는 설화가 아니라 선묘는 등주에 살았고 의상 스님을 사모했고, 화엄법사를 외호하는 화엄선신이 되겠다고 발원하고 바다에 뛰어든 낭자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봉래각에서 동북쪽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뛰어갔다. 선묘가 죽어서 용이 되었다면 이곳 어딘가는 틀림없이 용에 관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봉래시에서 등주(登州)로를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면 북관로가 나온다. 북관로에서 좌회전해서 북으로 가면 농아학교가 있는 5거리가 나온다. 그 5거리에서 좁은 길을 따라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전횡산이 나온다. 전횡산에서 바다를 향해 서면 오른쪽으로는 봉래 해수욕장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고 왼쪽으로는 의상스님이 천신만고 끝에 도달했을 듯한 봉래항이 있다. 봉래항을 향해 가던 필자는 "아! 저것이다" 라고 탄성을 질렀다.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높이 3.5미터의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면서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는 석조상이 그곳에 있었다. 이곳은 이 석조상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발해 오른쪽은 황해라 불리고 있는 곳이다.

등주 바다에 몸 던진 선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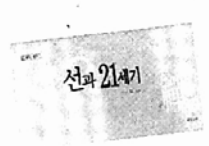
의상스님께서 이곳에 오실 그때부터 이곳은 용신앙이 깊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용신(龍神)은 화엄경 '세간정안품'에 보면 항상 부처님을 위해서 도량을 장엄하는 신이며, 불법과 화엄법사를 옹호해 주는 화엄신중 가운데 하나다.

의상스님과 선묘 이야기는 실화반 설화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묘가 의상스님을 만나 사모의 정을 품고 기다리다 이 등주 바다에 몸을 던진 것까지는 실화다. 그리고 용으로 변한 것은 이 지방의 용신앙에 기인한 것이며 선묘의 죽음을 화용(化龍)의 설화로 승화시킨 것은 찬녕 스님의 뛰어난 작품이다.

佛의 세계

극에 달한 물질문명과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선과 21세기



담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저자가 몸소 체험한 선 이야기를 펜으로 옮겨 본 것이다.
극도로 오염되고 훼손된 정신세계의 복원과 인간성 회귀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요즘 들어 일기 시작한 고전 붐에 편승하기에 앞서 선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저자가 쉽고 편안하게 들려주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서의 선의 역할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해 놓고 있어
현대인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안내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주리라 믿는다.

석원연 지음/값 6,600원

선방의 아침

선당 생활을 체험한 선승이 직접 쓰고 그림까지 곁들인 안내서

선방의 세계에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품어봄직한 궁금증에 대한 해설서인 동시에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모든 현대인들의 교양서

함께 건너는 세상

짧은 글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현대인들의 화집

도서출판 들꽃누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72-70 연남빌딩 4층 전화 02)3672-1387 팩스 02)762-1387 E-mail : draba21@dreamwiz.com

2001년 포교사 대학 입학안내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고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범)종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시간
주 2일 월 · 수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야간수업
직장인을 위한 야간(토요반)운영 ◎ 개강 : 3월 19일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화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식
2학기 - 근본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사회복지론, 선문염송, 생활불교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화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특강,
2학기 - 불교경전 개설,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원각경강독, 불교상담론

◎ 강사진
무진장스님, 법산스님, 운곡스님, 오국근교수, 오형근교수, 리영자교수, 서윤길교수, 박경준교수, 한정섭박사, 이혜숙교수, 김사업박사, 경임교수 ; 이보봉스님, 문보경스님, 노범산스님, 장각성스님, 구해스님, 최홍주법사, 최중찬교수, 이건호회장, 김철회회장, 임선정원장, 허은법사, 곽태일법사, 김일룡법사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신 100명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선착순 등록금(1학기) 30만원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증,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증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임, 종단 추천 스님(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이사장, 학장, 교수, 봉사, 기타)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이혜철

중국최고 국립한약대학

산동 중의약대학 학생모집

모집요강

■ 한의대학생 모집

학 과	학 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과 관계없음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2 유학생 신청서 1통 3 여권용사진 8매 4 국제 건강 진단서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학교소재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제약공장, 교육병원, 제약연구소 등
▶ 외국인 기숙사 완비
▶ 군입대 연기 (6년)

■ 주소 : 中國濟南經十路53號
■ 중국학교 전화 : 0531)296882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51)626-4730 · 051) 469-1239
H.P : 016)9833-77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습관으로 문의 바람

대한불교 약사종 총무원

"공덕을 꾀하는 일로 깨달음 이룰순 없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㉓

㉒ 확연무성(廓然無聖)

무제는 달마가 자기의 공적을 깡그리 무시하자 섭섭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다.

"그렇다면 조사가 말하는 참다운 공덕이란 무엇이오?"

"맑은 지혜가 묘원(妙圓)해지면 몸이 절로 공적(空寂)해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참 공덕인데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

무제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그렇다면 짐이 지금까지 부처님을 섬긴 것이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오?"

달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가볍게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러나 무제는 집요했다. 계속 답변을 촉구했다. 달마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무제는 집요했다

달마는 무제가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무제가 부처를 공경해 온 본래 의도가 자신을 위해 공덕을 세우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 황실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를 턱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천리 길이 넘는 먼 곳에서 초청해 온 것도 실상은 달마의 입에서 공덕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황제의 위신을 한층 높이고자 한 것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달마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이상 절대로 응할 수 없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가 동쪽 땅으로 건너온 것은 오직 참다운 선법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와서 그 결심을 꺾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제는 노여움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마엔 푸른 힘줄이 불끈 솟았다. 문무백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달마를 혼내 줌으로써 성상의 체면을 살릴 묘책을 찾기에 바빴다. 누구보다도 앞장 서 나온 것은 무승 철타였다.

"성상께서는 극진히 부처를 섬기시고 세 차례나 동태사에 사신(舍身)까지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행을 했는데 어째서 공덕이 없단 말이오?"

이쯤 되면 더 이상 답변을 피할 수가 없었다. 달마는 천천히 일어섰다.

"성상께서 성심을 다해 부처를 섬긴 것은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본 것이고 진실로 칭송 받아 마땅하오. 그러나 노납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소이다. 성상께서는 이 나라의 천자(天子)이십니다. 만일 치국안민(治國安民)에 전력을 다하신다면 그것이 곧 불심(佛心)을 보여주는 것일텐데 굳이 몸을 던져 동태사에서 중노릇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노납이 듣건대, 성상께서는 세 차례나 동태사에 사신하였고 그때마다 대소신료들이 수많은 금과 은을 헌금하고 다시 모셔왔다던데, 그런 것은 공덕과 거리가 먼 것이외다. 그렇게 백성들의 재산을 소모하고 국고를 비우는 것을 어찌 공덕이라 할 수 있겠소?"

무제의 진노는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리곤 달마를 노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대가…, 그대가 감히…."

무제는 삿대질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했다. 신하들도 노기가 충천했다. 달마의 말은 분명 무제를 깎아내리고 신하들의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신하들 가운데 좌장격인 정각이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당장 사과하시오. 여러 대신들이 성상의 속전(贖錢)을 바친 것은 이 나라에 하루라도 폐하가 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오. 속전으로 낸 금과 은도 모두 절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데 썼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 불법을 널리 알리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사용했소. 어떻게 이것을 질책할 수 있단 말이오."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다. 그러나 달마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조사는 정각과 여러 대신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지극히 옳은 것이외다. 노납은 결코 성상을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절을 짓고 수리하여 널리 보시하는 것은 천축 역시 이 나라에 못지않소이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민생(民生)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 것이오? 국력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이오? 그렇게 해서 과연 중생을 고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겠소? 깨달음이란 안으로 본심을 증험하고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어서 마음을 명경지수(明鏡止水)같이 맑게 하여 본성을 보는 경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법이외다. 공덕을 꾀하는 따위로는 어림도 없소이다."

"그 입을 닥치지 못하겠소."

무제가 벼락같이 소리질렀다.

"절을 지은 것도 공이 없고 수계한 것도 덕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렇다면 조사라는 당신은 왜 가사를 입고 총림을 떠돌고 있소? 당신 같은 언동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 망령되이 조사라고 칭하기까지 하다니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소."

"하, 하, 하…."

"당신이 무슨 조사냐"

그 자리에 있던 문무백관들이 모두 통쾌하다는 듯 웃어댔다. 그 웃음 속에 비웃음이 섞여 있음은 물론이다. 일부 대신들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당신이 무슨 조사야. 가짜가 틀림없으렸다."

이렇게 소란한 틈을 타 무승 철타가 달마에게 무례하게 덤벼들었다.

무제는 삿대질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하고 신하들도 노기가 충천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정체를 밝혀라. 네가 조사를 사칭하고 감히 성상을 희롱하다니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달마 조사는 자기가 말한 심요선법(心要禪法)을 무제가 전혀 깨닫지 못하자 적잖이 실망했다. 기회와 인연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법임을 새삼스럽게 실감했다.

무제는 신하들의 충성심에 감격했다. 그러나 앞에 서 있는 달마는 아무리 봐도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 의연함이 분위기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무제는 다시 한 번 달마와 담판을 벌일 생각이었다. 이른바 '황제 대보살'이라고까지 칭송 받는 처지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수행에 출중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로서는 제아무리 조사라고 할지라도 설복시킬 자신이 있었다.

사실 무제는 평상시에도 승복을 입고 지낼 정도로 경전 읽기와 염불이 곧 생활 자체였다. 나이 50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채식(菜食)만 했고 여색(女色)도 끊었다. 궁중에 있던 궁녀들은 모두 니승(尼僧)으로 귀의시켰다. 심지어는 죄지은 자에게도 자비심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지방에서 사형이 집행됐다는 보고가 올라올 경우엔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마침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까지 엄명을 내렸다. 이런 신심과 수행으로 말미암아 무제는 86세의 수를 누렸다. 이것은 당시의 황제로서는 보기 드문 장수였다.

무제는 신하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고 무승 철타를 제지했다. 깊은숨을 한 번 내쉬고는 근엄한 목소리로 달마 조사에게 물었다.

"짐이 다시 한 번 묻겠소. 불교의 성스러운 교의(敎義) 가운데 첫째는 무엇이오?"

이것은 〈벽암록〉에 쓰여 있는 '여하시성제제일의(如何是聖諦第一義)'의 질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달마의 처지에서 볼 때 질문거리조차 안 되는 것이었다. 신앙의 본질이라곤 전혀 알지 못하는 유치한 질문이었다. 달마는 한 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런 것은 없소이다."



◇적광스님 作 달마도(중이에 수록).

즉 '확연무성(廓然無聖)'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확연'이란 '텅 빈 것'을 이르는 말이다. 차별이나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속인(俗人)들은 무엇이든지 비교하거나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사일 뿐이다. 불도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일체차별상(一切差別相)을 끊은 자율자헙(自律自愼)의 대법(大法)엔 성(聖)도 범(凡)도 없다는 뜻이다. 이런 대승의 바른 가르침을 무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달마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달마를 향해 칼 던져

"무엇이라고?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군가?"

달마는 한 마디로 잘라 대답했다.

"모르오."

즉 '불식(不識)'이라고 했다. 여기서 '불식'은 단순히 '모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알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식'의 본래 뜻은 이른바 '식(識)'의 차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몸으로 깨닫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고차원의 대답을 무제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무제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멈칫했다. 달마는 작별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참례전 문을 나섰다. 무제의 성난 눈빛이 달마의 등 뒤에 꽂혔다. 그런 오만과 무례를 결코 용인할 수 없었다. 그는 달마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런 미친 놈의 중 같으니…. 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무제의 말 한 마디는 그대로 법이었다. 무승 철타는 비호같이 몸을 날렸다. 달마를 체포하기 위해 호위군사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달마의 발걸음을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철타는 최후 수단으로 암도(暗刀)를 꺼내더니 달마를 겨냥해 던졌다.

달마는 등 뒤에서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직감했다. 등 뒤로 손을 뻗쳐 손가락 끝으로 날아오는 암도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여유만만하게 잡아냈다. 그는 철타에게 준엄하게 말했다.

"우리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 이 참례전에서는 살생이란 있을 수 없소이다."

달마 조사는 손끝에 잡고 있던 비수를 땅바닥에 던졌다. 그 자리에서 암도는 '뗑그렁'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나 버렸다. 달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 광경을 지켜본 무제와 신하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멍하니 있었다. 그러나 체면을 구긴 철타는 가만 있지 않았다.

"미친 중놈아. 게 멈춰라."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움켜잡고 뒤쫓아갔다. 달마는 빠른 걸음으로 철타의 추격을 피했다. 그러나 금릉의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이곳 저곳을 헤맸다. 마침 해가 서산으로 떨어지면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금릉의 북쪽 산기슭에 도착한 달마는 더 이상 갈 길이 막막했다. 멀리 산 아래쪽으로 어슴푸레 큰 강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 보니 과연 여울물소리가 들려왔다.

달마는 문득 스승 반야다라 존자의 게송이 머리에 떠올랐다.

"길을 가다가 물을 건너고, 다시 양을 만나니, 홀로 여유 있게 강을 건너간다."

강가로 걸어가면서 달마는 마음 속 깊이 희열을 느꼈다. 오래 전 일이었지만 스승께서 앞날을 헤아려 내려주신 게송이 그대로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이제 양 나라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지 않은가. 게송대로 강을 건너기로 마음먹었다. 강을 건너면 바로 북위(北魏)땅이다. 달마는 그 곳이 법연(法緣)의 땅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레었다.

한데 바로 그때 언덕 너머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제(濟)를 가지고 선(禪)을 시험해…"의 濟는 齊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키슈지 마세요. 만병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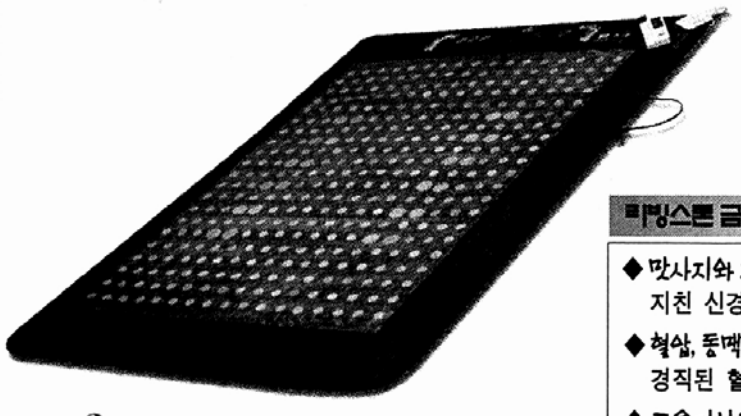
피로

신경통, 관절염, 허리통증, 혈액순환장애 근육피로야! 가라!!

금강약돌 래빙스톤 안마 찜질 방

◆ 지압 맛사지로 전신에 기(氣)와 활력(活力)을!
◆ 16가지 기능으로 온몸을 안마 맛사지 하십시요
◆ 금강약돌로 안마와 원적외선 온열 찜질을 동시에..

북한이 자랑하는 三大 명산품
금강약돌, 개성인삼, 신창버섯



래빙스톤 금강약돌 안마 – 찜질방 효과

◆ 맛사지와 지압 효과 – 지친 신경조직 강인하게!
◆ 혈압, 동맥경화 순환기 기능에 최고의 효과 – 경직된 혈행을 원활하게!
◆ 근육피하조직 지방막을 터뜨려 군살제거, 체중감소 효과 –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원적외선 방사율 96% 최고율

현대의 名藥 세계인을 천만에게 건강하게 래빙스톤

☎ 02)424-9427/2203-782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를 위하여 전국의 지사를 안내합니다.

지역	지사명	주 소	연락처
부산	부산지사	부산 동구 초량 3동 1163-5 대야빌딩 4층	051-463-5331 011-873-5113
광주	광주지사	광주 서구 치평동 210-6	062-375-9986016-602-7544
대구	대구지사	대구 남구 대명 4동 3041-1	053-768-8008 016-813-8008
강원	강릉지사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3-643-5599 019-366-1315
경남	울산지사	양산시 명곡동 화승아파트 A동 303호	055-387-1500 011-853-8721
	밀양지국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5-353-1196 017-650-1196
경북	경주지사	경주시 노동동 19-3 번지 2층	054-748-2086 011-9360-2085
	영주지국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42-17	054-674-1199 011-546-3788
	경산지국	대구 동구 용계동 1013-1 새마을금고 2층	053-983-9222 011-813-3679
전남	목포지국	목포시 산정동 1744-3 목포불교대학 4층	061-279-3788 019-644-0701
전북	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진북 1동 438-18	063-255-2274 011-9644-4579
충남	충청지사	대전시 서구 변동 254-105 칠불사	042-527-0559 011-9846-2115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대표)

청소년 불교사이트 '물 오른다'

◇인터넷을 통해 불교교리, 음악, 여행 등 다양한 불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승윤이와 함께 떠나는 불교여행' 사이트 화면.

신학기를 맞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청소년들이라면 사찰여행, 불교교리, 음악 등 불교계의 알찬 정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된 불교 사이트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많이 하고 있는 요즘 '승윤이와 함께 떠나는 불교여행'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사찰 답사 계획을 짜보자. 생명나눔실천회의 도움으로 배승윤양(외대 이란어과 3년)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전국에 가볼만한 유명 사찰들을 지역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승윤이…' 는 전화번호는 물론 찾아가는 길을 비롯해 볼만한 성보문화재, 사찰 역사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꾸며놓아 청소년들이 사찰 답사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준다.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정민(동대부고 2년)군은 "쌍계사, 통도사 등 승윤 누나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 가족들과 함께 사찰 답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찰을 갈 수 있게 풍부한 사찰자료를 많이 올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前 불교TV PD 출신인 서재영씨가 운영하는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 도 청소년 초심자들이 기초 교리 공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불자예절을 비롯해 천수경 및 례마불경 강좌까지 불교교리의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아 청소년들이 궁금한 주제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재미있게 불교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하다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은 '홍순지의 불교음악과 명상음악' 사이트에 들어가 보자. 불국사 합창단 지휘자로 이태리 유학파 출신의 성악가인 홍순지씨의 불교가곡과 찬불가, 명상음악을 들

교리 · 음악 · 여행자료 듬뿍

다양한 주제 업데이트 절실

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한 곳으로 모아져 스트레스를 쉽게 떨쳐 버릴 수 있다. 또 이 사이트에는 한국 전통 노래만 부르는 그룹사운드의 음악도 소개돼 있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골라 언제든지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디음악, 테크노댄스, 만화 영화 주제가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사연을 소개해주는 선재인터넷 방송국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다. 현재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들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새단장이 끝나면 방문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 청소년이 즐겨찾는 사이트

사이트명	주 소
승윤이와 함께 떠나는 불교여행	sh.hanarotel.co.kr/~love/shalalla
홍순지의 불교음악과 명상음악	user.chollian.net/~studiog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	www.buruna.org
선재인터넷방송국	www.aeten.com
양정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www.power1318.com
하자 청소년 센터	www.haja.or.kr/html/hjib.htm
좋은벗 풍경소리	www.bdsori.co.kr
파라미타 부산	cafe.daum.net/paramitapusan

주부 신행담

금강경을 외우며 (中)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모를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 넘쳐흘렀다. 그 기쁨은 무슨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또한 그 기쁨은 가시적인 성과에서 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얻어지는 일종의 환희심 같은 것이었다. 이럴때마다 나는 곧잘 '마크 빅터 한센' 의 기쁨의 시를 외운다.

오늘은 기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기쁨입니다.
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또 성장해 갑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눕니다.
나는 기쁨에서 출발해서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나는 기쁨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금강경〉 공부를 계속함에 따라 고민거리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은 점차 사라지고, 기쁜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졌으며 기쁜일과 슬픈 일 등 모든 생각을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나 자신은 완전히 무(無)가 되었다.

나의 결혼은 남편이 훌륭했다거나, 남편에게 사랑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루어 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던 남편이 나 정도라면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듯 싶어 선택했다는 것이 솔직한 토로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투정을 부려 본적은 더더욱 없다. 오직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일했으며 내 자식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힘써왔다. 이런 나를 주위에서는 대학출신의 현대 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1백년전 조선시대의 고전 여성이라고 했다.

남편은 직장에서 유능한 편이었지만, 무척 까다롭고 성격이 불같아서 옆에서 내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남편과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나' 라는 아상을 없애고 모든 것을 희생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아무튼 나에



그림 · 이준석

가족을 부처님처럼 보며 살자

게 남편의 하는 일과 가정은 절대적 이었으며 내 자신때문에 남편이나 자녀의 일에 일체의 지장을 가져오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남편과 몇 십 년을 함께 살아 왔지만, 알고 보면 남편과 나는 성격이 여러모로 달랐다. 남편이 철두철미하다면 나는 대범한 편이었고, 남편이 세상에서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나는 약하고 어리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서로 잘 맞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인연인지 부부로 만난 것이다. 친하고 다정한 듯해도 알고 보면 가족이란 다 전생의 업보로써 맺어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 업보를 슬기롭게 풀면서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처럼 보도록 하는 일이 바로 불교수행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속)

김초심행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2동)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⑫

■ 수상(手相) ①

흔히 사람들은 '수상(手相)' 하면 '손금' 을 떠올린다. '인생살이 손금대로 되지 않는다' 는 우스갯소리도 곧잘 한다. 막연하게나마 손금을, 예정된 운명의 신호로 여긴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손금이 곧 수상은 아니다. 손금은 수상의 한 부분일 뿐이다. 수상에서는 손의 전체 모양, 손금, 두께, 탄력, 혈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재능, 성격, 건강 따위를 읽는다.



먼저 손가락 끝의 모양이 담고 있는 수상학적 의미를 살펴보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두뇌와 손놀림은 공명한다. 따라서 손놀림의 가장 정교한 부분을 담당하는 손끝의 모양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재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허황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손끝이 가는 사람은 분석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기가 쉽다. 분석적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직업보다는 감성과 직관이 중요한 분야, 즉 예술 분야가 유리할 것이다.

재능 · 성격 나타내나
생각 환경따라 변화

손끝이 굵은 사람은 관찰력과 분석력이 뛰어나다. 매사에 합리적이며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충실하다. 이런 사람은 학문이나 종교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가나 기술자 등 현실 적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수상을 불변의 운명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손의 메시지를 읽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부산 불교 中 · 高 연합회, 파라미타로 통합

청소년 포교 도약 '훈풍'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총재 성오스님)는 6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2001년 정기총회' 를 개최하고 분리 활동하던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와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를 (사)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로 통합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는 산하에 중등부와 고등부를 조직해 운영토록 했으며 정종근 해동중학교 교장과 김창오 해운대고 교장을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통합은 그동안 두 단체가 분리 운영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해 청소년 포교 활동의 한계에 부딪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부산청소년협회가 문광부의 심사를 거쳐 명실상부한 청소년 단체로 인가되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부산지역의 청소년 포교 활동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중등부와 고등부는 4월 중 신입생 환영법회를 시작으로 불교 문화탐방, 어울림 한마당, 봉사상 시상식, 지역문화 애호활동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청소년 단신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예선

서울불교청년회와 좋은벗 풍경소리가 주관하는 전국어린이 연꽃 노래잔치 예선이 내달 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독창과 중 · 합창 부문으로 나눠져 진행되며 중 · 합창은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독창부문 4월 7일, 중 · 합창 부문은 4월 14일까지 서울불교청년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또 참가비는 독창이 1만원이며 중 · 합창은 1인당 5천원이다. 본선은 4월 22일 열린다. (02)730-9108

미술 · 음악 등 문화강좌 운영

부산 양정청소년 수련관은 신학기를 맞아 스포츠,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에 걸쳐 방과후 취미 활동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에는 중고생을 위한 탁구교실, 만화그리기, 가야금배우기, 글짓기, 스포츠 댄스 등이 있다. 이번 강좌는 3월~4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전화나 양정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051)868-0750

마음 맑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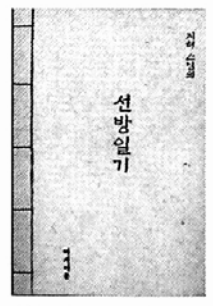
스티븐 미첼 엮음, 최윤정 옮김/ A5신 396쪽/ 값 9,000원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 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 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자신을 믿고 물러서지 않는 공부

제게도 봄은 오겠지요

문 의문도 주인공에서 나왔으니 주인공에서 풀어야지 하면서 새기고 새기다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도 알기 쉽게 법상을 차려주셨는데 먹지 못하였으니 죄송합니다. 겨울나무는 봄이 왔건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봄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며칠에 한번씩은 본래 모습이 보고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어코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자 장좌불와라는 생각이 떠올라 며칠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이었는데 제 주위가 환해지면서 앞면에서는 색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에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보다는, 그것을 지켜보기보다는 빨리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었습니다. 두세 번을 시도한 결과 겨우 눈을 뜨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켜봐야 했는데 두려움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 뿌리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하고 자책하고만 있습니다.

어제는 불교TV에서 어느 큰스님께서 "만법귀일, 비심비불, 청산유수"라는 선시를 낭송하시는 것을 듣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입니다. "진정코 관하면 자성을 보리라" 하셨는데 꿈이었습니다. 멍하니 이것이 환상인가 했습니다. 스님, 제게도 봄은 오겠지요?

답 누구나 다 내면에 귀신 방귀씨가 있어요. 그 귀신 방귀씨가 몸을 움죽거리게 하는데, 그 방귀씨를 찾아야 싱그러워 지는 겁니다. 촐나촐나 공치기를 하려면 내면의 귀신 방귀씨를 찾아야 되겠죠. 자기의 귀신 방귀씨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본래 모습이 보고싶어 견딜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생각마저 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사량적인 생각으로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끄달리지 말고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더 열심히 놓고 관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움쳐매지 말고 맡기고 지켜보다 보면 자연히 마음에 봄이 올 것입니다. 훨훨 자유인의 삶을 사세요.

앞일 걱정이 많습니다

문 저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진실 되게 마음이 나지도 않고 사량적인 생각만 자꾸 올라옵니다. 자신의 삶을 노력해서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막상 현실에 직면하면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우스꽝스런 생각도 녹음기 틀듯 자꾸 나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요?

답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인고?' 하는 생각이 들기고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급하니까 무조건 맡겨야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말할 것도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겁니다

언젠가도 얘기를 했듯이, 권투하는 사람이 권투를 아주 잘한다면 누가 온대도 걱정이 안 되죠? 만약에 서투르다면 걱정이 되고 온통 떨리고 부자연스럽고 무겁지만, 그게 설익지 않았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의식들은 잔잔하게 그냥 돌아가죠, 그 마음하고 다 통하니까요. 그러니 사는 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되지 어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돼도 바깥으로 그것을 다 풍기고 온통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익은 사람들은 안으로 놓으면서 '이 걱정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겉으로는 육신이 부지런히, 걱정 없이 뛰면 그냥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물러서지 마시고 믿고 맡기세요. 용광로에다 무쇠든 잡쇠든 모두 갖다가 쓸어 넣으면 다시 새 쇠로 생산이 되어서 나오듯이 그런 작업을 지극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한 마음으로 근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일을 여일하게 해 나가신다면 모든 일이 근본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실타래 풀리듯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오직 근본에 모든 것을 놓는 것 밖에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사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놓아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없는 자유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 **매사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오직 근본에 모든 것을 놓아 내가 없는 자유인으로 살라**

주인공 공부 어떻게 하는지요

문 저는 마음 법을 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본 가르침부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놓는다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해 하실런지요. 그리고 행을 말씀하시는데, 몸이 움죽거리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내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을 유일한 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음은 빠른데, 그것을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각자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뿌리가 가지나 잎으로 에너지를 모두 공급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뿌리를 인간이 보지 못하고 나무의 뿌리를 나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나무 뿌리와 나무를 살펴볼 수 있겠지마는 자기 뿌리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몸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만 받는 것일 뿐 자기가 나오기 이전 영혼과 그 나오기 이전의 악업, 선업을 지은 인연들은 전부 내 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 속의 중생들은 잘되고 잘못 되고를 모릅니다. 그리고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지은 그 인연에 의해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먼하게 입력이 되었다가 하나하나 나옵니다. 현실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도 하고, 강도질을 하게도 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욕도 하게 하며, 병이 오게도 하니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리까? 다가오는 그 도든 고를 말입니다.

그러면 닥쳐오는 그 모든 고를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는가? 표현하자면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녹아버린다고 하고 불바퀴에 닿기만 해도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없이 일어나는 생각에 왜 일일이 신경을 씁니까? 그저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라는 불바퀴에 놓아야 합니다.

'일체를 놓는다' '맡겨 놓는다'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코드 스위치를 올리는 역할과 같습니다. 그런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오로지 그 용광로에 맡겨 놓으시란 말입니다. 맡겨 놓기 되면 마음의 코드 스위치가 올려져 자가발전소의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공급되게 되는 것이니, 생활이 곤궁한 사람은 생활이 윤택하여지게 되고,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이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발버둥이를 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하게끔 일임하라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공(空)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부처님께서도 '모두가 공해서 내 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답답하다,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답답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 나온 겁니까? 시원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 시원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답답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 자리에 내던지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는 모른다는 것에 모든 걸 고정시켜 둡니까?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오는 도리와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드는 도리를 마땅히 알아야 만이 상대와 상대가 한데 합쳐져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각기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체험 속에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것이로구나! 일체 만법이 작으나 크나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오로지 실천해야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는 의미

문 저는 요즘 주인공 공부를 해가면서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 말씀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 길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식으로는 안 좋은 일도 진정으로는 저를 위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요즈음은 현재 의식으로는 열심히 생활하고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바다를 향해 가는 강물과 같이 언젠가는 바다에 도달하리라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 해온 대로 주인공에 일임하고 주인공 너만이 너를 증명하라고 관하면 되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스님께서 부와 자가 만나게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의식이 주인공임을 확신하는 것이 부와 자가 상봉하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로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예전 같으면 공부할 때 "너 귀신 방귀씨 얻었느냐? 얻었다면 내놔봐라." 이렇게 말로 하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살아서 이 공부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쁩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꾸 이어갑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 은산철벽을 정으로 쪼는 것처럼 자문자답하면서 자꾸 놓아야 하겠죠. 그리고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잖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앉아서 단련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는 애한테 먼저 젖 주게 돼 있거든요. 뱃속에 어린애가 들었을 때 태가 있고 젖줄이 있습니다. 그 애는 자랄 때 젖줄을 잡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 주장자가 바로 젖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젖줄을 잡지 않으면 살수가 없는 거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옴이 없는 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실천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벌써 싹이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이 트여서 그 싹은 나무에까지 목신과 둘 아니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돼서 조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현재는 부와 자가 상봉을 못했다 하더라도 한 군데다 몰두해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굴려 놓으세요. 법륜을 굴린다는 것도 바로 이렇게 굴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굴려 놓을 때 찰나에 대뇌를 통해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대로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깨우쳤다 깨우치지 못했다를 떠나서 진짜로 자기 근본자리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느냐? 못났든 잘났든 네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너만이 너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밥 먹어 줄 수 없고 잠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 자불 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불로 인해서 수 없는 제불이 찰나찰나 엮어지니까요. 그리고 통신도 되면서 항상 들고 나시거든요. 그러니 그 자불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를 떠나서 천연적으로 근본을 쥐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 · 최주현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문 집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화합을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답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 키우고 가족이 화합해서 사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 이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이들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리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겉으로만 듣고서 버린다면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주면서 그 자리에 맡겨야 따뜻한 감을 갖고 따뜻한 데로 고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남을 원망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저것이 왜 저렇게 못됐어? 누굴 닮아서 그래?" 이렇게 마음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음 낸 대로, 욕하는 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시비를 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싸우고, 조그만 거 가지고 응어리가 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온통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니, 그래, 세상을 움켜쥐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 한 도량도 화합을 못 시켜서 이혼을 하느니 죽이니 살리니 해서야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게 하니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구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놓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일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 근본을 100% 믿고 그 자리에 믿고 맡겨놓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고 몸을 붙잡아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남편이든 아이든 아내든, 자기 기룻 잣대에 맞출 양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지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가 둥글게 그쪽에 모자라게 들어가 주고, 크면 큰 대로 들어가 주고 아주 작으면 아주 작은 대로 들어가 준다면, 항상 평등하고 항상 동글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좀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어허! 저 모습이 바로 내가 모르고 살 때의 내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모자랐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겁니다. 자기이기 때문이죠, 전자에 모자랐던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그릇으로 생각을 하고선 '아휴, 저거는 안되지, 모든 게 모자라.' 하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모가 나죠. 그러고 외면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할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요즘 들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디서 직장을 잃고 담배를 피우면서 괴로워하는걸 보면 하도 가엾어서 말입니다.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마음 한번 돌리면 苦·罪 붙을 곳 없어

☞ 19면에서 계속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면 뭘하고 여자면 뭘하나. 누구나 다 아프면 울고 좋으면 웃죠. 오히려 남자들이 더 외로울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울어야만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이기 이전에 가장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체 한 울에서 태양 빛처럼 비 내리듯 감싸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지는 광대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어주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시면서 그 마음의 통신을 늦추지 않고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문 궁금한 것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으며, 믿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부처님 이전의 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심오한 뜻이 있습니까? "공에 모든 것을 놓아라" 하고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 공은 없다는 뜻입니까? 없는 곳에 놓으란 말씀은 공이란 것이 있으니 그곳에 놓으란 뜻이 아닌가요? 그럼 그 공 자체도 없어야 올바른 뜻이 된다고 봅니다. 그냥, 머리 속에 맴돌 뿐,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군요. 무지에서 오는 궁금함이 매우 많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 거사님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사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부처를 알 수도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헤아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 떠나서는 부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드릴 때도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본래 둘이 아니니, 모두 일불(一佛)의 한마음으로써, 지극하게 내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한꺼번에 합해서 일배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이 부처님만의 길이 아니고, 부처님 계시기 전부터 수 없는 선지식들이 걸어가셨던 진리의 길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자세히 한 번 본다면 너무도 찰나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말도 마음도 행동도 딸이 되었다가, 동생이 와서 누나하고 부르면 또 자동으로 누나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게 찰나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짧은 순간 순간만 바뀌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남자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한 순간 이 몸을 벗고 여자가 된다면, 또 자동으로 여자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바뀌어서 돌아가는 것이기에 순간순간 화(化)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은 단지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찰나찰나 바뀌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어 돌아가게 하는 근본, 영원한 나의 조상이자 뿌리인 공한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도리를 빨리 알려면, 이유를 붙이고 따져서는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놓는 공부는 바로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이고 소멸시키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실천하고 가는 겁니다.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나가는 실천일 뿐이니 그 붙여진 이름에 매이지 마시고 직접 진리를 맛보아 나가는 생활이 되도록 하십시오.

시험 결과 기다리기 두려워

문 저는 얼마 전에 아주 큰 시험을 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학교 입학시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조바심이 많이 납니다.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자세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진심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는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도,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벌써 '야! 영원한 친구야, 너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 하고 뜻으로다 그냥 자기가 마음이 스스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설 믿고, 그냥 믿다가도 말아 버리고, 주인공이라는 게 뭐 말라빠진 거야 하고 내던지면 그건 일러주지 않죠. 말하자면 전 우주에로의 즉, 통신처라고도 볼 수 있죠. 통신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가고 오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알게도 만들고 그러는 보배처거든요. 거기서 너무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얘! 주인공이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고 뜻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절로 그냥 든든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듬직하지가 못해요. 아주 바깥으로 방황하게 되죠.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저절로 믿고 저절로 든든하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깨달으면 진짜로 또 알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그 마음은 어떤 놈이고 불안하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놈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그것이 모두 한 구멍에서 나온다는 것만 안다면 그 불안하다는 생각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살면서 지은 죄 참회하고 싶어

문 제가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수 없는 억겁을 통해서 살아온 대로 에누리 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생과 이생에 지은 모든 죄를 마음 속 깊이 참회하고 참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문을 청하옵니다.

답 똑똑히 들으세요. 본래 마음은 저 달나라에도 한찰나에 갈 수 있고, 한찰나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광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수레가 돌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면, 거기 먼지 앉을 자리도 없을 거고, 고(苦)가 있을 것도 없고 또 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번 점프해서 돌리는 데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없다도 없으니깐 한번 잘 해 보라는 겁니다. 그 도리를 알면 정말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아주 수월하고, 또 이 세상 살아나가기만 수월한 게 아니라 세세생생에 자기가 뿌린 걸 다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수 없는 과거에서부터 내가 부모가 되었다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되었다가 부모가 되면서, 이렇게 거쳐서 오면서 인연을 지은 인과,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아주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봐요. 그러고 이 공부하는 데 뭐, 생활이 지장이 된다, 업이 두터워서 안된다 하는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생활이 즉 공부고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예요. 알았지요? 생활에서도 모범이 되게 잘 해야 생활선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 성 차이 업식 탓인지요

문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삶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스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살면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어리석어 가르침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성위주의 기득권에 의해서 유지되고 여성은 아직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직장에서 자주 느끼는 바입니다. 어디선가 남성, 여성의 성 차이가 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요? 얼마 전부터 성차별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어느 사람이 책에서 봤다면서, 여자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야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말하자면 학술적으로 지어 놓은 얘기이고 이론적인 문제지 그건 선법이 아닙니다. 선(禪)에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가고 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봤는데 본 게 없습니다, 금방 또 딴 걸 봐야 하니까요. 금방 딴 걸 봐야 하고 또 딴 걸 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고정시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내가 한 일이 없다. 또, 할 것도 없고 앞으로 한다고 할 것도 없다." 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장육부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들어 있어서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먹는 것도 자기가 혼자 해서 먹는 게 없죠? 입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더불어 같이, 안에서도 더불어 살고 바깥에서도 더불어 살고, 모두 그렇게 더불어 사는데 어떤 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만물의 이치가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하물며 여자 남자라고 못박아 둘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습은 다를지언정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데는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또, 애 어른도 없고요. 그러니까 못나고 잘난 것도 없고 잘살고 못사는 것도 없고 속가의 사람과 출세간의 사람, 입산한 사람도 둘이 아닙니다. 마음 공부하는 데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자라고 언제까지나 여자로만 있다면 또 모르죠. 남자가 남자로만 있다면 또 몰라요. 그러나 순간에 여자가 남자로 변하고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데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도 남자가 아니기에 여자, 남자 따질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다 여자다를 따지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텔레비전을 보면 탤런트들이 연기를 실감나게 진짜처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영화 찍는 탤런트들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갈 데가 있고 자기가 살 데가 있고, 자기가 그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을 남자로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여자로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여자의 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겪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도리를 다 알면 편안하게 그냥 살 텐데 그게 아니니깐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승진을 못하면 못한다고 걱정, 아프면 죽을까봐 걱정, 또 죽으면 그냥 안달박달을 하고 야단법석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깐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야 하고, 그 모습들이 혹시 아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늙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진짜 당신 에너지의 뿌리는 죽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천차만별로 용도가 다르지만 나오기는 한 군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믿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면 또 못 믿는 게, 상대적으로 생기게 되니깐 그냥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근본을 믿고, 근본에 일체를 맡겨서 살아간다면, 근본은 여자도 남자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니까 그렇게 진실하게만 한다면, 내가 여자든 뭐든, 모자라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그냥 진리의 맛을 보며 뚜벅뚜벅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붙들고 발버둥치지 말고
일체 모든게 한마음에서 나온거니
한마음이 해결토록 내던져 맡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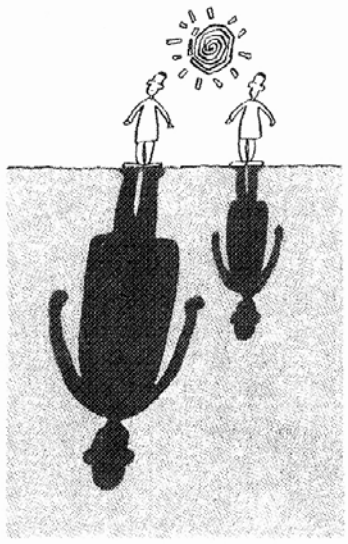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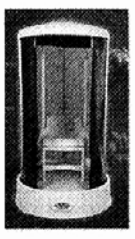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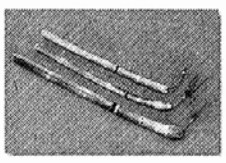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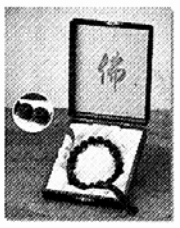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32kg 의자-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 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죽 비

· 뿌리죽비(대) 30,000원
· 뿌리죽비(소) 2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 - 뿌리(대) 뿌리(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며,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삼보죽염 세트


황토기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신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용량 : 600g / 가격 :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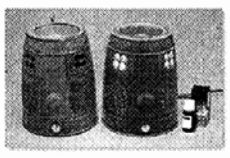
108 나한단주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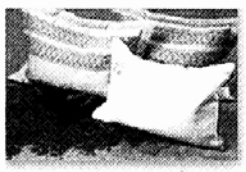
기도포 / 다포

· 기도포 84cm×39cm / 가 격 : 1,600원
· 다 포 50cm×39cm / 가 격 : 800원
· 다량 구매시 할인 및 단체명 인쇄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음 모듈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틀 에밀레종 : 210,000원
· 팔각틀 에밀레종 : 250,000원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아로마오일 10ml 포함)

아로마 약초 베개

· 재료 : 감국, 참숯, 결명자, 약쑥, 상엽 외 10여가지
· 외피 : 삼베 100%
· 가격 : 39,000원

연꽃 불자시계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염불 / 강의 (CD · 테잎)


■ 무비스님강의집(금강경 테이프 20개) 가격 : 45,000원
■ 무비스님강의집(지장경 테이프 20개) 가격 : 45,000원
■ 무비스님강의집(진심직설 테이프20개) 가격 : 45,000원
■ 문구인스님법음집(테이프 20개) 가격 : 66,000원

· 관세음보살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금강경(영인스님 CD) ₩10,000
· 부모은중경(영인스님 CD) ₩10,000
· 석가모니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신묘장구대다라니(영인스님 CD) ₩10,000
· 약사여래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예불천수경 (영인스님 CD) ₩10,000
· 우리말 천수경(영인스님 CD) ₩10,000
· 장고기락 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장엄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상)(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중)(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하)(영인스님 CD) ₩10,000
· 지장정근(영인스님 CD) ₩10,000
· 천도재 의식 (영인스님 CD) ₩10,000
· 천도타령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아미타경(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영인스님 CD) ₩10,000
· 칼양경(영인스님 CD) ₩10,000
· 회심신중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회심곡(영인스님 CD) ₩10,000
· 낱개 CD ₩10,000

Dr.반다시(의자용)방석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참선 명상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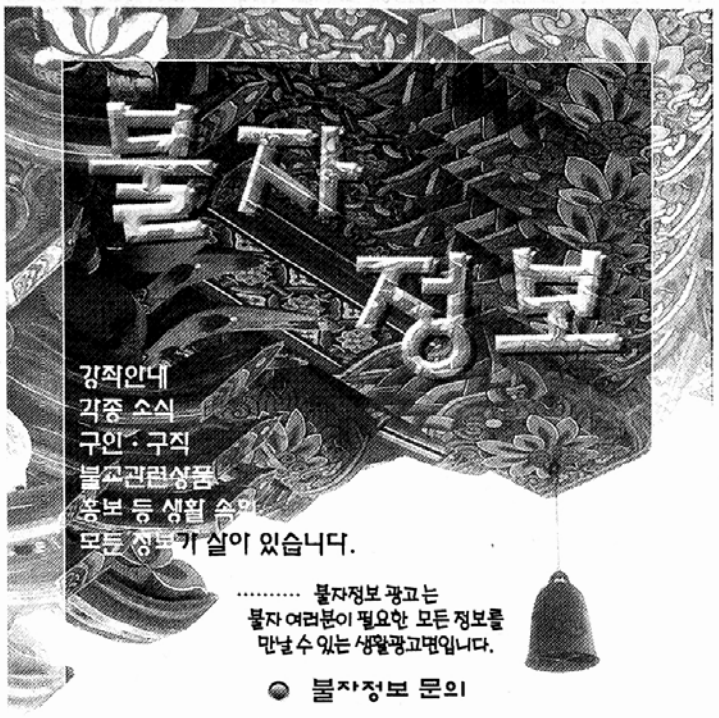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약초 보감 내의 세트

○ 남성 팬티 2종 세트
· 종류 : 쑥 / 숯 / 황토
· 가격 : 각 19,000원
○ 여성 허브 팬티 3종 세트
· 구성 : 라벤다 / 자스민 / 페퍼민트
· 가격 : 19,000원
재질 : 면 100% / 사이즈 : FREE / 특징 : 천연염료염색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꽂이
· 가격 : 50,000원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벽조목(벼락맞은 대추나무)
※ 부처님 복장용 사리함 ◎ 다(茶)상
◎ 목탁 (호신용) ◎ 거북이 (수명장수)
천주, 108염주, 담주, 합장주, 인감도장 특수용도장,
차량용걸이 열쇠고리 옵자
농 협 150042-52-200478 이 민 택
모든 수익금은 지장선원 불상 복원 불사기금으로 쓰여집니다. 혜봉합장
053)982-6778 011)813-3679 지장선원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 정규(주,야간반), 인터넷, 통신반 모집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선착순 3천명 누구나
▫ 행자(예비스님, 남 · 녀) 모집
행자원있음 (엘리트 스님양성을 목표)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직접지도, 강의합니다.
▫ 부처님 진신사리 특별 친견법회
- 3월 2일(출가재일) 3월 9일(열반재일)
▫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 사찰다도, 사진, 컴퓨터, 불교만화,
단전호흡, 불화반, 사물놀이, 풍수지리 역학,
한국무용, 민요, 스포츠 댄스
문의대구 (053) 474-8228
소문보다 거창하으니 꼭 들러시어 참배하십시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3-3004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럭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공양주
보살님 구함
(55세 이하)
▷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2333

기도,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성불사에서
정법으로 공부하며
스님이 되고자 원하
시는 몇분을 모십니다
▷ 침식등은 무료제공
054) 858-0134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기도 여주군 복내면
신남리
해인 정토사
031)885-0168
018)321-2168

심신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2)2234-2198

부전스님
구합니다
▷ 서울
02)993-3065
02)992-7064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11)486-4408
043)838-3562

• 평생을 같이 하실 스님 모십니다.
• 행자 한분도 모십니다.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천안 영락사
041)584-6675
041)584-6676
011)289-16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 북
054)535-000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나이 : 50세 이상)
▷ 울 산
052)211-1009

같이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
처사님들은
연락 바랍니다
052)254-2427
011)562-5536

근래에 창건한
사찰 중 부전스님이
필요한 보살님께서는
전화 주십시요
탄휴합장
054)335-0092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흑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지리산 한옥식 황토방
• 위치:실상사 미천→백우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각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임야 2583평 • 가액:1천 8백만원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신선마을유학서당에서 알림
• 서당운영에 참여하실 분 모집
• 서울 2명,부산 2명,대구 1명,광주 1명
• 조건 : 소액투자자 (2~3천만원)
현지에 사무실 가능자
서당 현황 장소:지리산 청학동 주변(구 심곡분교)
대지 1,211평 건평 205평
011)569-5844/055)884-5840
명덕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 20평 방 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65-4408

포교당(급) 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시내중심지)
• 건물 : 40평 2층 방 2개 법당 현재 운영 중
• 가액 : 보증금 + 시설비 포함 3500만원
055)526-1725
016)501-27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평수 : 4층 50평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 90만원 (관리비 10만원 포함) 시설물 답사 후 절충가
02)400-3256
011)391-8359

사찰 안내
• 경북 산업도로 IC 1km지점
• 법당 24평 요사 24평 요사 15평 화장실 3개
• 특징 : 사찰 앞 300m까지 시내버스 운행, 130가구중 끝집, 조경완벽 • 가액 : 9천만원
054)335-0092

토굴 안내
• 위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62)234-470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250평 • 법당 : 40평
• 가액 : 6억 • 요사 : 140평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 723-4082
광진불사 (절대 비밀 보장)

포교당(급)안내
• 동대구 용계 전철역 입구
• 4층 건물에 2층 (4차선도로)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
• 정남향 교통편리 호조건
053)982-6778
011)813-36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 4가 (요지)
• 평수 : 70평 4층 건물 3층
• 구조 : 법당시설 A급, 개금동불 (아미타불 5자) 일급 탱화 모든 시설 완비, 요사채 2, 주방 1, 앰프시설완비, 사워장,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전세) 월세(답사 후 결정)시설비 3,000만원
011)523-0716/054)292-4117

사찰 안내
• 위치 : 청주 근교
• 부지 : 7000평
• 법왕 : 20평 목조건물
• 요사채 : 40평 목조건물
• 특징 : 용왕당 각종시설 완비
• 가액 : 5억
043)260-6766
011)9746-6766

사찰 인수 하실 분
• 위치 : 사천시 사남면 면사무소 부근
• 대지 : 약 300평 법당 30평 요사채 20평 도로는 절까지 포장 완비
• 가액 : 약 1억 5백만원
017)583-4895
016)596-1651
055)745-090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산 명당
• 부지 : 1만평, 자연녹지 우거지역 등산로
• 가액 : 평당 80만원
011)241-0408

토굴및사찰터 안내
• 경남 하동군 화계면 소재
• 대지 : 220평 • 건평 : 30평
• 신축전통 황토한옥 2채
• 준 농림지 605평
055)545-9414
017)356-9414

토굴(급)안내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30평 임법당1개 큰방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500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033)763-9737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철성탱화, 대북, 범종,(불단조각,닦집) 경탁, 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엠프, 도시가스 완비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 괴산 • 법 당 : 2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200평 • 가 액 : 3억 5천
• 위 치 : 경남 밀양 • 법 당 : 15평 • 요 사 : 30평 • 부 지 : 170평 • 가 액 : 1억 5천
• 위 치 : 강원 영월 • 법 당 : 12평 • 요 사 : 40평 • 부 지 : 450평 • 가 액 : 2억 3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법당 31평 (목조 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10평 (단청필)
• 기타: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경주시 건천 I/C 부근
• 부 지 : 1,600평
• 법 당 : 인법당 20평
• 주지실 : 20평 • 요 사 : 20평
※ 건천 I/C에서 10분거리 산세좋은 기도정진암자임
• 양도가 : 1억 4천만원
• 위 치 : 전남 여수시 소재
• 대 지 : 40평
• 법 당 : 20평 (2층)
• 요 사 : 35평 (1층)
※ 도심속 포교도량 임.
• 양도가 : 1억 (융자 3천 포함)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내
• 대지 : 근260여평 법당 1동 요사 2동 주지실 1동 종각 1동
기름보일러 욕실완비
사답 몇 마지기
• 가액 : 1억 5천
017)552-7350
055)746-735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국유지 인법당 28평
• 특징 : 인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산사 청정 도량임
• 가액 : 답사 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032) 874-0194
011) 321-0194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면적 : 전 304평 하천부지 1000여평
• 기타 : 토굴한동 (합판으로 지음), 황토방 1
• 가액 : 2,400만원
016)779-947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3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011)294-0528

절터 안내
• 위치 : 천안시 병천
• 땅 : 2700여평
• 금액 : 1억 4천
041)583-8009
011)431-499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 375-7063 (창건주 직접)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청소년 포교 적극 돕겠다"

청주 청원불교련 이두스님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이 간행된 청주지역의 불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한마음이 되어, 불교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불교의 화합에 중점으로 둘 생각입니다."

지난달 28일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청주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교연합회 이취임식에서 신임회장에 취임한 이두스님(관음사주지 · 조계종원로의원)은 취임일성으로 지역 불교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이두 스님은 "지난 몇 년간 불교연합회 소속 각 종단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화합할 것"을 강조했으며, 전임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했다.

직지 학술 · 문화행사 열어

40여 사찰 이웃돕기 펼쳐

이두 스님이 이처럼 '화합'을 여러차례 강조한 것은 청주 · 청원지역이 활발한 불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종단간의 불협화음 및 불교단체간의 미묘한 경쟁의식이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연합회 차원의 자체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청주 및 청원지역은 지방 중 · 소도시 중에는 불교 신행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발족한 불교연합회의 40여 회원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청주방송과 충북불교문화회관 등 중요한 불교 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불사를 펼쳐왔다.

지난해만도 봉축기념 창작등 전시회, 청주성탈환 기념 영규대사 추모대재, 직지와 불교문화 학술심포지움, 직지 정대불사 및 연등대법회, 직지 대강연회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많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두 스님은 지난해 직지 정대불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올해도 청주시와 협력해 직지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4월과 12월에는 각 사찰별로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고, 봉축행사로 불교문화공연, 봉축대법회, 봉축 시가행진, 봉축음악제 등 다양한 연등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9월 청주시민의 날을 전후해서는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무심천 연등대법회를 열어 전통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이두 스님은 가장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 포교부문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파라미타 충북지부가 주도하는 문화재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문화재애호 및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전통 등 및 창작등 전시회, 봉축 기념 사경공모전, 파라미타 청소년축제 등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 포교의 신기원을 이룬다는 원력이다.

시인으로서 〈겨울 빗소리〉 등 많은 시집과 수필집으로 시민들을 불교로 귀의시켜 온 이두 스님은 모든 불교행사를 문화적으로 꾸며, 불자 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청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국보 연곡사 부도 훼손

상륜부 · 몸돌 떨어지고 기단부 깨져

최근 문화재 도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사찰에서 도굴 미수로 보이는 문화재 훼손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구례 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국보 제54호인 연곡사 북부도가 분리된 채로 발견돼 문화재 도굴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부도가 훼손된 사실을 처음 발견한 연곡사 원주 대륜 스님은 "매일 두 차례씩 북부도 주변을 순찰하는데 전날 오후까지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가 보니 부도의 상륜부와 지붕돌, 몸돌 등이 분리되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확인결과 부재가 절단되지는 않았으나 기단의 하대석 모서리 부분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도의 기단부에 문화재가 소장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 문화재 도굴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도의 높이가 3m가 넘는 점, 하대석에 기단부를 들어올리기 위해 지렛대를 댄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최소한 2~3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륜부와 지붕돌, 몸돌이 분리된 연곡사 부도.

지난 69년 문화재 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해체, 복원작업을 실시할 때도 부도 안에서 소장품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는 어느 스님의 묘탑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같은 사찰에 있는 국보 제53호 동부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도 가운데 하나다. 동부도와 보물로 지정된 서부도(154호)는 훼손되지 않았다.

권형진 기자

백련사 동백꽃축제 열린다

내달 8일…사진촬영 · 차 시연 · 백일장 다채

전남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에서 동백꽃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백련사 스님과 신도 및 주민들로 구성된 '백련사 동백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방혈수 강진불교대학운영위원장)는 오는 4월 8일 동백꽃이 만개(3월14일 전후 꽃이 핀다함)하는 때에 맞춰 제1회 백련사 동백축제를 개최한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51호인 백련사 동백림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후계림 조성과 사람과 나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사랑의 깨우침을 주기위해 마련되는 이번 축제는 친환경 문화축제로 승화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의 주행사는 동백나무와 사람과의 자매결연(1가족 1주로 매년 250주씩 자매결연) 및 동백나무 심기, 작설차 씨앗심기 등. 게다가 부대행사로 800년 전통의 백련사 녹차인 전다(錢茶)만들기 및 시음회, 동백화전 등 전통사찰 음식 만들기 및 시식회, 초중학생의 동백과 자연보호 소재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동백숲 사진 촬영대회 등도 열린다.

백련사는 동백축제를 계기로 '동백숲 보호 및 조성 20년 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기존의 동백나무 3천여주의 고목(300~500년생)화 및 도벌 등으로 영구보존이 어려워 매년 250주(10년생)의 동백나무를 식재, 백련사 주위를 완전 동백숲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매년 500주의 자생동백묘 삽목을 생산에 사찰소유 임야 40ha에 20ha(현재 5ha)의 동백나무숲을 가꾼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가야불교 고향 인도에 허황후 기념비

김해시 '아유타 거리' 지정

인도 불교를 가락국에 직접 전래한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2천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최근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에게 시집(기원전 42년)온 허황옥 황후의 고향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시 사루강가 10여만평에 '가락공원'이 조성된데 이어 5일 허 황후 유허지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 행사는 아요디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김해시와 허 황후의 후손들인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 가락종친회의 노력으로 이뤄져 화제가 되었다. 허 황후의 7왕자는 가야산에 들어가 오빠인 장유화상으로부터 불법을 전수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해시도 김해박물관 앞 문화의 거리 2Km를 '아유타로'로 지정하고, 허 황후의 상륙지점으로 알려져 있는 진해시 웅천과 경유지인 김해시 장유면 장유암 등에 대한 도래 행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신라불교 초전기념관

경북 구미시는 1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11월까지 해평면 낙산리의 고분군정비를 비롯 해평면의 석조 여래좌상, 황상등의 마애여래입상 등 문화재 5점을 복원 정비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는 사업비 5억1천만원을 투입, 도개면 도개리에 전통목조건물양식의 신라불교 초전(初傳)기념관을 건립,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한 아도스님의 영정 등 관련자료를 전시, 국민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불교대 수강생 모집

광주불교교육원(이사장 이범식) 부설 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영조스님, 증심사 주지)과 광주불교문화대학원은 새학기를 맞아 수강생을 모집한다.

각 1년과정, 정원 70명으로 운영되는 불교문화대학 및 대학원의 주요 교과목은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의 이해, 불교문화 현장학습(1학기당 3회), 수련회, 대승불교사상, 불교와 사회 등. 수강료는 1학기 20만원이며, 입학식은 3월 21일이다. (062)228-9098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국제포교사 모집

포교원은 조계종 소속 스님 및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국제포교에 주력할 국제포교사 연수생을 모집한다. 인원은 영어권 00명 및 일본어와 중국어 각 0명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의 자격 소유자여야 한다. 접수시한은 4월 3일까지이며 시험은 4월 7일. (02)720-7060 담당 황충기

서 · 경 신규포교사 연수

서울 경기 지역 신규 포교사 연수교육이 17일 포교원 강의식에서 실시된다. 새로운 원력으로 시작하는 포교사들에게 지역 포교활동에 따른 팀 배치와 세부활동 지침, 소속 팀장과의 만남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연수에서 계성스님(교육원 교육부장)이 '포교사로서의 첫 걸음'을 강의한다.

태고종

합동 수계산림 행자 등록

제 25기 합동 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자등록을 오는 6월 3일까지 서울 종무처와 각 시 · 도교구 종무원에서 받는다.

참가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1, 2차에 걸친 소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는 행자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행자수업을 받아야 하며 행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오는 10월경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설판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02)745-2030

천태종

대웅보전 상량식

춘천 삼운사(주지 월도)는 18일 오전 11시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보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033)253-6542

진각종

실상심인당 교양대 개설

서울 구로구 실상심인당(주교호당)은 심인당 내에 교양문화대학을 개설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 1~3시 개설되는 교양문화대학은 △어머니들의 동화책읽기 모임 △종이접기 △사물놀이 △불교교리강좌 등을 교육하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

법륜종

비구니회 강령 만든다

종단내 비구니스님들의 모임인 법륜비구니회(회장 도원)는 13일 오후 1시 논산 지장암에서 종단발전과 비구니스님들의 화합단결을 모색하기 위한 비구니회 기본강령및 질적 향상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대승종

불과사 개산 10돌 행사

부산 불과사(주지 법산)는 개산 10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큰 법당에서 특별기념법회와 불자정진대회, 독거노인 생활비 전달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제1부 특별초청법회에서는 종정 도암스님이 법문하고 제2부 불자정진대회에서는 불경 암송대회, 찬불가 독창대회를 개최한다. (051)208-9472

선각종

16일 임시 중앙종회

16일 광주분원에서 정암 총무원장을 비롯 종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한다. (062)361-8070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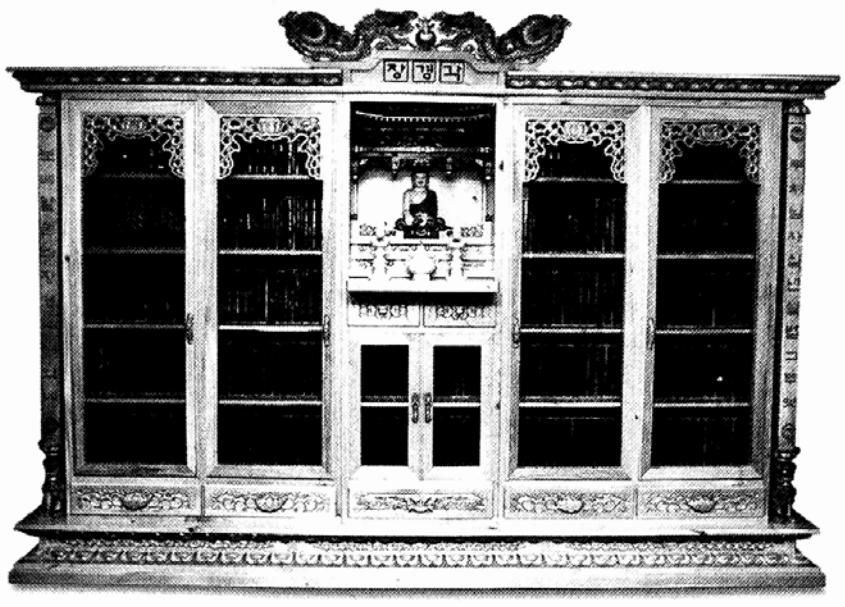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견본모델 가로 340cm × 세로 240cm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

'民-警 문화재 수사대' 출범

경북경찰청 "사전예방-검거 만전"

지방경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9월 발족한 경북지방경찰청의 문화재사범 전문 수사대인 문화재 수사대가 민간 전문가들을 보강, 확대 개편된다.

문화재수사대(대장 김광수 경감)는 16일 '문화재 지킴이' 결의대회를 갖는다. '문화재 지킴이'에는 대학교수와 박물관 학예연구사, 향토사학가 등 민간 전문가 12명이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문화재 도난사건 발생 시 자문이나 감정뿐 아니라 유통경로, 사전 정보 수집 등에 대해 문화재 수사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 사전 예방과 관리 및 보호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 김광수 경감을 대장으로 전문수사요원 4명, 도내 각 경찰서 형사 2명씩 모두 52명으로 출범한 문화재 수사대가 그 동안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도 불구 모두 7건 22명의 문화재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수사대 출범 전 문화재사범 검거가 일년 평균 두세 건이었던 데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 가운데는 경북 문화재자료 제351호인 예천 승본리 석불입상 도난범 검거를 비롯해 금동여래입상(비지정)을 불법 거래하려던 골동품상 일당 적발 등 불교문화재 관련 사건도 2건이나 된다. 지난 해 9월 18일에는 안동 도산 고분에서 조선시대 도자기 등을 도굴하려던 일당 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김광수 경감은 "문화재사범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 만큼 사전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거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사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얻은 바 없는데 무엇을 줄 것인가"

'무문관 3년 결사' 회향 원산스님

통도사 백련암 마당
1천여 사부대중 운집
회향법회 무산 소식
동요없이 죽림굴 삼배



◇원산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사부대중 1천여명은 죽림토굴을 향해 지극한 삼배를 올리며 스님의 수행력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찬바람속에 기다림이 길었다. 그러나 3년전인 98년 음력 2월 보름 이후 한번도 열린적이 없는 죽림토굴의 문이 열리면서 스님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던 많은 대중들의 기대는 무너졌다. 스스륵 거리는 대바람 소리에 싸인 죽림토굴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음력 보름법회날인 9일, 상좌스님을 중심으로 무문관 3년 결사 회향법회 준비로 분주한 통도사 백련암에는 수행결사를 원만히 회향한 원산스님을 친견하기 위한 스님과 신도들로 가득했다. 쌀쌀한 산바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깔린 좌복위에 정연히 앉은 1천여 사부대중은 3년간의 무문관 수행을 회향하고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원산스님을 기다리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불에 임했다.

그러나 새벽 6시 30분경 상좌들을 통해 회향법회 소식을 들은 원산스님은 "법문할 것이 없다"며 "왜 그리 시끄럽게 하느냐"고 상좌들을 야단쳤다고 한다. 말상좌 정수스님(정릉 내원사 주지)은 "'내가 얻은 바가 없는데 무엇을 줄 것인가'하고 법문을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다.

젊은 수좌들도 보통 결심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3년 무문관 수행을 위해죽림굴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듯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뜻이라고 한다. 스스로 작정하고 들어간 무문관 수행은 누가 문을 닫은 바도 없고, 그렇기에 특별하게 문을 열 것도 없는 것이다. 스님은 우리들에게 또다른 경책을 준다. 결국 철저한 자신과의 대면만이 '문없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원산스님은 지난 3년간, 사시예불 후 시봉 스님이 죽림굴 담에 난 작은 구멍으로 전해주는 하루 한끼의 공양만을 하며 한결같이 본분사 해결에 정진해 왔다. 밥과 찬이 손댄 흔적 없이 고스란히 남겨질 때면 스님의 선정삼매를 짐작할 뿐, 죽림토굴 안의 소식과 스님의 경계를 헤아릴 수는 없었다.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을 지낸 중진급 스님이 무문관 수행을 결심하고 실천에 들어가 회향한 것은, 최근 젊은스님들이 3개월 안거조차 부담스럽게 여기고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풍토에 비추어 경이에 가까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원산 스님의 무문관 수행은 어쩌면 예고됐던 것인지도 모른다. 당대에 선풍을 떨쳤던 경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음에도 통도사 범어사 동화사 전문강원에서 경전을 주로 공부하고 통도사 직지사 강주를 역임한 학승이었던 스님에게 선은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으리라.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또 묻는, 문 없는 경계 앞에서 세인이 아무리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아도 원산 스님의 무문관은 문이 없는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취한 한 방편일 뿐.

이제 원산스님은 3년전 그러했듯 무문관 결사의 흔적마저 지우고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무문관 수행을 이어갈 것이다. 9일 3년 결사를 회향하고도 변함없이 11시 20분경 한 끼의 공양을 받아 들고 문을 닫으시던 원산스님의 모습은 그대로 연꽃향기가 되어 대중들의 마음에 남았다. 예불 후 정수스님이 스님의 법문이 무산되었음을 알리자 사부대중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죽림토굴을 향해 지극한 삼배를 올렸다. 일사불란하게 올리는 삼배에는 스님의 수행력을 따르겠다는 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스님의 무문관 3년 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철저한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승가와 재가를 막론한 모든 불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수행심을 분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은 상좌들에게 수행 결사를 더 이어갈 뜻을 언뜻 비쳤다고 한다.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고있다가 홀홀 모든것을 털어버리고 수행에 매진하기위해 무문관 결사를 실천한 원산스님은 이시대 수행자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는 평이다. 양산 백련암=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나눔의 집 새원장 능광스님

신임이사 원행·월우·정념스님 선임

나눔의 집 새 원장에 능광스님이 선임됐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사장 월주)은 7일 오후 2001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원행 월우(이상 조계종 종회의원)·정념(상원사 주지) 스님을 새 이사로 선임하고 법인사무국을 강화해 나눔의 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능광스님은 시설(나눔의 집)장과 나눔의 집 역사관 관장을 겸하게 된다. <관련 인터뷰 4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5인 이사 체계로 운영되던 복지법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3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한편 나눔의 집 원장직과 이사직에 대한 혜진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사회는 또 법인체계 확립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금 및 후원자를 법인사무국에서 관리하고, 회계분야에 간사를 두어 법인회계로 처리토록 결의했다. 또 나눔의 집 역사관에도 정식직원을 두고 운영키로 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매월 20만원씩을 후원금에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를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어 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토록 했으며, 여성부와 협의해 위안부 할머니 심리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5일 나눔의 집을 방문,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역사관을 둘러보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아바타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인사동 '마야문화원' 문열어

교리·불화·명상 등 강좌

서울 전통문화의 중심지 인사동에 불교와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원이 13일 문을 열었다. 인사동 상갤러리 빌딩에 자리잡은 마야문화원(원장 김문용)이 바로 그곳. 마야문화원은 19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교리, 불화, 요가, 심천사혈요법, 도예, 영어명상, 생활역학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 1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법왕정사 주지)이 절 수행법을 직접 지도하는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강좌, 명상의 기법을 활용하여 영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능력을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익혀 활용하는 '영어명상', 심천 박남희 선생이 10여년동안의 임상실험을 거쳐 창안한 사혈요법을 가르치는 '심천사혈요법', 유명도예가인 김문용 원장이 직접 가르치는 '도예교실',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의 저자 주혜명씨가 지도하는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 워크숍 등이 관심을 끄는 강좌다. (02)722-1050 이경숙 기자

송광사 성보보수 교습원 개원

교계 최초로 불상이나 불감 등 목조문화재를 수리·복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교습원이 문을 열었다.

송광사(주지 현봉)는 11일 목조문화재 보존수리 인재양성소인 '성보보수 교습원' 개원식을 가졌다. 송광사 경내에 들어선 교습원은 12평 크기의 작업실과 강의실, 교습원생 숙소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2월 실기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교습원생은 모두 7명. 고등학생에서 미술 전공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3개월 동안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친 후 송광사 경내에 상주하며 3년 동안 불상대생, 점토로 불상 빚기, 나무로 불상 깎기 등의 과정을 이수한다.

박물관장 고경 스님은 "호기심이나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보를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은 일본 최고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재일교포 고준영(83)씨가 맡아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한다. (061)755-0107

권형진 기자

일산병원 20일 상량식

동국대는 3월 20일 오후 2시 고양시 식사동 병원 건립 부지에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 상량식을 봉행한다.

이번 상량식은 녹원 스님(동국학원 이사장), 도원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 회장 등 7만 6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다.

2002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2년전 공사를 시작한 일산병원은 총 3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금까지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세계일보 '영계리포트'
국민일보 '창조사학특강'
사과광고 게재키로

세계일보의 '영계리포트'와 국민일보의 '창조사학 특강'으로 불거져 나왔던 언론 훼불 사건과 관련, 해당 언론사들이 사과 광고 및 기사를 게재할 것으로 보여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2월 27일 '영계리포트'에 관한 사과 공문을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앞으로 보낸 후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5대 교계신문에 5단 광고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키로 했다. 하지만 사과문 내용이 변명으로 일관된 해명성에 그쳐 교계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전해들은 세계일보측이 7일 황종택 여론독자부장과 신찬균 주필을 보내 해명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문 게재를 공식 약속한 것이다.

국민일보도 7일 최종 입장을 정리, 국민일보 종교면에 사고형식의 기사로 사과의 뜻을 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기사 게재 시점과 내용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다.

김주일 기자

선우회관 건립 추진

'우리는 선우' 정기총회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3일 장충동 법당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연호 재천 지역회 회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했다. 또 부처님오신날 장애인 나들이, 교계 청소년 단체와의 연합 청소년 캠프, 선우회관 건립,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등 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두식 기자

탈북자 남한문화 체험

좋은 벗들, 12~15일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12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탈북자들을 위한 문화탐방 행사를 갖는다.

탈북자 정규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제10기 하나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탐방은 남한의 전통문화 및 사회생활을 소개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원생들은 불보사찰인 양산 통도사를 참배한 후, 경주지역 문화유적과 불국사, 석굴암 등 불교문화를 탐방하게 된다. (02)587-8996

김재경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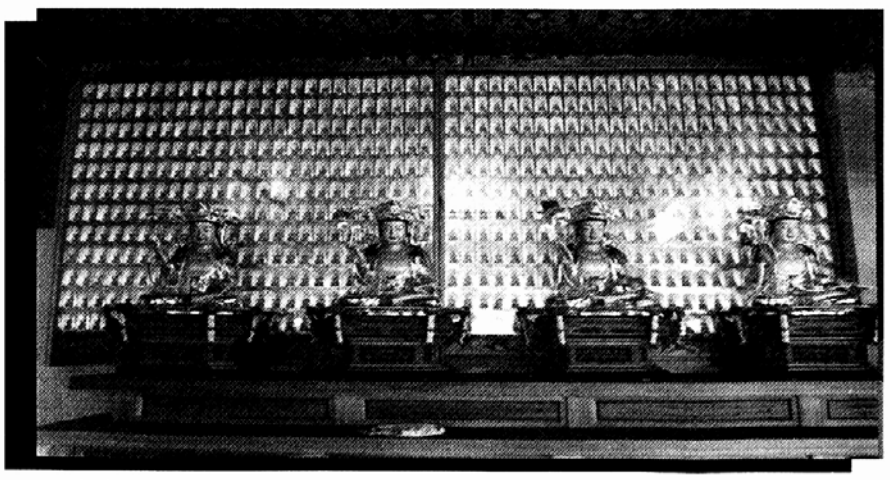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소 원 성 취



※ 각각 독립된 돔형의 케이스에 부처님 광명불이 있으며 앞면에는 반도체 축원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 외부는 고급 원목으로 조각 마감하였으므로 고급스럽고 장엄합니다.
(맞춤 주문형이므로 가로, 세로 싸이즈를 보내주시면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주) 삼보기획 ☎ 031-987-5361 011-206-0277
인천영업소 032-572-8633-4

혜초 스님 기념비 中 산시성에 세운다

◇774년 혜초스님이 당 황제의 부탁으로 9일간 기우제를 드렸던 옥녀담 하반의 거북바위. 1998년 발견됐지만 댐공사로 수몰될 위기에 놓였으나 조계사의 후원으로 새 선유사터로 이전된다. 이를 기념하는 혜초스님 기념비도 세워진다.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신라 고승 혜초스님(704~787)을 기리는 기념비가 중국 산시성 주지현 선유사(仙遊寺)에 세워진다.

조계사(주지 지홍)가 비용을 지원해 세우는 이 기념비는 3m 높이로, 앞면에는 '신라국 대덕고승 혜초기념비' 글씨가 한글과 한문으로, 뒷면에는 혜초스님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된다.

조계사는 2월 25일 재무 원명스님을 대표로 하는 답사단을 선유사로 파견, 선유사 문물관리소장 왕톈빈(王殿斌)씨와 혜초기념비 제막식을 오는 6월 13일 선유사 이전복원 착공식때 함께 봉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의 수교(1992년) 이후 중국에서 활약한 국내고승의 기념비를 한국불교계가 건립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비 제막으로 중국의 국보급 사찰 선유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혜초스님의 업적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 · 중진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불교학자, 신도 등 한국불자들이 대거 동참하며 중국 시안의 법문사, 대흥선사, 지상사 등 유명 사찰의 방장, 주지 등 중국불교계 지도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답사에서 선유사 문물관리소는 국보급 사찰인 선유사 경내에 세워지는 혜초기념비 제막의 뜻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비정(碑亭)의 현판글씨를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로 받고 싶다고 우리 측에 공식 요청했다.

선유사는 산시성(陝西省) 주지현(周至縣) 남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흑하(黑河)에 있으며 수나라 문제때 황제의 피서행궁으로 시작된 절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이곳 관리로 근무할 때 '장한가(長恨歌)'를 쓴 장소로 유명한 이 절은 지난 98년 탑(법왕탑)에서 부처님진신사리 13과와 많은 중요 유물이 발견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서긴은 현장이 그대로 수몰될 처지에 놓였다가 조계종의 지원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새로 짓는 선유사에 옮겨지게 된 것이다. 현재 혜초스님이 기우제를 지냈던 바위는 너무나 커 7조각으로 나뉘어 선유사 문물관리소에 옮겨져 있다.

기우제 지낸 옥녀담 댐건설로 수몰위기

조계사서 비용 후원 선유사 6월13일 제막

이 풍광좋고 유서깊은 사찰이 개발정책에 따라 인근 흑하의 물길을 끌어들이기 위한 댐공사로 2003년이면 수몰된다. 법왕탑은 현재 남아있는 수나라 시대 전탑으로는 유일해 중국정부가 흑하에서 높이 30m정도 떨어진 언덕에 선유사를 이전복원 하기로 하고 현재 터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혜초스님이 당나라 황제 대종(代宗)의 명으로 기우제를 지낸 때는 774년. 9일간 머물면서 인근 옥녀담에서 기우제를 지내 마침내 비단같은 보슬비가 흡족하게 내렸다고 전한다. 이 기우제 기록만 봐도 혜초스님은 보통 승려가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당시 장안에는 수많은 고승 대덕이 있었음에도 대종이 특별히 국가 행사인 기우제에 스님을 지명한 것은 혜초스님의 법력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유인하러 98년 중국으로 현장조사를 떠났다. 그때 혜초스님의 유적지를 발견했으나 댐공사로 수몰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 귀국후 문화관광부를 찾아가 기념비를 세우자고 요청했다. "둔황운동 장소는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스님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다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고산스님을 뵙고 사정을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계사와 연결을 시켜주셨지요"

중국 시안만도 22차례나 가서 유적을 답사해온 변인석교수는 이러한 연구물을 모아 지난해 〈당장안의 신라유적〉이라는 책을 펴내며 당시 활약했던 신라고승들의 행적을 발굴해 냈다.

중국 섬서사범대 교수와 서북대학 국제당문화중심 연구원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내 사적을 좀 더 현장답사해 〈신라승이 머문 중국 명산 사찰〉 〈실크로드와 신라인〉 등의 연구서를 펴낼 예정이다.

인 / 터 / 뷰

"중국 영향 준 한국스님 재조명 절실"

기우제 바위 찾아낸 변인석 교수



"일본스님들은 그저 슬쩍 구경만 하고 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중국 역사상 문화창출에 끼친 공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절 곳곳에 자기네의 기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스님들은 중국인과 함께 문화창출에 직접 동참했고 상당한 업적도 남겼음에도 유적지에 그 흔한 기념비 하나 없는 점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중국 국보급 사찰인 선유사에 조계사가 혜초스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 무척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5년전 안강에 신라사지(新羅寺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의 몇 개 대학 박물관장들이 답사를 가게 되어 가기 전에 자료조사차 〈신수대장경〉에 '신라사'가 있는가 해서 색인을 찾다가 혜초가 지은 〈하옥녀담기우표(賀玉女潭祈雨表)〉를 발견했다는 변인석 교수(전 아주대 인문학부)는 이를 확

시안(西安)의 주요 불교유적

▲법문사(法門寺)

산시성 부풍현 법문진에 있다. 당 황실의 사찰이였던 만큼 많은 진귀한 문화재가 발굴됐는데 특히 유명한 것이 부처님 진신지골(指骨) 사리이다. 동한(東漢)의 희평연간(172~177)에 부처님의 지골을 안치한 탑을 세웠다고 전한다. 수(隋)의 개황연간(581~592)에 중창되고 625년 무우왕사에서 법문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북위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조정과 황실이 법문사의 9차례나 불지골사리를 친견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비록 황제라 해도 불지골사리 친견은 용이하지 않았으며 황제들은 친견후 금과 보석 등 진귀한 보물로 사리함을 새로 만들어 부처님께 바쳤다. 법문사박물관에서는 세공의 아름다운 9개의 사리함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자은사(大慈恩寺)

648년 건립된 절로 시안시내에 있다. 시안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대안탑은 현장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봉안하기 위해 652년 건립해 1335권의 불경을 봉안했다고 전한다. 처음에는 5층이었다가 10층으로 증축되고 병화로 일부 허물어졌다가 다시 복구되어 현재는 높이 64m, 둘레 25m의 7층탑이다.



흥교사 원측탑

신라스님 공부장소

▲흥교사(興敎寺)

장안현 위곡에서 두곡으로 이어지는 동족 소릉원에 있다. 현재의 사찰은 청말에 복원된 것으로 현장스님의 탑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신라승 원측탑, 오른쪽에 규기탑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흥교사에서 공부한 신라승은 도증(道證), 신곽(神廓), 의적(義寂), 도륜(道倫), 신방(神昉), 지인(智仁), 현범(玄范), 승장(勝莊) 등으로 이들이 남긴 역경, 찬소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신방은 20년간 현장곁에 머물며 역경사업을 이끌었다.



부처님 지골사리

법문사 2세기 봉안

▲초당사(草堂寺)

시안으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있다. 초당사가 동진때 창건된 절로 후진(後秦)때 구자의 고승 구마라집(鳩摩羅什)이 경전을 번역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정문 왼쪽에는 29m 높이의 구마라집 사리탑이 있다. 구마라집이 이곳에 초막을 지어 역경원을 설치해 불경을 번역했다고 해 '초당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구마라집 사리탑

경전 번역 사찰

▲지상사(至相寺)

의상이 8년간 주석하며 화엄을 공부했던 곳이다. 의상스님이 걸어다녔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신도들이 현재도 다니고 있다. 신라승인 승전, 무염, 효충, 도량 스님 등이 지상사에서 공부했다고 전한다. 대대적인 중창불사중에 있다.

서긴은 현장이 그대로 수몰될 처지에 놓였다가 조계종의 지원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새로 짓는 선유사에 옮겨지게 된 것이다. 현재 혜초스님이 기우제를 지냈던 바위는 너무나 커 7조각으로 나뉘어 선유사 문물관리소에 옮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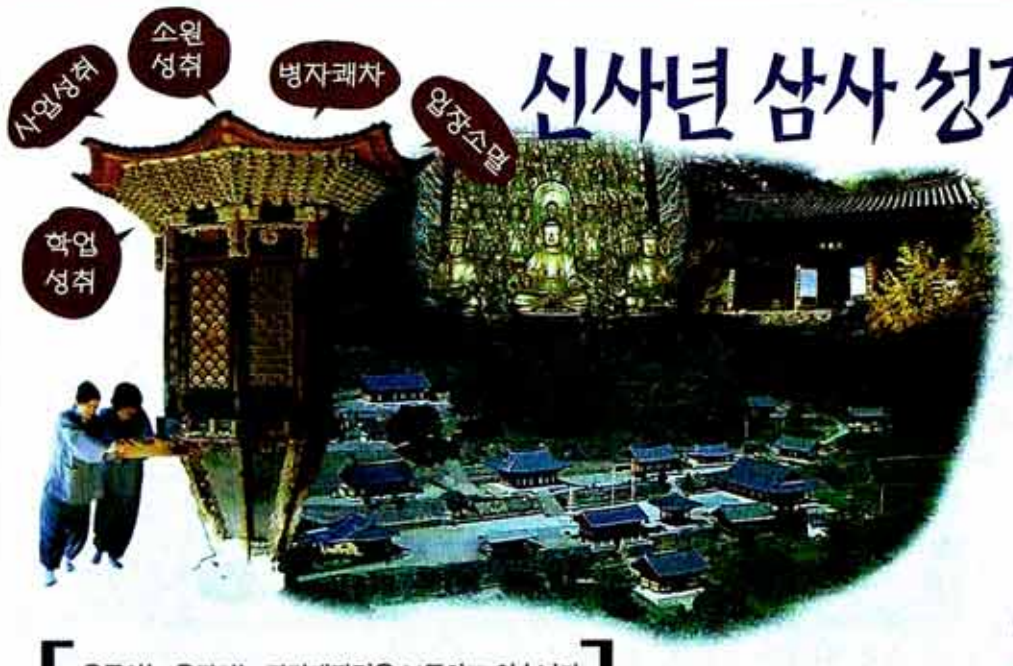
선유사 혜초기념비 제막을 계기로 중국불교문화사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우리나라 고승들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관련 유적지를 발굴하는 일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혜초스님처럼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입적한 스님들에 대해 국내 연구가 소홀하고 다소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도리어 그들을 중국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친 고승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로 사대주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는 한 방향도 된다는 것이다.

시안 불교유적 답사에 동참한 변인석교수(전 아주대 인문학부)는 "중국에는 우리나라 스님들과 관련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지만 관광객들은 물론 학자들조차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라면서 "중요한 유적지에 공덕비나 기념비를 세워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고, 외국에 있는 우리 관련 문화재복원에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스님이 관련된 곳곳에 행적비를 세우며 중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현장스님의 역경사업에 팀장으로 활약해 기록에 남겨진 우리나라 스님만도 10여명 이상. 이들은 단순히 보조역할이 아니라 필수, 증문, 증의, 윤문 등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를 다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지혜와 수행력의 소유자로 중국문화 창출에 혁혁한 공헌을 했기에 그 스님들의 업적을 조명하고 공덕을 기리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것이다.

중국 산시성 =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신사년 삼사 성지순례 윤장대 원(願)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불자님들을 위하여 윤장대를 공개하여 성지를 참배하고 윤장대에 원(願)을 실어 돌리면서 업장을 녹히고 부처님의 위적을 기리는 삼사성지순례 및 방생법회는 부처님의 향기가 서려있는 용문사에서 시작하여 보십시오.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7:00~6:00, 1시간 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7시 30분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후 4시



삼사방생순례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주 지 청 안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법 보 대 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 우편번호757-842
문 의 : (054)655-8695, 655-1011, 655-1010
팩 스 : (054)655-8405

▶ 삼사성지순례 및 방생을 봉행하고자 하는 사찰에서는 연락을 주시면 용문사 안내리프렛을 보내드립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 부산→용문사 버스편 : (051)817-8012~3, 011-9530-6930(태평양고속관광)